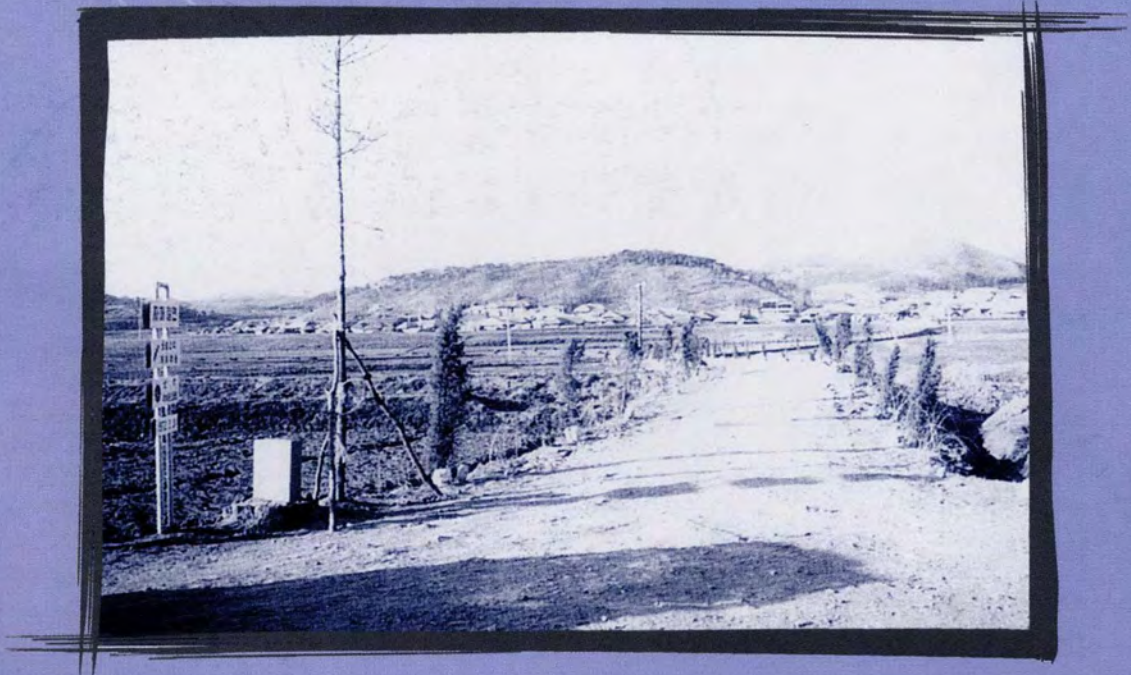


시흥시 월미두레풍물놀이

고증조사 보고서



2003



시흥문화원

표 지 설 명



〈앞면〉
월미마을의 옛 모습(1970년대)



〈뒷면〉
월미마을의 최근 모습(199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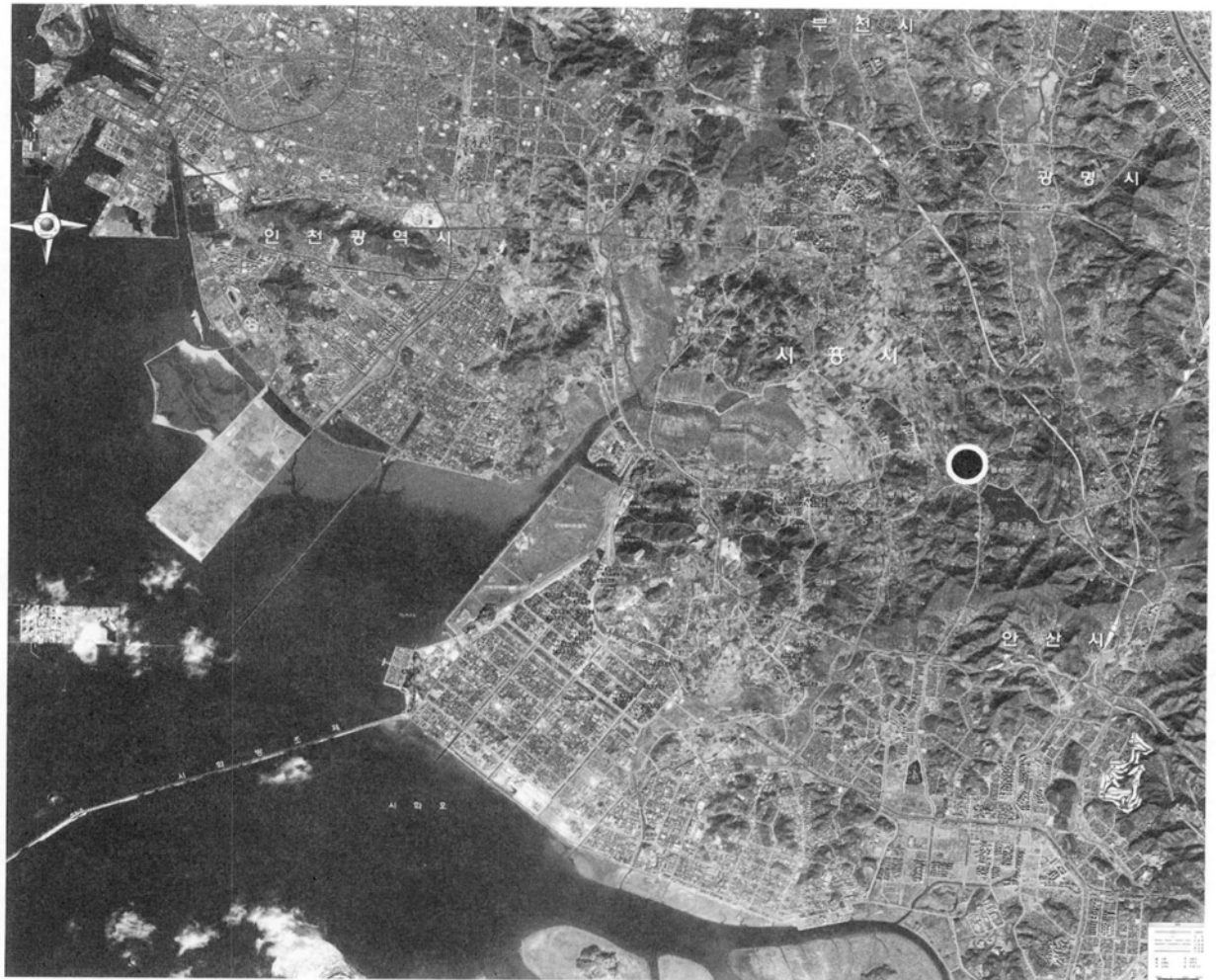


그림 1. 위성에서 본 월미마을(검정색 점)과 주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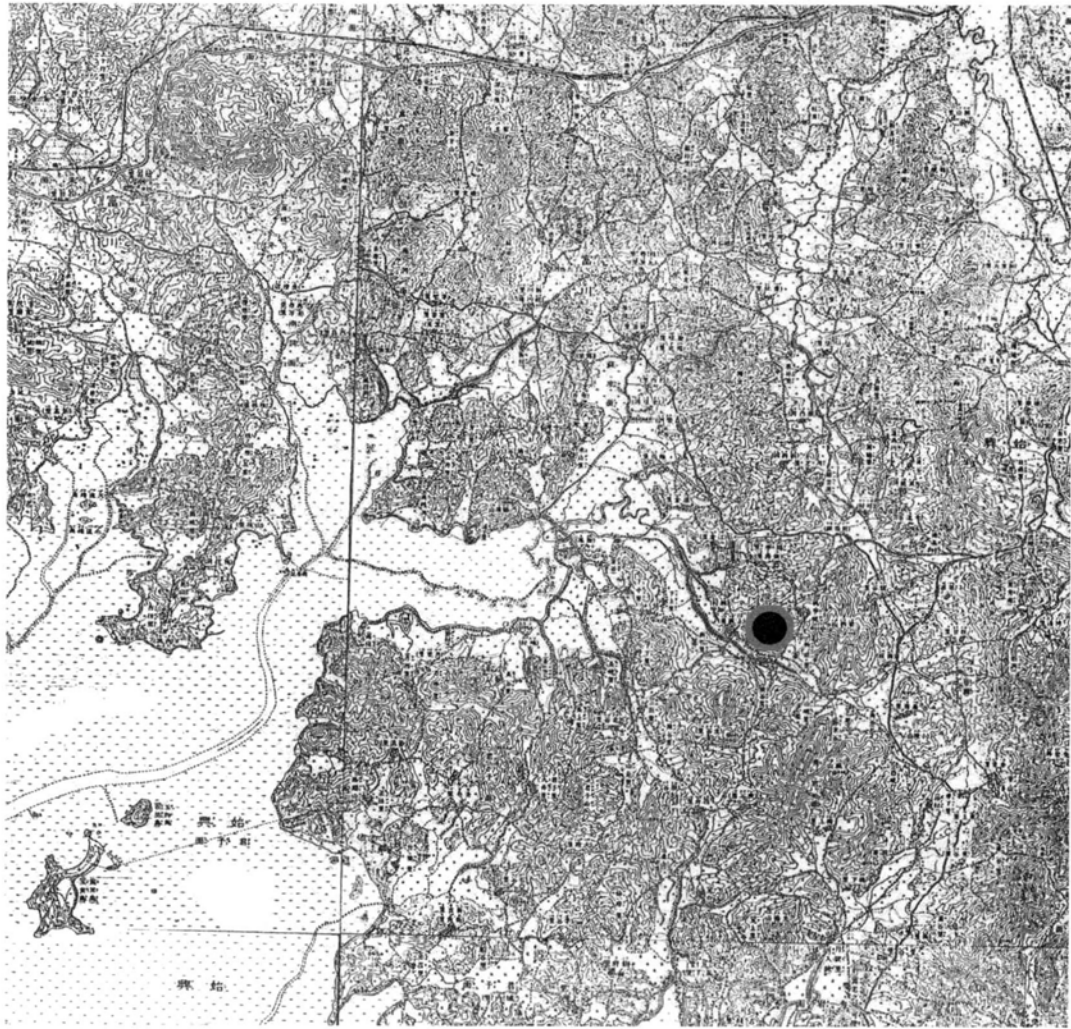


그림 2. 近世韓國 5萬分の 1 地圖(조선총독부, 1917)에서
본 월미마을(검정색 점)과 현재의 시흥시지역



그림 3. 京畿道(帖 八道地圖). 彩色寫本 중. 17세기 초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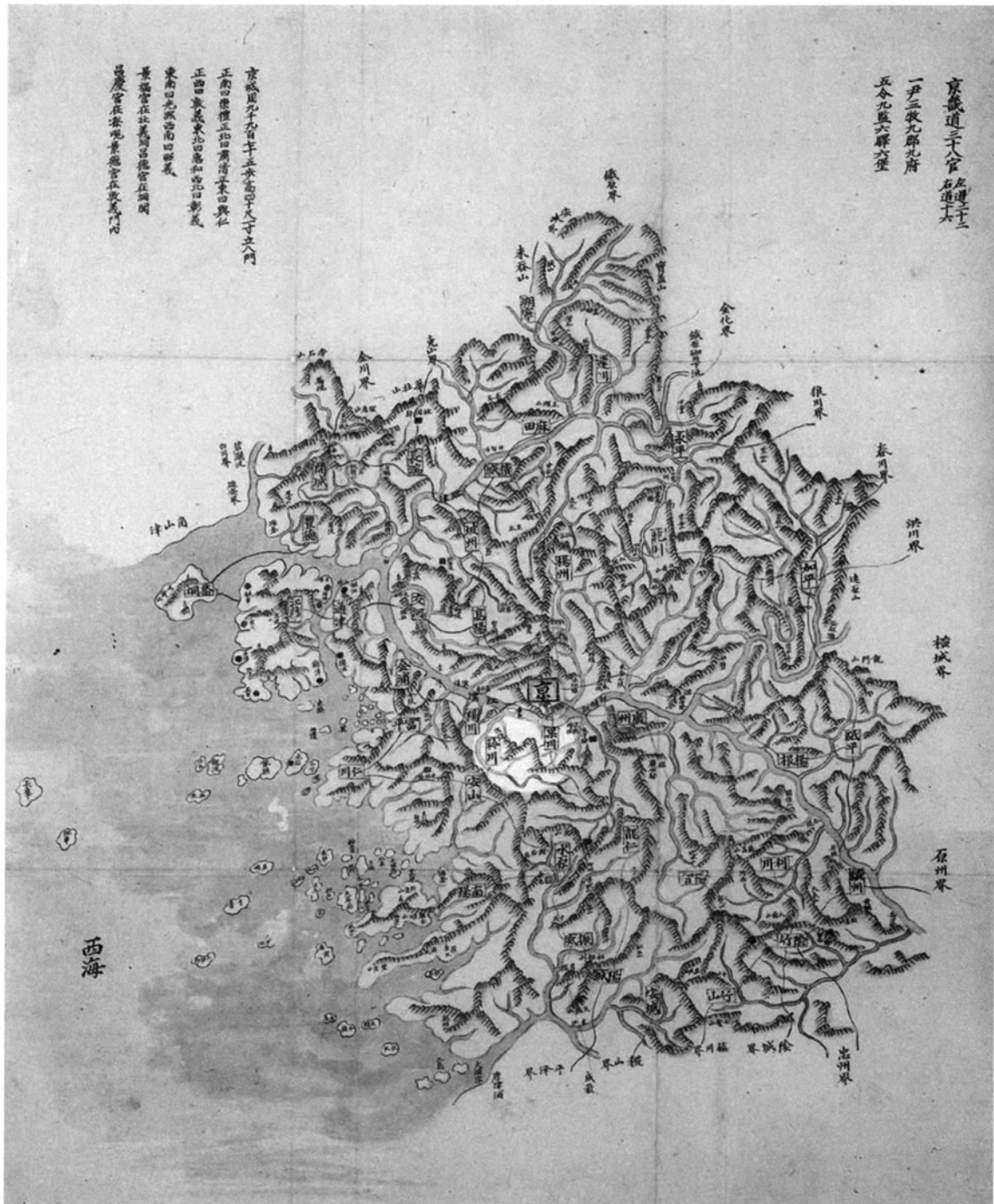


그림 4. 京畿道(帖 輿地圖). 彩色寫本 중. 18세기 말기.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차 례

I. 머리말	8
II. 시흥시의 역사·지리적 변천	11
III. 풍물의 역사적 기원과 성격	27
I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현황	33
1. 월미두레풍물놀이의 변천	33
2. 월미두레풍물놀이의 연행시기와 장소	38
3.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과 양상	40
4. 월미두레풍물놀이의 연행순서와 가락	45
5. 월미두레풍물놀이의 두레파작	48
6. 월미두레풍물놀이의 두레싸움	50
7. 월미두레풍물놀이의 담당자와 후원자	54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과 형식	57
1. 월미두레풍물놀이의 특징	58
2. 풍물패의 구성	60
3. 풍물패의 복식	61
4. 월미두레풍물놀이의 짜임새	63
5. 월미두레풍물놀이의 판제	64
6.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가락보	83
VI. 맺음말	91
※ 부록 : 현지 조사 녹취록	92

I. 머리말

이 보고서는 경기도 시흥시의 월미마을에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두레풍물놀이를 역사적·연구적 측면에서 살펴본 고증의 결과물이다.

두레는 상부상조하면서 공동으로 농사를 짓던 물질문화의 대표격으로 전래 농민생활 풍습의 으뜸이었다. 특히 조선후기에 이양법의 확충과 촌계의 변화는 두레의 확산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번에 조사한 월미두레풍물놀이 역시 이러한 전체적인 틀과 잘 부합하고 있다. 월미두레풍물을 포함한 시흥지역의 두레풍물놀이는 대략 19세기 말에 전성기가 있었다. 시흥지역의 두레패들은 대원군의 경복궁 중축에 동원되기도 할 정도로 뛰어난 수준을 지니고 있었다.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그 맥락을 면면히 이어왔으며,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 이전까지 옛 전통을 되살리는 기회를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흥지역의 두레풍물놀이는 근대화와 산업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대략 197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전승이 중단되었다.

위와 같은 시대적 변화를 겪은 월미두레풍물놀이를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시흥지역의 역사적 변화와 두레풍물놀이의 기원 및 성격에 관한 문헌조사를 하나의 과제로, 두레풍물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제보자들과의 면담을 중심으로 한 현장조사를 다른 하나의 과제로 삼아 고증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번 고증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유영대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

책임조사원 : 이대중 (고려대학교 국문과 박사과정, 현장조사담당)

책임조사원 : 김현진 (인하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문헌조사담당)

조 사 원 : 김원민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과정, 현장조사담당)

조 사 원 : 신세라 (인하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문헌조사담당)

보 조 원 : 김혜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보 조 원 : 최종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희과 4년)

조사는 2003년 4월과 5월에 걸쳐 주로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이 되는 시흥시는 시대변천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동이 심하였고, 현재와 같은 행정구역은 1989년 옛 시흥군이 분리되면서 당시의 소래읍·수암면·군자면이 합쳐지면서 탄생하였다. 조사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월미마을은 옛 수암면에 속하였던 지역이었으므로, 월미마을 뿐만아니라 인근의 옛 수암면 지역의 두레풍물도 조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소래읍과 군자면에 속하였던 곳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월미두레풍물놀이 가 갖는 지역적 특성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향 아래 각 권역에서 행해졌던 두레풍물놀이의 양상과 각 권역에서 전승되었던 두레풍물놀이의 의미를 월미마을의 두레풍물놀이와 비교·검토하여 공통성과 차별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시흥두레풍물놀이의 양상을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다른 풍물놀이와 비교하여 월미두레풍물놀이의 독자성과 특성을 찾아보려 하였다.

이번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가며 조사에 협조해 주신 여러 주민들께 우선 감사드린다.

그리고 여러 마을의 제보자들을 소개해 주시고 조사단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흥문화원 박용민 원장님, 조사의 경과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며 여러 행정적 지원에 인색하지 않으셨던 시흥시 문화진흥과 주기수 과장님, 김영식 계장님, 최종복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여 백

II. 시흥시의 역사·지리적 변천

시흥시는 경기도 중서부에 위치하였으며, 동쪽은 안양시, 서쪽은 인천광역시, 남쪽은 안산시, 북쪽은 부천시와 접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크게 13개의 행정동(대야·신천·신현·은행·매화·목감·군자·정왕1·정왕2·정왕3·정왕4·과림·연성)속에 30개의 법정동이 속해 있다. 인구가 360,489명(2003년 4월 30일)이며, 서울의 인구 및 산업시설의 분산시책 일환으로 조성된 경인공업단지 배후도시이자 전원주택도시이다.

활발한 학술조사를 통하여 군자면 정왕동 오이도 지역에서 다량의 빗살무늬토기 및 석기, 골각기 등이 발굴되었고¹⁾ 조남동·계수동·군자동에서도 지석묘²⁾가 발굴되었다. 이러한 발굴을 통해서 시흥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었으며, 시흥의 역사가 선사시대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시흥시의 역사가 문헌상에서 나타나는 것은 삼국시대 행정구역에 관한 기록이다.

가-1) 栗津郡은 본시 고구려의 栗木郡으로, 景德王이 栗津으로 改名하였다, 지금의 菓州이다, 領縣이 셋이다. 穀壤縣은 본래 고구려의 仍伐奴縣으로, 경덕왕이 穀壤으로 개명하였으니 지금의 黔州이다…… 獐口郡은 본래 고구려의 獐項口縣인데, 경덕왕이 獐口로 改名하였으니, 지금 安山縣이다.³⁾

가-1)을 보면, 지금의 시흥시는 삼국시대에 고구려의 영토로서 울목군, 잉별노현, 장항구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당시의 위치를 지금의 행정구역과 관련하여 비정해 보면, 울목군은 안양시와 시흥시 일대,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관악구 동작구 일대를, 잉별노현은 지금의 광명시와 안산시 일대,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관악구·구로구·동작구·영등포구 일대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장항구현은 지금의 안산시와 시흥시를 포함하는 지역⁴⁾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고구려의 영역이었던 세 지역은 통일신라 景德王 16년(757년)에 지방제도의 정비과정에 따라 변화하였다. 당시 지방제도(9州 5小京 11郡 293縣)의 개편 속에서 세 지역은 9州중 漢州에 속하게 되었고, 당시의 지방제도 개편 속에서 세 지역은 모두 군현명의 변화가 나타났고, 장항구현이 장구군으로 바뀌는 등 군현의 승격이 이루어졌다.

울목군→울진군과 장항구현→장구군으로의 변화는 군현명의 의미상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1) 경기도·명지대학교, 『시화지구 개발사업구역 지표조사 - 시흥군 군자면 오이도 패총과 정왕산 봉수를 중심으로』(1988) : 한국수자원공사·서울대학교 박물관, 『시굴조사보고서 - 오이도 뒷밭패총』(2002).

2) 김무룡, 『경기 시흥군내 지석묘』(『고고미술』 16, 1961); 始興市·漢陽大學校 博物館, 『始興市 烏南洞 支石墓 發掘調査報告書』(1999); 始興市·漢陽大學校 博物館, 『始興市 桂壽洞 支石墓 發掘調査報告書』(1999).

3) 『三國史記』 卷35, 雜誌4, 地理2, 新羅, “栗津郡 本高句麗栗木郡 景德王改名 今菓州 領縣三 穀壤縣 本高句麗仍伐奴縣 景德王改名 今黔州…… 獐口郡 本高句麗獐項口縣 景德王改名 今安山縣”.

4) 始興郡誌編纂委員會, 『始興郡誌』 上(1988), 71~72쪽.

II. 시흥시의 역사·지리적 변천

경덕왕 대 실시된 漢化政策으로 인한 군현명의 개정과정이다.

특히 군현명의 개정이 옛 지명의 의미와 지역적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당시의 지방제도가 삼국유민의 회유와 故地의 병합이라는 화합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추측할 수 있다.⁵⁾

잉벌노현→곡양현의 경우에는 앞선 두 지역의 군현명 변화와는 달리 언뜻 보기에 새로운 군현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잉벌노현의 의미가 ‘廣野地’라는 점과 관련해 볼 때, 잉벌노현의 새로운 군현명이 穀壤縣으로 바뀐 것은 앞서 서술한 한화정책에 의한 군현명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군현의 승격과 관련하여 장항구현이 장구군으로 변화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당시 군현의 승격이 이루어진 곳은 전국적으로 모두 7곳이었고, 지역별로는 고구려 지역 3곳, 백제 지역이 4곳이다.

그런데 군으로 승격된 7개 현의 위치가 경기 북서부의 패강진이나 파주 지역 일대, 그리고 충남 예산과 전라도 일대 등으로 대부분 평야지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상기 지역을 농업생산과 관련한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오늘날의 예당평야 일대, 전라도 만경평야 및 나주평야 일대이다.⁶⁾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장항구현이 군으로 승격된 이유에는 장항구현이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높았던 지역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세 지역은 高麗 初, 成宗, 顯宗, 明宗 그리고 忠烈王대에 행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울목군은 울진군으로, 잉벌노현은 곡양현으로, 그리고 장항구현은 장구군으로 바뀌는 행정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가-2) 安南都護府樹州는……이에 소속된 현이 6개였다. 衿州(衿은 黔으로도 쓴다)는 원래 고구려의 仍伐奴縣인데 신라 경덕왕은 穀壤으로 고쳐서 栗津郡에 소속된 현으로 만들었다. 고려 초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고 성종 14년에 단련사를 두었으며 목종 8년에 없앴다. 현종 9년에 본 樹州에 소속되었으며 명종 2년에 감무를 두었다. 始興(성종이 정한 명칭이다)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楊花渡가 있다.⁷⁾

가-3) 水州는……소속된 현이 7개 있다. 安山縣은 원래 고구려의 장항구현인데 신라 경덕왕 때에 장구군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安山郡으로 고쳤고 현종 9년에 水州에 소속시켰으며 후에 감무를 두었다가 충렬왕 34년에 문종이 태어난 곳이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知郡事로 승격시켰다.⁸⁾

가-4) 廣州牧은……본 목에 소속된 군이 4개, 현이 3개 있다……果州는 원래 고구려의 栗木郡(동사힐

5) 韓準洙, 『新羅 景德王代 郡縣制의 改編』(『北岳史論』 5, 北岳史學會, 1998), 99쪽.

6) 韓準洙, 앞의 논문, 104쪽.

7) 『高麗史』 卷56, 地理1, 安南都護府 樹州, “安南都護府 樹州……屬縣六 衿州「衿一作黔」本高勾麗仍伐奴縣新羅景德王改名穀壤爲栗津郡領縣 高麗初更今名成宗十四年置團練使穆宗八年罷之 顯宗九年來屬明宗二年置監務 別號始興「成廟所定」有楊花渡”.

8) 『高麗史』 卷56, 地理1, 水州, “水州本高勾麗買忽郡新羅景德王改爲水城郡……屬縣七 安山縣本高勾麗獐項口縣新羅景德王改爲獐口郡 高麗初改爲安山郡顯宗九年來屬後置監務忠烈王三十四年以文宗誕生之地陞知郡事”.

II. 시흥시의 역사·지리적 변천

이라고도 한다) 인데 신라 경덕왕은 栗津郡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지금 명칭으로 고쳤고 현종 9년에 본 목에 소속시켰으며 후에 감무를 두었다. 富安(성종이 정한 명칭이다) 또는 富林이라고도 불렀으며 冠嶽山(충렬왕 10년에 이 州의 龍山處를 富原縣으로 승격시켰다)가 있다.⁹⁾

가-2)·3)·4)를 보면, 세 지역 모두 고려 초에 곡양현→금주, 안산현→안산군 그리고 울진군→과주로 바뀌는 등 군현명의 개정이 있었다. 『高麗史』에 나오는 ‘高麗 初’의 시기는 대개 태조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¹⁰⁾ 당시의 군현제 변화는 후삼국시기 분열된 호족세력을 통합하는 과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체로 당시 군현제 개편은 군현의 來屬과 改名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려 초’에 나타난 세 지역의 군현명의 개정은 세 지역이 후삼국시기 치열한 접전지역이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¹¹⁾

이후 성종 대는 금주를 시흥이라 別稱했다는 기록과 성종 14년 금주에 단련사를 설치했다는 기록, 그리고 과주를 부안·부림으로 칭하였다는 내용이 보인다. 물론 현재의 시흥시와는 지역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성종 대부터 금주의 별칭으로 시흥이라는 지명이 나타났다.

왜 시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단지 과주를 富林으로 칭한 것은 과주의 원래 지명이 栗木이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과주 지역의 지리 환경적 특성에 의한 현상으로써 군현명의 의미상 별 다른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별칭으로 사용된 것 같다.

다음으로 현종 9년에 실시된 군현 개편은 금주가 樹州로, 안산군은 水州로, 그리고 과주가 廣州에 속하는 등 군현간의 領屬關係가 나타난다. 고려는 후삼국통일 후 고려 초부터 호족중심의 지방지배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지방지배를 위하여 군현제의 개편을 추진하였으나, 전국적인 군현제 개편은 이루지 못하고 대개 군현명의 개정을 통한 승격과 강등을 통하여 지방지배를 실현하였다.

이후 현종 9년에 이르러 전국을 京, 都護府, 牧, 州, 府, 郡, 縣, 鎮으로 나누고 군현 간의 영속관계를 편성함으로써 대폭적인 군현제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현종 9년에 세 지역이 모두 타지역과 영속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당시의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현종 9년에 실시된 군현제 개편은 全郡縣을 주현과 속현으로 이원화하여 외관이 파견되어 있는 主縣에 외관이 파견되지 아니한 屬縣을 영속시키는 영속관계로 편성하였다.¹²⁾

때문에 금주와 안산군 그리고 과주는 현종 9년까지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채 상위행정구역에 영속되어 있는 속현의 위치였다.

세 지역에 외관이 파견되는 시기는 자료 가-2)·3)·4)를 보았을 때, 금주는 ‘명종 2년에 감무가 설치’ 되고, 안산군과 과주는 ‘후에 감무가 설치되었다’고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대개 고려후기에 이르러

9) 『高麗史』 卷56, 地理1, 廣州牧, “廣州牧……屬郡四縣三……果州本高勾麗栗木郡「一云冬斯」新羅景德王改爲栗津郡 高麗初更今名顯宗九年來屬後置監務 別號富安「成廟所定」又號富林有冠嶽山「忠烈王十年陞州之龍山處爲富原縣」.

10)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一潮閣, 1984), 64~65쪽.

11) 박종기는 고려 초 시기에 군현의 개정이 있었던 총 148개 지역 중 楊廣道(경기도), 慶尙道, 全羅道 지역에서 군현명의 개정이 있었던 곳이 119개 지역이었다는 점을 통해, 고려 초 시기의 군현 개정은 반고려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을 통치, 지배하기 위해 호족통합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朴宗基, 『“高麗史” 地理志의 高麗初 年紀實證-太祖代 郡縣改編의 背景』, 『두계 이병도박사 구순기념 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7, 167쪽).

12) 李義權, 『高麗의 郡縣制度와 地方統治政策 - 主·屬縣 考察을 中心으로』(『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238~239쪽.

서였다.

이후 세 지역에서 행정적인 변화를 보인 곳은 충렬왕 34년에 안산군이 문종이 태어난 곳이라는 이유로 지군사로 승격한 경우이다. 고려시대 군현제의 특징은 주현과 속현의 이원적인 체제 그리고 외관이 파견된 주현에 의한 속현의 지배이다.

이러한 고려시대 군현제의 특징이 고려정부의 행정적인 미숙성인지, 아니면 이와 반대로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지배인지 분명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고려시대 군현제의 편제나 구조가 戶口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안산군이 知郡事로 승격한 경우와 같이 왕과 일부지배계층에 의해 군현의 승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고려후기까지 군현제가 합리적인 체제로 나타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1) 본래 고구려의 仍伐奴縣인데, 신라가 穀壤으로 고쳐서 栗津郡의 領縣을 삼았고, 고려에서 衿川으로 고치어, 成宗 14년 을미에 (송나라 太宗 至道 元年) 團練使를 두었다가, 穆宗 8년 을사에 (송나라 眞宗 景德 2년) 혁파하고, 顯宗 9년 무오에 (곧 송나라 진종 天禧 2년) 樹州 任內에 붙였으며, 明宗 2년 임진에 (孝宗 乾道 8년) 비로소 監務를 두었다. 本朝 태종 14년 갑오에 果川을 병합하여 衿果縣이라 하였다가 두어 달 만에 파하였고, 또 陽川縣을 병합하여 衿陽縣이라 하였다가 1년 만에 파하였으며, 태종 병신에 다시 衿川縣監이라 하였다. 別號는 始興이다.¹³⁾

나-2) 본래 고구려의 栗木郡인데, 신라가 栗津郡으로 고쳤고, 고려에서 果州로 고치어, 顯宗 무오에 廣州 任內에 붙였다가, 뒤에 監務를 두었다. 本朝 太宗13년 계사에 例에 의하여 果川縣監으로 고치었다. 別號는 富林이다(淳化 때에 정한 것이다. 혹은 富安이라고도 한다. 대개 州·府·郡·縣은 각기 등급이 있다. 國初에 고려의 옛 제도를 의거하여, 知官으로써 州로 일컫는 것이 있으니, 仁州·槐州 따위요, 監務官으로써 州로 일컫는 것이 있으니, 果州·衿州 따위이다. 名實이 서로 혼동되어, 사람들이 식별하기 어려웠더니, 이에 이르러 지관과 감무관으로서 州로 일컫던 것을 모두 '山'과 '川'의 두 자로써 대신하였다. 뒤에 대개 例에 의하여 '某山', '某川'으로 고쳤다고 한 것은 모두 이 해의 일이다).¹⁴⁾

나-3) 본래 고구려의 獐項口縣인데, 신라가 獐口郡으로 고쳤고, 고려가 안산군으로 고쳐, 顯宗 무오에 水州 任內에 붙이었는데, 그 뒤에 監務를 두었고, 忠烈王 34년 무신에 文宗이 탄생한 땅이므로 知郡事로 승격시켰으며, 本朝에서도 그대로 따랐다.¹⁵⁾

13) 『世宗實錄』 卷148, 地理志, 京畿 廣州牧 衿川縣.

14) 『世宗實錄』 卷148, 地理志, 京畿 廣州牧 果川縣.

15) 『世宗實錄』 卷148, 地理志, 京畿 水原都護府 安山郡.

나-1)의 내용을 보면, 고려시대의 금주는 조선 태종 14년에 들어와 과천과 병합하여 금과현으로 개칭되었다가 파하였고, 이후 양천현과 병합하여 금양현으로 개칭된 후에 파하여 태조 병신에 다시 금천현으로 개칭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조선전기의 군현제 개편이 군현병합을 위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당시 군현병합은 원칙적으로 경상도 溟珍縣의 경우처럼 ‘地狹民小’와 같이 경제적·지리적인 조건에 의한 것이었다.¹⁶⁾

아래의 나-4)는 조선초기 금천 지역과 인근지역의 병합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나-4) 경기 도관찰사가 도내의 併合한 縣邑의 事宜를 보고하였다……衿果는 衿川の 人吏와 노비와 土着民이 번성하나 果川이 비록 땅이 비좁고 인구가 적더라도 가까이 있으며, 金陽은 金浦·陽川의 인물은 비록 비슷하더라도 경계와 땅의 형세로써 양천을 김포에 붙이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양천이 京城에 가깝습니다. 위의 조건의 縣邑을 옮겨 배속할 곳을 청컨하오니 議政하여 주소서.” 호조에서 과천을 금천에 옮기고 양천을 김포에 옮기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¹⁷⁾

나-5) 다시 果川縣監을 설치하였다. 호조에서 아뢰었다. “지난번에 果川을 衿川에 병합하였으나, 京城에서 水原에 이르기까지 使客을 迎送하는 데 길이 멀고 험하니, 果川을 다시 두도록 청합니다. 衿川을 陽川에 합하여 衿陽縣으로 하고, 金浦는 富平에 붙이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¹⁸⁾

자료 나-4)·5)는 금천과 과천 그리고 금천과 양천의 병합내용이다. 내용을 보면 태종 14년 9월에 금천과 과천이 병합되었다가 태종 14년 윤 9월에 두 지역의 병합을 파하고 금천은 다시 양천과 병합되었다.

두 자료 내용을 보면, 당시의 군현 병합은 사회경제적으로 동등한 지역 간의 병합이 아니라, 지리적인 측면에서 경계와 땅의 형세로써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나-4)에서 금천과 과천은 ‘戶口와 토지에 차이가 나지만 가까이 이웃하고 있다는 이유’로 병합이 이루어졌고, 나-5)에서는 금천과 과천의 병합으로 인해서 ‘사객을 영송하는 데 길이 험하다’는 이유로써 두 지역 간의 병합을 파하고 다시 금천과 양천 간의 병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금천과 양천 간의 병합 역시 일 년 뒤인 태종 16년 7월에 원래 지역으로 분할되었다.¹⁹⁾

16) 『太祖實錄』卷15, 7年 12月 20日 壬戌, “以慶尙道溟珍縣 併于江城郡 號曰珍城 溟珍古在巨濟之地 因倭失所出居晋州南鄙 地狹民小 監司請併之”.

17) 『太宗實錄』卷28, 14年 9月 8日 戊寅, “京畿 都觀察使報道內併合縣邑事宜報曰……衿果則果川人吏奴婢土着繁 果川雖地窄人少在於路旁金陽則金浦陽川人物雖等以境壤之勢陽川宜隸於金浦然陽川近於京城右件縣邑移排之處請賜議定戶曹啓請移果川於衿川陽川於金浦 從之”.

18) 『太宗實錄』卷28, 14年 閏9月24日 甲子, “復置果川縣監戶曹啓頃者以果川併於衿川自京城至水原使客迎送遙阻請復果川以衿川合於陽川爲衿陽縣金浦隸於富平 從之”.

19) 『太宗實錄』卷32, 16年 7月 30日 己未, “復分併合郡縣仍舊京畿衿川陽川朔寧安峽麻田漣川金浦忠清道溫水新昌全義燕 黃澗青山全羅道扶寧保安皆復舊”.

이렇게 군현 간의 병합과 분할이 반복된 것은 군현 병합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원망이 높았기 때문이다.²⁰⁾

조선초기 군현 병합은 군현 간의 병합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 사회경제적 요인과 문화적인 요인, 그리고 지리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방향으로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이 컸고, 결국은 군현 병합과 분할을 거듭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자료 나-1)에서 “신라가 穀壤으로 고쳐서 栗津郡의 領縣을 삼았고, 고려에서 衿川으로 고치어”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앞서 가-2)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려시대에는 금주라고 칭하였다는 것과 다른 내용을 보여준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편찬된 다른 지리지와 비교해 볼 때, 아마도 ‘주’자를 ‘천’자로 잘못 써서 생긴 일로, 실록 편찬과정에서의 오류가 아닌가 생각된다.

『세종실록』지리지와 편찬연대가 가장 가까운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금천의 건치연혁을 살펴보면 “본래 고구려의 잉별노현이었는데…고려 초에 금주로 고쳤으며 성종 때 團練使를 설치하고 목종 때 파하였다. 현종 9년에 수주에 속하였으며 명종 때 감무를 설치하였다. 本朝(조선) 태종 14년에 과천과 합하여 금과현이라 하였다……”²¹⁾고 서술되어 있으며 영조 대에 편찬된 『輿地圖書』에서도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동일한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또 고종 대에 편찬된 『大東地志』에서는 “본래 백제의 잉별노였는데……고종 태조 23년에 금주라 고치다. 성종 14년에 단련사를 설치하였으나 목종 8년에 파하였고, 현종 9년에 수주에 속하게 하였다. 명종 2년에 감무를 설치하고 본조 태종 14년에 과주와 합하여 금과현이라 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나-6) 각도 각 고을의 이름을 고쳤다……각도의 單府 고을을 都護府로 고치고, 監務를 縣監으로 고치고, 무릇 郡·縣의 이름 가운데 州자를 뺀 것은 모두 山, 川으로 고쳤으니, 寧州를 영산寧山으로 고치고, 衿州를 衿川으로 고친 것이 그 예이다.²²⁾

조선시대에 편찬된 다른 官撰地志에는 『세종실록』지리지처럼 ‘고려시대에 금천이라 칭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자료 나-6)의 내용은 고려시대의 금주가 금천으로 바뀌게 된 것이 조선 전기 태종대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기록하고 있다.

조선 전기의 군현제 개편은 군현 병합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군현 병합 이외에도

20) 『太宗實錄』卷29, 15年 3月 25日 癸亥, “敎曰各官併合民皆怨之依前若何兵曹判書金承 曰可當併者合之以補軍資雖小民怨之何必 「輕」改吏曹判書韓尙敬曰更考道里地境之遐近其近者併之其遠者依舊分之”.

『太宗實錄』卷30, 15年 8月 1日 乙丑, “全羅道都觀察使朴習永吉道都巡問使曹洽上其道事宜皆以小縣可復立處可并合處也刑曹判書鄭易曰前朝之時不并合州縣而國用尙足乞依舊制上曰古法安可盡循前朝之季田制案而”.

21) 『新增東國輿地勝覽』第10卷. 京畿5, 衿川, 建置沿革, “本高句麗仍伐奴縣……高麗初改爲衿州 成宗置團練使 穆宗罷之 顯宗九年屬樹州 明宗始置監務 本朝 太宗十四月以果川來合爲衿果縣……”.

22) 『太宗實錄』卷26, 13年 10月 15日 辛酉, “改各道各官之號……又以各道單府官改都護府監務改縣監凡郡縣號帶州字者皆改以山字川字寧州改寧山衿州改衿川其例也”.

군현명의 개정을 통한 개편이 조선 전기 군현제의 특징이다. 이러한 점은 자료 나-2)에서 고려시대 과주가 조선 태종 때 과천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군현명 개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나-2)에서 서술되었듯이 고려시대에 “州로 일컫던 것을 모두 ‘山’과 ‘川’의 두 자로써 대신”하여 개정하였다. 이에 고려시대의 과주 역시 과천으로 개정되게 되었다. ‘주’에서 ‘산’과 ‘천’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아래의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나-7) 옛적에 黃帝가 州를 나누는 제도를 처음으로 베풀었고, 舜이 天下를 나누어 12州를 만들었고, 우가 다시 9州를 만들었고, 三代 이대로 唐·宋에 이르기까지 비록 沿革은 같지 않으나, 주·부·군·현의 이름은 정연하게 次序가 있었습니다. 前朝의 盛時에 3留守·8牧·4都護府를 두고, 郡과 縣은 각각 그 땅의 가까운 것을 따라서 巨邑에다 나누어 예속시키었는데, 족히 政令을 행할 수 있고, 백성들이 번잡하고 가혹한 폐단을 받지 않았습니다. 쇠퇴한 말년에 이르러 權奸이 정치를 마음대로 하여, 法令이 폐하고 해이해져서, 무릇 주와 군이, 혹은 한 宰相이 정치를 잡거나, 혹은 宦寺가 중국에 들어가 入侍하였다가 使命을 받들고 還鄉하거나, 혹은 僧이 王師나 國師가 되면, 반드시 말하기를, ‘아무 고을은 내가 난 땅이다.’ 하여, 權勢를 타서 요구하고 청하여, 혹은 部曲을 승격하여 監務를 만들고, 혹은 군과 현을 승격하여 주를 만드니, 이 때문에 군과 현의 이름이 날로 뛰어오르게 되었으나, 토지의 넓고 좁은 것과 인민의 많고 적은 것이 그 이름에 맞지 않고, 또 주·부·군·현이 각각 정해진 이름이 있는데, 혹은 주를 부라 칭하고, 혹은 현을 주라 칭하여, 名器가 혼잡하고 어지러워졌습니다……전하께서는 여러 道의 주·부의 제도를 밝히어 마땅한 것을 헤아려서 이를 개혁하여, 주·부·군·현의 名號와 等級을 한결같이 狀 뒤에 아뢴 바와 같이 하여, 3留守府는 1등을 만들고, 5大都護府·10州牧은 2등을 만들고, 20府官은 3등을 만들고, 그 나머지 부·주·군은 모두 郡으로 고쳐서 知郡事라 칭하여 4등을 만들고, 縣令·監務는 모두 현으로 만들어서 知縣事라 칭하여 5등을 만들고, 文字로 서로 통하는 程式과 給·衙俸의 수량은 한결같이 「經濟六典」의 예에 의하여, 매양 牧에만 州라 칭하고, 府와 郡에는 모두 州라 칭하지 말아서, 주·부·군·현으로 하여금 각각 정한 이름이 있어, 粲然하게 질서가 있게 하여, 큰 것으로 작은 것을 부리고, 아랫 것으로 윗 것을 이 어받게 하면, 저절로 統屬이 있고, 政令이 행하여질 것입니다.²³⁾

자료 나-7)은 고려 말기에 군현 승격이 토지나 인민의 다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간들에 의해 무질서하게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행정지배가 어려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조선 초 군현 개정은 중앙집권체제의 확립을 위한 지방지배의 측면에서 나타났다. 대체로 두

23) 『太宗實錄』 卷6, 3年, 閏11月 19日 壬戌, “昔者黃帝肇設分州之制舜分天下爲十二州禹復爲九州三代以降至于唐宋雖其沿革不同然而州府郡縣之號秩然有序前朝盛時置三留守八牧四都護府其郡縣各以其地之附近分隸臣足以及行其政令民不見其煩苛之弊及其衰季權奸擅政法令廢弛凡州若郡或有一相執政或宦寺入侍天廷奉使還鄉或有僧爲王師國師必曰某邑予所生之地乘勢干請或以部曲而陞爲監務或以郡縣而陞爲州由是郡縣之號日就超昇土地廣狹人民多少不稱其名且州府郡縣各有定名或以州而稱府或以縣而稱州名器混淆今也……殿下明諸道州府之制量宜沿革州府郡縣名號等級一如狀後所申三留守府爲一等五大都護府十州牧爲二等二十府官爲三等其餘府州郡皆改爲郡稱知郡事爲四等縣令監務皆爲縣稱知縣事爲五等其文字相通之式 給衙俸之數一依經濟六典之例每於牧但稱州於府及郡俱不稱州使州府郡縣各有定名粲然有序大以使小下以承上則自有統屬而政令行矣”.

II. 시흥시의 역사·지리적 변천

가지의 측면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군현의 등급을 토지나 인민의 다소에 의해 5등급으로 구분하려고 한 점과 두 번째로 牧에만 州라 칭하고 府와 郡에는 모두 州라 칭하지 않음으로써 군현명의 혼동을 막으려 했다. 고려시대의 금주와 과주는 이러한 군현명의 변화 속에서 금천과 과천으로 개칭되었다.

조선 전기 이후에 과천과 안산은 행정적인 면에서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금천은 조선 후기 정조대에 들어와 군현명에 변화가 생긴다.

나-8) 黔川縣監을 현령으로 승격시키고 邑號를 始興으로 바꿨는데 이는 옛 읍호를 따른 것이었다.²⁴⁾

자료 나-8)를 보면 조선 후기 正祖 代에 금천현이 시흥현으로 개칭되고 있다. 물론 고려시대 성종 때에 금주를 시흥이라 별칭하였다는 기록이 나오긴 하지만, 공식적인 군현명으로 사용된 것은 조선 후기 정조 대부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국가주도의 관찬지리지는 이전 시대에 비해 단순히 행정구역관계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항목을 설정하여 각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포괄하고 있었다. 이것은 국가의 효율적인 통치와 지배질서의 확립이라는 목적 아래 지방의 제조건들을 인식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또한 조선후기에 이르러서 지배계층이 자신의 출신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역사적·문화적 자부심의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활발하게 지리지 편찬이 진행되었다.

때문에 조선시대 지리지는 군현명의 개정 및 영속관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항목의 자료를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 대한 복원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아래의 표는 조선시대 금천, 안산, 과천의 지리지²⁵⁾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位置, 戶口, 方里, 土姓, 田結 등을 살펴본 것이다.

24) 『正祖實錄』卷42, 19年 2月 1日 癸未, “陞黔川縣監爲縣令 改邑號爲始興 用舊號也”.

25) 조선시대 지리지 중 금천, 안산, 과천지역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世宗實錄』地理志(1450년)·『新增東國輿地勝覽』(1530년)·『輿地圖書』(영조대)·『大東地志』(1864년)·『京畿邑誌』(1871년) 등이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과 『大東地誌』는 다른 지리지에 비해 내용이 소략하므로, 두 지리지를 뺀 나머지 지리지를 가지고 표를 작성하였다.

Ⅱ. 시흥시의 역사·지리적 변천

표 1) 位置

	금천(시흥)	안산	과천
세종실록 지리지	동쪽으로 果川에 14리 서쪽으로 富平에 11리 남쪽으로 安山에 15리 북쪽으로 露渡에 18리	동쪽으로 衿川에 1리 서쪽으로 바다에 30리 남쪽으로 蟬串에 11리 북쪽으로 富平에 10리	동쪽으로 廣州에 11리 서쪽으로 衿川에 10리 남쪽으로 支石에 19리 북쪽으로 漢江에 25리
여지도서	동쪽으로 果川에 30리 서쪽으로 인천에 40리 남쪽으로 安山에 30리 북쪽으로 陽川에 30리	동쪽으로 果川에 5리 서쪽으로 仁川에 11리 남쪽으로 廣州에 10리 북쪽으로 衿川에 14리	동쪽으로 廣州에 13리 서쪽으로 安山에 25리 남쪽으로 廣州에 30리 북쪽으로 衿川에 25리
경기읍지	동쪽으로 果川에 20리 서쪽으로 인천에 20리 남쪽으로 安山에 20리 북쪽으로 부평에 20리	동쪽으로 果川에 3리 서쪽으로 仁川에 11리 남쪽으로 南陽에 35리 북쪽으로 始興에 10리	-

표 2) 戶口

	금천(시흥)	안산	과천
세종실록 지리지	戶 327, □ 937	戶 302, □ 588	戶 244, □ 743
여지도서	戶 1,873, □ 7,733	戶 2,221 □ 10,090	戶 3,150, □ 13,812
경기읍지	戶 1,557, □ 5,689	戶 2,310, □ 12,946	戶 3,612, □ 13,658

표 3) 方里

	금천(시흥)	안산	과천
여지도서	內面(安養·博山·上平里) 東面(上道·成道化·奉天·新林·場內·書院·蘭谷·文橋· 禿山·加里山) 西面(博達·一直·四犬隅·所下·加里大·栗日·鐵山·已省) 南面(場基·柳等·阿方·老溫寺·光明·廣火大) 上北面(堂山·楊坪·仙遊峰·沙村里·道也味·遠之牧·九老) 下北面(放鶴湖·麻浦·樊塘·牛臥陂·高寺)	內面 仍火面 大月面 尾里面 馬遊面 草山面	內面 東面 上西面 下西面 南面 上北面 下北面
경기(읍)지	內面(安養·博山·博達里) 東面(上道·成桃花·奉天·新林·書院·蘭谷·文橋·禿山·加里峯) 西面(鞍峴·一直·自警·所下·加里大·栗日·鐵山·已省·下坪) 南面(柳等·阿方·老溫寺·光明·廣火大) 上北面(堂山·楊坪·仙遊峰·沙村·道也味·遠之牧·九老) 下北面(放鶴亭·永登浦·番大坊·牛臥陂·新林)	面數-六面	內面 東面 上西面 下西面 南面 上北面 下北面

II. 시흥시의 역사·지리적 변천

표 4) 土姓

	금천(시흥)	안산	과천
세종실록 지리지	土姓(李·趙·姜·莊·皮·桂) 亡姓(尹·秋)	土姓(金·安·方) 亡姓(林)	土姓(孫·李·田·邊) 亡姓(愼·安·崔)
여지도서	李·趙·姜·莊·皮·桂·尹·秋	金·安·林·方	李·愼·田·安·邊·崔
경기읍지	-	金·安·林·方	孫·李·田·愼·安·邊·崔

표 5) 田畝

	금천(시흥)	안산	과천
세종실록 지리지	墾田 2,762結	墾田 2,289結	墾田 3,128結
여지도서	旱田 765結 水田 510結	旱田 603結 水田 549結	旱田 984結 水田 580結
경기읍지	田畝 1,275結	1,153結	1,565結

근대에 들어와 금천, 안산, 과천 지역에 행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시기는 고종 32년(1895) 5월 26일에 발표된 칙령 98호 「지방 제도의 개정」에 의해서이다.

다-1) 勅令 제97호 「監營, 按撫營과 留守를 폐지할 데 대하여」를 비준하여 반포하였으며 칙령 제98호 「지방 제도의 개정에 대하여」를 비준하여 반포하였다……제1조. 전국을 23府의 행정 구역으로 나누어 아래에 열거하는 각 부를 둔다. 漢城府, 仁川府, 忠州府, 洪州府, 公州府, 全州府, 南原府, 羅州府, 濟州府, 晉州府, 東萊府, 大邱府, 安東府, 江陵府, 春川府, 開城府, 海州府, 平壤府, 義州府, 江界府, 咸興府, 甲山府, 鏡城府……제3조. 각 부의 관할 구역은 아래와 같다……인천부는 仁川郡, 金浦郡, 富平郡, 陽川郡, 始興郡, 安山郡, 果川郡, 水原郡, 南陽郡, 江華郡, 喬桐郡, 通津郡이다.²⁶⁾

다-2) 勅令 제36호 「지방 제도와 관제를 개정할 데 대하여」를 비준하여 반포하였다. 전국의 23개 府를 13개 道로 개정하였는데 首府의 위치는 京畿道, 忠清北道, 忠清南道, 全羅北道, 全羅南道, 慶尙北道, 慶尙南道, 黃海道, 平安南道, 平安北道, 江原道, 咸鏡南道, 咸鏡北道이었다.……13도에서 관할하는 339개 郡은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정하였는데 郡守는 그대로 두었다.²⁷⁾

다-1)의 내용을 보면 고종 32년(1895년) 5월 26일에 발표된 칙령 제98호 제 1조에 의해 조선시대의 8

26) 『高宗實錄』 卷33, 32年 5月 26日.

27) 『高宗實錄』 卷34, 33年 8月 4日.

도제가 23부의 행정구역으로 변화하였고, 제 3조에 의해 조선시대 도제 아래 하위행정구역이었던 부, 목, 군, 현이 군으로 통합되었다. 이러한 지방제도의 변화속에서 옛시흥 지역은 시흥군, 안산군, 과천군으로 구분되어 인천부에 속하게 되었으며 고종 32년 1895년에 발표된 칙령 제164호 「郡守의 官等俸給 사항과 각 郡의 등급표」²⁸⁾에 의해 시흥, 과천, 안산 지역이 5등군으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고종 33년(1896) 8월 4일 발표된 칙령 제36호에 의해서 23부제는 폐지되고 새로운 지방제도로 13도제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지방제도에 의해 시흥군, 안산군, 과천군은 4등급의 군으로써

표 6) 始興·安山·果川地域의 各 面別 洞里(1912年)

始興郡	下北面	永登浦·新吉里·番大方里
	上北面	楊平里·堂山里·道林里·九老里
	東面	上道里·新林里·奉天里·加里峯里·禿山里
	郡內面	郡內洞, 安養里·博達里
	西面	日直里·所下里·下安里·鐵山里
	南面	駕鶴洞·老溫寺里·光明里
安山郡	仁化面	北谷里·陵谷里·花井里·廣谷里·瓦上里·瓦下里·古棧里·月陂里
	郡內洞	秀岩里·西亭里·章上里·章下里·新里·占星里·釜谷里·聲浦里·楊上里·楊下里·東谷里
	草山面	論谷里·鳥南里·祭廳里·栗浦里·物旺里·山峴里·谷里·上職里·廣石里·中職里·牧甘里·下上里·下中里·下下里
	大月面	去毛里·石谷里·仙府里·達山里
	瓦里面	芽谷里·船谷里·新角里·赤吉里·茂谷里·城頭里·梨木洞·陵內里·城內里·元上里·元浦里·元下里·草芝里·時雨洞
	馬遊面	鳥峴里·長上里·長下里·島村里·鷹谷里·月東里·月西里·正往里·鳥耳里·竹栗里·九井里·山北里
	聲串面	一里·二里·三里·四里·本五里·分五里
	北方面	速達一里·速達二里·速達三里·八谷一里·八谷二里·屯垜洞·大夜味里·渡馬橋里·乾乾里
	月谷面	沙土里·棠樹里·五龍洞·上草坪·一里·下草坪·月岩里·大垜里·笠北里
果川郡	郡內面	官門洞·內店洞·外店洞·校洞·下里·莫溪洞·文原洞·加日洞·葛峴洞
	東面	注岩洞·新院洞·院基洞·良才洞·牛眼里·瑞草里·明達里
	下西面	一洞里·二洞里·道陽里·虎溪里·後頭尾洞·檣內洞·撥舍洞·石手洞·安養里
	南面	內本洞·堂里·龍虎洞·章千里·富谷里·槐谷里·衿井里·堂井里·鳳城里·草幕洞
	上西面	一洞里·二洞里·內飛山里·外飛山里
	上北面	舍堂洞·方背洞·浦村里·銅雀洞·下盤浦里·上般浦里·沙坪里·蠶室里
	下北面	黑石里·本洞·上加次山里·下加次山里·新分村·高寺里·蠶幕洞·蠶店里

28) 「高宗實錄」卷33, 32年 9月 5日.

II. 시흥시의 역사·지리적 변천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다. 이후 시흥군, 안산군, 과천군은 일제 침략기와 식민지기를 맞이 하여 행정구역에 있어서 변화를 거듭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 1912년에 간행한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를 통해서 시흥군, 안산군, 과천군의 행정구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⁹⁾

앞서 살펴본 표 3)의 「경기읍지」에서는 시흥군의 소속 면별 동리수가 6면 38리였는데, 1912년 작성된 「지방행정일람표」에서는 6면 22동리로 소속동리가 축소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군내면에서는 博山里가 제외되고 군내동이 새로이 나타나며, 동면에서는 文橋里, 蘭谷里, 書院里, 成道化里가 제외되었다. 남면은 廣火大里, 阿方里, 柳等里가 제외되고 駕鶴里가 새로이 나타났으며, 서면에서는 鞍峴里, 自警里, 下坪里, 加里大里, 栗日里, 巳省里가 제외되고 下安里가 새로이 나타났다. 상북면에서는 遠也牧里, 沙村里, 道也味里, 仙遊峯里가 제외되고 道林里가 새로이 나타났으며 하북면에서는 放鶴亭里, 牛臥陂里 등이 제외되었다.

시흥군의 행정구역은 축소되었으나 안산군은 표 3)에서 소속면이 군내면, 초산면, 잉화면, 마유면, 대월면, 와리면 등 6면이었는데, 표 6)을 보면 새로이 성곶면, 월곡면, 북방면이 추가되어 행정구역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소속 면수뿐만 아니라 각 면에 속한 동리수의 경우에도 이전시기보다 크게 증가하였다.³⁰⁾

결국 이전의 행정구역규모와 비교해서 시흥 북쪽지역의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안산군의 행정구역이 추가됨으로써 남쪽으로는 행정규모가 확대되었다.

표 7) 始興의 各 面別 洞里(1913년 이후)

始興郡	北 面	永登浦里·新吉里·番大方里·楊坪里·堂山里·道林里·九老里·鷺梁津里·本洞里·黑石里·銅雀里
	東 面	上道里·新林里·奉天里·加里峯里·禿山里·始興里·安養里
	西 面	日直里·所下里·下安里·鐵山里·博達里·光明里·老溫寺里·駕鶴里
	新東面	牛眼里·良才里·瑞草里·蠶室里·盤浦里·方背里·舍堂里
	果川面	官門里·文原里·葛峴里·下里·莫溪里·汪岩里
	西二面	虎溪里·安養里·一洞里·二洞里·飛山里
	南 面	堂里·山本里·衿井里·富谷里
	秀岩面	花井里·瓦里·古棧里·月陂里·陵谷里·秀岩里·章上里·章下里·釜谷里·楊上里·聲浦里·鳥南里·牧甘里·物旺里·山峴里·下上里·廣石里·下中里·論谷里
	君子面	去毛里·仙府里·草芝里·元谷里·新吉里·元時里·木內里·成谷里·君子里·竹栗里·正往里·月串里·長谷里·長峴里

29) 이후 작성된 표는 『始興郡誌』(下)중 '시흥의 행정구역변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30) 『京畿誌』에서는 안산군의 소속 면의 명칭만 나오기 때문에 소속 洞里를 확인할 수 없으나, 高宗때 만들어진 安山郡地圖(奎章閣所藏 奎-10343)을 보면 소속 동리가 56개로 확인된다.

일제는 한일합방후 식민통치의 효율적 지배를 위하여 1913년 12월 29일에 總督府 官府 제111호 「道の位置・管理區域 및 府郡名稱・位置管轄區域」을 발표하여 다음해 3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표 7)은 총독부 관부 제111호에 의하여 작성된 시흥시의 행정구역 개편내용이다. 총독부 관부 제111호에 의하여 일정한 행정구역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道·府·郡의 관할행정구역의 명칭과 규모가 크게 개편되었으며, 전국의 행정구역을 13道 12府 220郡 2,518面 28,181里으로 구획하였다. 이 과정속에서 종래의 시흥군, 안산군, 과천군은 시흥군으로 통합되어 소속면수와 동리는 이전의 22면 162동리에서 9면 83리로 크게 축소되었다.

북면에는 이전 시흥군 하북면의 영등포(下方下串里·영등포리·重宗里 통합), 신길리(上方下串里·신길리 통합), 번대방리(번대방리·牛臥皮里 통합)와, 시흥군 상북면의 도림리(沙頓里·道也味里·遠之牧里 통합), 구노리(九老一里·九老二里 통합), 당산리(楊津里·당산리 통합), 양평리 이외에도 과천군 상북면의 일부였던 동작리(浦村里 통합)와 하북면의 일부였던 흑석리, 본동리(上加次山里·下加次山里·본동 통합), 노량진리(新村分里·옹점리·옹막리·고사리 통합)가 새로이 통합되었다.

동면은 이전 동면에 소속되어 있던 독산리(독산리·문교리 통합), 신림리(신림리·書院里·蘭谷里 통합), 상도리(상도리·成道化里 통합), 봉천리(봉천리·과천군 하북면 본동리 일부 통합), 가리봉리와 시흥군 군내면에 소속되었던 시흥리(군내동), 안양리가 통합되었다.

서면은 이전 서면에 소속되었던 일직리(일직리·自京里 통합), 소하리(소하리·가리대리 통합), 하안리(하안리·栗日里 통합), 철산리(巳省里·철산리 일부통합)와 시흥군 군내면의 박달리 그리고 시흥군 남면의 광명리(광명리·廣火大里 통합), 노온사리(노온사리·阿方里 통합), 가학리(가학리·老溫谷里·柳等里 통합)가 새로이 통합되었다.

과천면은 이전 과천면 군내면 소속이었던 관문리(관문동·內店洞 통합), 문원리(外居洞·文原洞·校洞 통합), 갈현리(갈현동·加日洞 통합), 하리, 막계리와 과천군 동면 소속이었던 주암리가 통합되었다.

서이면은 이전 과천군의 하서면과 상서면이 통합되었는데, 호계리(호계동·道陽里 통합), 안양리(안양리·後頭尾里·발사리·石薺里·薺內里 통합), 일동리(일동리·이동리 통합), 이동리(일동리·이동리 통합), 비산리(내비산리·외비산리 통합) 등이다.

남면은 이전 과천군의 남면이었던 당리(당리·용호동 통합), 산본리, 금정리(당정리·鳳城里 통합), 부곡리(부곡리·章干里 통합)가 통합되었다.

수암면은 이전 안산군 인화면 소속이었던 화정리(화정리·廣谷里 통합), 와리(와상리·와하리 통합), 고잔리, 월피리, 능곡리(능곡리·北谷里 통합)와 안산군 군내면 소속이었던 수암리(수암리·西亭里 통합), 장상리(장상리·東谷里 통합), 장하리, 부곡리(부곡리·新里 통합), 양상리(양상리·양하리 통합), 성포리(성포리·占星里 통합) 그리고 안산군 초산면 소속이었던 조남리(조남리·祭廳里 통합), 목감리(목감리·율포리 통합), 물왕리(상직리·물왕리 통합), 산현리(산현리·谷里 통합), 하상리(중직리·하상리 통합), 광석리(광석리·下下里 통합), 하중리, 논곡리가 통합되었다.

마지막으로 군자면은 이전 안산군 대명면에 소속되었던 거모리(去毛浦·石谷洞 통합), 선부리(선부동·達山里 통합)와 안산군 와리면에 소속되었던 초지리(초지동·元堂浦 통합), 원곡리(元上里·芽谷里 통합), 신길리(新角洞·般谷里·城內里·赤吉里 통합), 원시리(元下里·時雨洞 통합), 목내리(梨木洞·

II. 시흥시의 역사·지리적 변천

陵內里 통합), 성곡리(城頭里·茂谷洞 통합), 그리고 안산군 마유면 소속이었던 군자리(九井里·山北里 통합), 죽울리, 정왕리(정왕리·鳥耳里 통합), 월곶리(月東里·月西里 통합), 장곡리(장하리·장촌리·鷹谷里 통합), 장현리(鳥峴里·長上里 통합)가 통합되었다.

표 8) 始興의 各 面別 洞里(1942년)

始興郡	東 面	新林里·奉天里·加里峯里·禿山里·始興里·安養里
	西 面	日直里·所下里·下安里·鐵山里·博達里·光明里·老溫寺里·駕鶴里
	新東面	船浦里·新院里·牛眼里·良才里·瑞草里·蠶室里·盤浦里·方背里·舍堂里
	果川面	官門里·文原里·葛峴里·下里·莫溪里·汪岩里
	安養面	虎溪里·安養里·一洞里·二洞里·飛山里
	南 面	堂井里·堂里·山本里·衿井里·富谷里
	秀岩面	花井里·瓦里·古棧里·月陂里·陵谷里·秀岩里·章上里·章下里·釜谷里·楊上里·聲浦里·鳥南里·牧甘里·物旺里·山峴里·下上里·廣石里·下中里·論谷里
	君子面	去毛里·仙府里·草芝里·元谷里·新吉里·元時里·木內里·城谷里·君子里·竹栗里·正往里·月串里·長谷里·長峴里

표 8)은 1942년 조선지리학회가 편찬한 「朝鮮一覽」에서 시흥시의 행정구역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표 7)과 비교해 볼 때, 시흥시의 소속면에서 북면과 서이면이 없어지고 안양면이 새로이 나타난다. 먼저 시흥시의 소속면에서 북면이 없어진 것은 1936년 2월 14일에 공포된 부령 제 8호 「府郡의 名稱·位置·管轄區域改定」에 의해서 북면에 소속되었던 영등포리, 당산리, 양평리, 북면의 노량진리, 본동리, 흑석리, 동작리, 신길리, 상도리 그리고 신대방리와 도림리 일부지역이 京城府의 소속지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41년 10월 1일에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칭되었기 때문에 이전 표 7)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서이면이 없어지고 안양면이 새로이 나타난다.

표 9) 始興의 各 面別 洞里(1963년)

始興郡	西 面	日直里·所下里·下安里·鐵山里·光明里·老溫寺里·駕鶴里
	南 面	堂井里·堂里·山本里·衿井里·富谷里
	果川面	官門里·文原里·葛峴里·下里·莫溪里·汪岩里
	安養邑	新安養里·博達里·虎溪里·安養里·一洞里·二洞里·飛山里
	儀旺面	古川里·二里·三里·旺谷里·五全里·鶴儀里·內蓀里·清溪里·浦一里
	秀岩面	花井里·瓦里·古棧里·月陂里·陵谷里·秀岩里·章上里·章下里·釜谷里·楊上里·聲浦里·鳥南里·牧甘里·物旺里·山峴里·下上里·廣石里·下中里·論谷里
	君子面	去毛里·仙府里·草芝里·元谷里·新吉里·元時里·木內里·城谷里·君子里·竹栗里·正往里·月串里·長谷里·長峴里

표 9)는 1963년 1월 1일의 시흥군 행정구역을 표로 작성한 것이다. 앞선 표 8)과 비교해 보면 동면과 신동면이 시흥군의 소속행정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 서울특별시는 인구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행정구역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1962년 11월 21일에 「서울특별시·道·區의 管轄구역변경에 관한 法令」을 발표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시흥군 신동면의 잠실리·방배리·양재리·반포리·사당리·우안리·신원리·서초리와 동면의 신흥리, 독산리, 가리봉리, 신림리, 봉천리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편입되었다. 때문에 표 9)에서 이전 시흥시의 소속면이었던 신동면과 동면이 제외되어 있다.

그리고 표 9)를 보면, 박달리와 안양리가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소속면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1962년 11월 21일에 발표된 법률 제1175호「市郡管轄區域變更 및 面の廢置에 關한 法令」에 의해서 이전에 서면 소속 행정구역이었던 박달리와 동면 소속 행정구역이었던 안양리가 안양읍에 새로이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 법률에 의해서 화성군 일왕면 일부지역이 의왕면으로 개칭되어 시흥시에 속하게 되었다.

이후 계속적인 서울지역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서울 주변도시의 시흥격이 실행되었으며, 그 가운데 기존의 안양읍이 1973년 안양시로 승격됨으로써 시흥과 분리되었다. 대신에 富川郡의 소사읍이 부천시로 승격됨에 따라서 이전 부천군의 관할구역에서 蘇萊面³¹⁾이 시흥군으로 편입되었다.

60년대를 지나 70년대에 들어서 신도시 건설계획아래 1976년 시흥군의 군자면, 수암면 지역과 화성군 반월면의 일부지역에 반월도시개발지원사업소가 설치되었고, 1979년에는 출장소로 승격되어 1986년 1월 1일에는 안산시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978년에는 시흥군 과천면에 신도시계획이 수립되어 1979년 4월 28일에 과천지역지원사업소가 설치되고 1986년 1월 1일에는 과천시로 승격되어 시흥시와 분리되었다.

또한 1979년에는 시흥군 남면이 軍浦邑으로, 서면이 所下邑으로 승격되었으며, 1980년에는 의왕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군포읍은 1989년 군포시로 승격되었고, 소하읍도 1970년 설치되었던 광명출장소와 함께 1981년에는 광명시로 승격되었으며 의왕읍 역시 1989년 시로 승격하여 시흥시와 분리되었다.

이로써 시흥은 현재의 행정구역과 거의 동일한 소래, 군자, 수암 지역권을 형성하였으며, 1989년에는 비로소 市로 승격하였다. - 김현진

31) 소래 지역의 연혁을 살펴보면, 삼국시대에는 “栗津郡은 鎭縣이 셋이다……郡城縣은 본시 고구려 買忽縣인데, 경덕왕이 郡城으로 개명하였고, 지금의 仁州(慶原買忽라고도 하고 彌鄒라고도 한다)”(『三國史記』卷35, 雜誌 4, 地理 2, 新羅)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보듯이, 소래 지역은 삼국시대에 고구려의 매소홀현에 소속되었고, 통일신라시대에는 소성현 지역에 소속되었다.

고려시대에 들어와 삼국지대의 소래 지역은 행정적인 변화를 보이는데, “현종 9년에 樹州 관하에 소속되었으며, 숙종 때에 어머니 仁睿太后 李氏의 內鄉이라는 이유로 慶源郡으로 승격되었고 인종 때에 어머니 順德王后 李氏의 內향이라는 이유로 지금 명칭으로 고쳐서 知州事를 두었다. 공양왕 2년에 慶源府로 승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高麗史』卷 56, 雜誌 10, 仁州). 이후 “조선 太祖 원년 임신에 옛이름 仁州로 복구하였다가, 太宗 계사에 例에 의하여 仁川郡으로 고치”(『世宗實錄』卷148, 地理志, 仁川郡)는 행정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소래 지역은 조선시대까지 인천지역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여지도서』와 『경기읍지』를 통해서 인천 지역의 소속 행정면리를 살펴보면, 內面, 鳥洞面, 新峴面, 田反面, 黃等川面, 南村面, 遠又尔面, 多所面, 朱岸面, 梨浦面 등 10개의 면이 기록되어 있다. 소래읍은 그 가운데에서 황등천면, 전반면, 신현면 지역이다.

다음 표는 조선시대 소래 지역이었던 황등천면, 전반면, 신현면의 소속동리를 표로 작성한 것이다. (아래의 표는 『始興郡誌』(下)중에서 ‘시흥의 지명유래’를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이다.

Ⅱ. 시흥시의 역사·지리적 변천

황등천면	一里·二里·三里·四里, 五里·六里·七里 五里儉義里
전반면	四里·五里儉義里·二里梅着里·二里栗島·七里陵內洞·七里銀杏洞, 七里中洞·七里新興洞·三里道頭里·三里江倉里·一里陽支里·一里家垈洞·一里松內洞·二里長樂洞
신현면	大也洞·一倉洞, 古基洞, 二里·竹院, 芳谷里, 山井里·新川里·新村里 蛇川里·三里·局洞 浦洞

근대에 들어서 소래 지역은 1914년 府令 제 111호에 의해서 인천군 소속에서 부천군으로 소속행정구역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소래면으로 개칭된다. 이 때에 행정면리에 변화가 생겼는데, 황등천면의 桂壽里(오리·육리·칠리 합), 果林里(일리·이리·삼리 합), 전반면의 錦李里(사리·오리검의리·육리 합), 道倉里(삼리도두리·삼리강창리 합), 梅花里(이리매착리·이리울도 합), 茂芝里(칠리·칠리능내동·칠리은행동·칠리중동·칠리신흥동 합), 鞍峴里(일리양지리·일리가대동·일리송내동·이리장낙동), 신현면의 大也里(대야동), 米山里(창동·고기동·이리 합), 芳山里(죽원·방곡리·산정리), 新川里(신촌리·사천리 합), 銀杏里(삼리), 浦里(국동·포동 합) 등이다. 그리고 1973년 7월 1일에 법률 제 2597호에 의해서 이전 부천군의 관할구역에서 벗어나 시흥군으로 편입하게 되었다.

Ⅲ. 풍물의 역사적 기원과 성격

風物³²⁾은 농촌의 마을 주민들이 농경기에 일의 피로를 잊고 즐겁게 노동을 하기 위하여, 혹은 마을 행사에 서로의 단합과 경쟁을 과시하기 위하여 四物(징, 팽과리, 장구, 북)을 치면서 춤과 노래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풍물의 기원을 고대 농경제의와 관련지어 馬韓의 農耕祭儀, 夫餘의 迎鼓, 高句麗의 東盟, 그리고 濊의 舞天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³³⁾

가-1)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기며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의 춤은 수십 명이 모두 일어나서 뒤를 따라가며 땅을 밟고 구부렸다 치켜들었다 하면서 손과 발로 서로 장단을 맞추는데, 그 가락과 울동은 鐸舞와 흡사하다.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³⁴⁾

가-2) 臘月에 지내는 제천행사에는 크게 모여서 마시고 먹으며 노래하고 춤추는데, 그 이름을 영고라 한다……밤낮 없이 길에 사람이 다니며, 노래하기를 좋아하여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다.³⁵⁾

가-3) 武帝는 朝鮮을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현으로 만들어서 玄菟에 속하게 하였으며, 북과 管樂器와 樂工을 하사하였다……귀신, 사직, 영성에 제사지내기를 좋아하며,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내는 큰 모임이 있으니 그 이름을 동맹이라 한다.³⁶⁾

가-4)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³⁷⁾

가-1)~4)는 우리나라 고대 농경제의에 대한 자료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특히 가-1)의 내용을 풍물의 기원으로 주목하여 ‘馬韓起源說’이라 보고 있다. 그런데 가-1)~4)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금의 풍물 개념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있다.

먼저 풍물의 성격이 상당히 종교적이라는 것이다. 또 악기의 구성도 팽과리, 북, 장구, 징과 같이 완전

32) 風物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農樂이라는 용어로서 알려져 있다. 농악이라는 용어는 지역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경기도에서는 풍물, 걸궁, 걸립패 등으로, 강원도 지역에서는 풍물, 두레패, 걸립 등으로, 경상도 지역에서는 매구, 풋굿, 걸립 등으로,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풍장, 걸궁, 금고, 매구굿으로 불린다.(지춘상 외, 『남도민속학개설』, 태학사, 1998, p.417) 본문에서는 경기도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농악보다는 풍물을 사용하기로 하겠다.

33) 정병호, 『농악』(열화당, 1986) ; 지춘상 외, 앞의 책 ; 최덕원, 『남도민속고』(삼성출판사, 1990).

34) 『三國志』卷30, 魏書30, 東夷, 韓,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聚歌舞 飲酒晝夜無休 其舞 數十人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立大木 縣鈴鼓 事鬼神”.

35) 『後漢書』卷115, 東夷傳 第75, 夫餘, “以臘月祭天 大會連日 飲食歌舞 名曰迎鼓……行人無晝夜 好歌吟 音聲不絕”.

Ⅲ. 풍물의 역사적 기원과 성격

한 형태를 이루고 있지 않다. 아마도 우리나라 고대 농경제의에서 풍물의 기원을 찾는 기존의 연구들은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풍물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른 풍물의 변화과정에 주목하여 그 기원이 고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 같다.

그러나 풍물의 기원을 고대 농경제의로 볼 경우에, 문제는 우리나라 민속예술의 기원적인 것이 대부분 고대의 종교적인 의미와 공동체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때문에 다른 여타의 민속예술과 그 기원적인 면에서 구분이 어렵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풍물과 비슷한 모습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먼저 악기의 구성과 관련해서 팽과리, 징, 북, 장구 등 완전한 사물악기가 갖추어 지는 시기를 살펴보자.

나-1) 악기는 彈箏 하나, 掬箏 하나, 臥箏篴 하나, 豎箏篴 하나, 琵琶 하나, 五絃琴 하나, 義攄笛 하나, 笙 하나, 橫笛 하나, 簫 하나, 小篳篥 하나, 大篳篥 하나, 桃皮篳篥 하나, 腰鼓 하나, 齊鼓 하나, 檐鼓 하나, 唄 하나이다. 38)

나-2) 樂의 남은 것은 箏과 笛·桃皮篳篥·箏篴인데 樂器類가 많이 內地와 같다"고 하였으며, 『北史』에는 “鼓角·箏篴·箏·竿·篪·笛의 樂이 있다”고 하였다. 39)

나-3) 新羅의 음악은 三竹·三絃과 拍板·大鼓와 歌舞등이다. 40)

나-1)~3)의 자료는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사용한 악기를 보여준다. 먼저 나-1)에서 고구려때 사용된 악기를 보면, 대부분 현악기와 관악기로 이루어졌는데, 눈에 띄는 것은 타악기로 생각되는 腰鼓와 齊鼓, 그리고 檐鼓이다. 그러나 요고와 제고, 그리고 담고가 지금의 풍물악기 중에 타악기인 장고·북과 비슷한 종류의 악기였다 할지라도 팽과리나 징과 비슷한 악기는 찾을 수 없다.

나-2)는 백제에서 사용한 악기인데, 타악기로 생각되는 고각 이외에는 대부분이 관악기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나-3)에서 신라때 사용된 악기를 보면 3죽과 3현 그리고 박판과 대고가 있었다. 3죽은 관악기로서 대금, 중금, 소금을 말하며, 3현은 현악기로서 현금, 가야금, 비파를 말한다. 그리고 박판과 대고는 타악기로서 박판은 박자를 맞추는 나무쪽을 말하며 대고는 큰북을 의미한다. 신라에서 사용된 악기 역시 고구려·백제와 마찬가지로 북의 일종인 타악기만 보일 뿐, 장고와 팽과리 그리고 징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36) 『後漢書』, 卷115 東夷傳 第75, 高句麗. “武帝滅朝鮮 以高句麗爲縣 使屬玄 賜鼓吹伎人……好祠鬼神·社稷·零聖 以十月祭天大會 名曰 東盟”.

37) 『後漢書』, 卷115 東夷傳 第75, 減. “常用十月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

38) 『三國史記』, 卷32, 雜誌1, 樂, “樂用 彈箏一, 掬箏一, 臥箏篴一, 豎箏篴一, 琵琶一, 五絃一, 義攄笛一, 笙一, 橫笛一, 簫一, 小篳篥一, 大篳篥一, 桃皮篳篥一, 腰鼓一, 齊鼓一, 檐鼓一, 唄一”.

39) 『三國史記』, 卷32, 雜誌1, 樂, “樂之存者 箏·笛·桃皮篳篥·箏篴 樂器之屬 多同於內地 『北史』 云有鼓角·箏篴·箏·竿·篪·笛之樂”.

40) 『三國史記』, 卷32, 雜誌1, 樂, “新羅樂三竹三絃拍板大鼓……”.

Ⅲ. 풍물의 역사적 기원과 성격

다-1) 方響·洞簫·笛·필름·琵琶·牙箏·大箏·杖鼓·教坊鼓·拍……玄琴·琵琶·伽倻琴·大琴·杖鼓·牙拍·무애·舞鼓·奚琴·필름·中琴·小琴拍⁴¹⁾

다-2) 睿宗 9년 6월 초하루 갑진일에 安穩崇이 宋으로부터 돌아왔는데……(宋나라 徽宗은 필자) 안직송이 돌아가는 편에 新樂을 선사하였다……鐵方響……大鼓·杖鼓……⁴²⁾

다-3) (공민왕) 19년 5월에 成准得이 명나라로부터 돌아왔는데 明太祖가 다음과 같은 악기를 선물로 보냈다. 編鍾 16架 全·編磬 16가 전부·鍾架 1개 전부·磬架 1개 전부·笙 1개·簫 1개·琴 1개·瑟 1개·排簫 1개⁴³⁾

다-1)은 고려시대에 사용된 악기들이다. 그런데 악기 중 이전에 보이지 않던 장고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고려시대에는 장고가 이미 악기로써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고가 악기로써 사용된 시기는 다-2)에서 보이듯 고려 예종 때 안직송이 송으로부터 돌아올 때 송의 휘종이 선사한 것으로 나온다.

결국 이전 시기까지 보이지 않던 장고는 고려 예종 대에 들어서 악기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풍물악기 중에 북과 장고는 고려시대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징과 팽과리가 언제부터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다-3)은 공민왕 19년 5월에 成准得이 명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明太祖가 선사한 악기의 종류이다. 그런데 고려 공민왕대까지도 징과 팽과리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으며, 오늘날 풍물에서 사용하는 사물(팽과리, 징, 북, 장고)의 완전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라-1) 林八刺失里·崔康 등이 兵器를 바쳤으니, 갑옷이 11벌, 활이 2백 24개, 화살이 2천 6백 53개, 鐵頭具가 56개, 창이 98개, 칼이 67개, 角이 3개, 纛이 2개, 旗가 15개, 弓弦이 1백 8개, 螺鉢이 1개, 鍾이 1개였다.⁴⁴⁾

라-2) 期日 전 11일에 병조에서 啓聞하여 大閱을 청하고, 教旨를 받들어 마침내 將帥에게 명하여 군사를 檢閱하게 한다……表에 이르러 鉦을 치면 기병과 보병이 이에 그친다.⁴⁵⁾

그런데 자료 라-1)을 보면 조선초기에 명으로부터 수입한 軍品 중에 징과 팽과리의 前모습이라고 생각되는 鍾이 확인된다. 또 라-2)를 보면 매해 9월·10월에 도성 밖에서 행하던 군행렬 속에서 鉦이 확인되는데, 정이라는 것은 징을 말하는 것이다.

41) 『高麗史』卷71, 雜誌 25, 樂 2.

42) 『高麗史』卷70, 雜誌 24, 樂 1.

43) 『高麗史』卷70, 雜誌 24, 樂 1.

44) 『太宗實錄』卷3, 2年 5月 4日 丙戌.

45) 『世宗實錄』卷128, 五禮, 大閱儀.

결국 조선초기에 이르러야 문헌에서 징과 팽과리의 존재(팽과리는 오늘날에 사용되는 형태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악기의 구성 면에서 고려 후기~조선 초기에 오늘날의 풍물악기가 사용되었다 할지라도 풍물 악기의 사용은 국가가 주도한 종교적인 행사 혹은 군사적인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점은 관찬자료인 『高麗史』와 『朝鮮王朝實錄』에서 일반민들이 풍물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민간에서 행해진 풍속과 연중행사를 기록한 『東國歲時記』·『洌陽歲時記』, 그리고 『京都雜誌』에서도 그와 같은 기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3) 海陽君 尹熙平(捕盜大將)이 아뢰기를, “지나간 성묘조의 을사·병오년 간에 도성의 안팎에 역시 불을 질러 소란을 피운 변이 있었으나 마을 안의 사람들이 물을 저축하여 두었다가 불을 끄곤 하였으며, 또 다섯 집을 한 統으로 만들어서 서로 돌아가며 교대로 風物을 치면서 순찰하게 하였으므로 좀도둑들이 스스로 두려움을 알고 그치게 되어 閭閻의 잔악한 백성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46)

라-3)의 자료를 보면, 마을의 치안을 위해서 일반민들이 作統을 조직해 풍물을 치면서 순찰을 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물론 자료에 보이는 풍물이 팽과리, 북, 장고, 징을 모두 포함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적어도 조선 후기 이전까지 풍물악기는 대중적으로 보급되지 못한 것 같고 대중적으로 보급되어 농촌에서 사용된 것은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인 것 같다.

풍물의 기능과 성격은 演戲의 목적에 따른 풍물의 기원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農事安宅祈願의 성격, 軍樂의 성격, 佛教의 성격 등으로 나뉘어 진다.

먼저, 농사안택기원은 농작물의 풍작을 빌거나 한해의 수확물에 대해서 農耕神에게 감사하는 농경의례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농사안택기원과 관련된 풍물은 시기적으로 정월보름, 칠월 伯仲을 전후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오늘날 풍물에서 농사안택적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이 ‘지신밟기’이다. 지신밟기는 ‘지신밟기’라고 쓴 기를 세우고 뒤에서 풍물을 울리며 풍물대 뒤에 가장 분장한 행렬이 따른다. 지신을 밟으면 악귀를 물리쳐 주인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가족의 수명과 건강을 지켜주며 풍년이 들게 해준다고 전한다. 풍물에 참가한 일행을 맞이한 집주인은 술상을 차려 대접하고 금전·곡식으로 사례하는데, 이렇게 모은 금품은 마을의 공동사업에 쓴다.

그리고 농촌에서 주민들이 농사일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번기에 풍물을 이용하기도 하였

46) 『中宗實錄』 卷89, 33年 12月 14日 癸丑.

기 때문에 모내기굿, 두렛굿이라 칭하였다. 또한 토착신앙과 결부되어 재해나 질병 등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구복을 기원하는 마을종교행사에 풍물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풍물의 다른 이름으로 당굿, 샘굿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軍樂의 성격이다. 우리나라 풍물에서 軍樂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三峰集」에 나오는 「金鼓旗麾總讚」의 내용이다.

마) 양군이 서로 싸우면 먼지와 연기가 하늘을 가린다
숨을 쉬는 사이에 변화가 수없이 생긴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
무엇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 金鼓와 旗麾가 있다.
전진할 때는 북을 울리고 물러날 때는 쇠를 친다
麾로 지시하고 角으로 경계하여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모은다…… 47)

마)는 군사훈련에서 나타나는 진법의 내용이다. 그런데 진법의 내용중 ‘金鼓’라는 명칭이 보인다. 금고라는 명칭에서 金은 大金(징)과 小金(뿡과리)을 이르는 말이며, 鼓는 북을 의미한다.

결국 풍물이 군사훈련 중 진법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것이며, 풍물을 사용한 이유는 자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풍물놀이에서 군악적 성격은 오방진(동·서·남·북·중앙)으로 진행되는 진풀이와 깃발의 사용에서 나타나며, 전라도에서는 풍물의 다른 말로 金鼓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⁴⁸⁾

마지막으로 불교적 요소이다. 풍물에서 불교적 요소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승려들의 乞粒이다. 걸립은 사찰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승려들이 풍물을 치면서 민간에서 쌀이나 돈을 모금하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불교가 쇠퇴하면서 化主僧 이하 수십 명의 승려들이 단체를 이루어 머리에 고깔을 쓰고 북, 뿡과리, 징, 장고, 등의 악기를 사용하면서 민가를 巡訪하여 乞粒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⁴⁹⁾

『朝鮮王朝實錄』에 승려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불경을 외우는 내용이 보이는데, 물론 풍물을 사용한 모습이 함께 보이지 않으나 걸립의 형태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⁵⁰⁾ 불교적인 요소인 걸립은 후에 풍물에 영향을 줘서 마을의 공금을 모금하기 위하여 풍물패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풍물놀이에서 불교적 성격이 남아 있는 것이 풍물복장에서 고깔의 사용과 무동의 등장 그리고 나비춤이며, 경기도와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일부에서는 풍물의 다른 말로 ‘걸립굿’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47) 「三峰集」第7卷, 「金鼓旗麾總讚」, “兩軍相接 煙塵漲天 呼吸之間 機變位千 左右前進……何以整之 金鼓旗麾 進之以鼓 退之以金 麾指角警 萬夫一心……”.

48) 지춘상 외, 앞의 책 417쪽.

49) 俞玉在, 「韓國農樂의 地域의 特性에 관한 考察」(『人文學研究』 제21집, 강원대, 1985), 79쪽.

50) 「世宗實錄」卷3, 1年, 3月 9日 癸丑.

Ⅲ. 풍물의 역사적 기원과 성격

이상으로 풍물의 역사적 기능과 성격을 농사안택기원적 성격과 군악적 성격 그리고 불교적 성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풍물의 역사적 기능, 성격과 관련된 세 경우를 보면, 공통적으로 풍물은 다양한 형태의 집단 속에서 존재하는 구성원의 공동체적 의식을 형성시키고, 그 집단의 문화와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지역민들은 기근과 질병 그리고 전쟁 등과 같은 시대적 위기 속에서 풍물을 매개로 상호간의 집단적 소속감을 형성시키고 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라는 일체감은 나이, 성별, 신분을 벗어나 해당지역사회의 새로운 문화창조에 기여하였다.

I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현황

시흥지역의 두레풍물놀이는 크게는 경기도 두레풍물놀이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다. 현존하는 경기도의 풍물놀이를 분류해 보면 그 지역을 크게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로 나눌 수는 있다. 상대적으로 두레풍물굿의 형태가 많이 남아 있는 곳이 경기 북부 지역이라 할 수 있고, 남사당 풍물굿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그 두레풍물놀이의 형태가 거의 쇠퇴한 곳이 남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특징이나 내용으로 나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북부나 남부나 전반적으로 두레굿 형태의 풍물놀이는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평택 농악이라는 풍물놀이 전모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걸출한 근거지가 있었고, 경기도 풍물놀이를 중심으로 기예적 발전을 꾀하면서도 보다 볼거리 중심으로 특성화시킨 남사당 풍물판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북부와는 다른 풍물놀이로 변별되는 듯이 보인다.

반면 경기북부 지역의 풍물놀이에서는 평택 농악과 같은 총체적인 풍물놀이적 성격을 갖는 풍물놀이가 없었다. 그래서 풍물놀이 역사의 부침과 더불어 나날이 쇠퇴하고 있었다. 그러나 두레풍물놀이적 성격을 갖지만 놀이나 농요 중심으로 가공되어 전반적인 풍물놀이적 절차·과정의 발전을 포기하고 민속놀이화 하였다.⁵¹⁾

이러한 특징은 월미두레풍물놀이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본 조사보고서에서는 시흥지역의 여러 두레풍물놀이 중에서 특히 월미마을의 두레풍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월미마을은 여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두레풍물놀이가 전승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월미마을의 두레풍물을 중심으로 하되, 여타지역의 조사도 병행하면서 좁게는 월미마을의 두레풍물의 현황을 살펴보고, 넓게는 시흥지역 두레풍물의 현황을 월미풍물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월미두레풍물놀이의 변천, 연행시기, 구성과 양상, 연행순서, 담당자와 후원자, 다른 집단놀이와 부락 차원의 행사로 나누어 월미두레풍물놀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월미두레풍물놀이의 변천

일반적으로 두레풍물놀이의 연행시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정월 보름을 전후한 시기와 칠월 백중을 전후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정월 보름의 두레풍물놀이는 동제, 용왕제, 위령제, 장승제 등과 연계하여 연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칠월 백중 무렵에는 이른바 호미씻이, 호미걸이, 두레파작, 백중놀이, 풀꾸매이 등으로 불리는 두레먹기와 함께 연행된다.

51) 김원호, 『경기도의 풍물굿』(경기문화재단, 2001).

I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현황

농경사회에서 농사력은 곧 생활력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후기에 널리 보급된 이앙법은 곧 농민의 생활풍습, 즉 세시풍속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앙법은 일시에 많은 노동력을 요하기 때문에 공동노동방식이 등장하였고, 이를 운영하기 위한 공동노동조직 즉 두레패를 탄생시켜 농민문화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더구나 추수를 마친 후 다음해 농사를 시작하기까지의 농한기 외에 김매기를 끝내고 추수를 기다리는 ‘짬’을 마련하여 일과 여가시간을 구분하였다.⁵²⁾

이와 같은 것은 시흥지역 두레풍물놀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흥지역 두레풍물놀이는 조사 결과 대체로 19세기 말에 전성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고종 2년(1865)에 경복궁 중건 때 부역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덜어주고자 전국 각처에서 농악대가 모였는데, 이때 시흥지역의 두레풍물패들도 참석하였다고 하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가-1) 대원군이 경복궁 재건할 때 연못을 파기 위해 마전과 월동, 산곡의 두레패를 추려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두레기를 하사 받았다고 한다.(월곶 윤용배씨 이야기, 자료 5)

가-2) 이 일대의 원래 이름인 벼슬고지에서 전래하던 풍물패가 그 규모와 위세 면에서 압도적인 시기가 있었다. 120년 전에, 이 지역의 이름난 삼쇠잡이 권진수라는 사람이 크게 활약했는데, 이 사람의 주도로 대원군의 경복궁 증축 때 하중의 농악대가 서울에 가서 공연을 했다.(하중리 권희원씨 이야기, 자료 2)

실제로 시흥지역의 두레풍물놀이 뿐만 아니라 이 시기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대원군의 경복궁 증축에 참여했던 두레패에는 ‘경복궁두레’라는 명칭이 붙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민속상으로 현지조사를 통하여 충청·경기지방에 넓게 일명 ‘경복궁두레’라는 명칭이 붙은 두레가 구전되고 있다. 경복궁 역사에 갔다왔기 때문에 선생, 혹은 형두레로 인정을 받는 두레들이다. 경복궁 역사에 징발될 정도로 두레가 강하였다는 증거도 되며, 아니면 국가적 대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향촌사회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경우일 것이다.

가령, 안성의 돌우물두레패(현 안성시 석정동 풍물패)가 고종 2년(1865) 대원군으로부터 ‘冠子旗’와 ‘上座두레’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한다. 다른 동네의 농기는 늘 돌우물두레에게 인사를 하여 상좌두레 대접을 해야 했으며, 대원군에게 받은 관자기를 1923년까지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940년대에 印貞植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경복궁두레는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⁵³⁾

위의 예처럼 경복궁 역사에 참여하였던 두레패들은 충청·경기 지방에 넓게 포진해 있었으며, 인근 부

52) 안태현, 『기세배 민속의 연구』(『문경 모산굴 기세배』, 문경새재박물관, 2000).

53) 주강현, 『한국의 두레』 1(집문당, 1997), 74쪽.

락에까지 그 명성을 날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은 시흥지역의 두레풍물놀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쉽게도 비록 이번 조사에서는 군자권의 월곳에서 하사 받았다는 두레기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위의 예처럼 시흥지역의 두레풍물놀이가 경복궁 중건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선 시흥지역의 두레풍물패가 참여할 수 있었던 데에는 거리상의 측면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충청도 지방에서까지 두레패를 뽑아 가는 마당에 시흥지역이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면담조사에서 밝히고 있듯이 인근 두레패들 중에서 시흥지역의 두레패가 ‘경복궁두레’에 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내려온 부락 두레패의 자긍심은 인근 마을과의 차이를 드러내는 수단이 됨과 동시에 한편으로 두레싸움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경복궁두레’는 아니지만 수암권의 월미의 경우에는 조선시대에 풍물로 궁중에까지 알려졌다고 한다. 원래 월미는 조선시대에는 안산군 초산면 상직리 또는 상직곶리라 했다가, 1914년 시흥군 수암면 물왕리로 개칭되었다. 1989년 시제가 실시되자 시흥시 물왕동으로 변경되었고, 행정상으로는 물왕 2통이다. 조선시대에는 ‘상직풍장’이라고 하여 경기지방은 물론 궁중에까지 널리 알려졌다고, 시흥지방에 남아 있는 풍물 가운데 가장 짜임새 있는 편제와 예술성을 지녔다⁵⁴⁾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월미 지역의 제보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타 지역의 제보자에게서도 비교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1) (어디가 농악이 제일 썩나요?) 월미가 제일 세고. 거멀도 세고 했는데. 월미가 제일 썩 거는 안 기성씨가 가르치고 다녔으니까. 월미에서 대회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소래권 이상진씨 이야기, 자료 4)

나-2) 근처에서는 월미 농악을 당할 동네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지금도 풍물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분들 대로 그쳐 가지고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수암권 박명현씨 이야기, 자료 7)

수암권의 하중동과 군자권의 월곳 역시 앞서 살핀 것처럼 경복궁 중축에 참가하였다고 하니, 19세기 말의 시흥지역의 두레풍물놀이는 인근 지역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9세기 말 활발하게 전승되었던 시흥지역의 두레풍물놀이는 20세기 초와 일제시대까지도 그 명맥을 면면히 이어 왔다. 그러나 1930년대 말에서부터 40년대 중반까지는 일제의 수탈과 탄압으로 인

54) 이승언, 「시흥의 생활문화와 자연유산」, 『시흥향토문화총서』 3, 시흥시, 1995), 207쪽.

해 잠시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1945년 해방 직후에 재건이 되어 성행했다. 그리고, 이승만 박사 탄신 기념일에 초대되어 간 적도 있다고 한다.

나-3)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 우리 집에 있어라. 이 동네에 붙잡아 둔 분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꿩과리를 잘 쳤어요. 그때부터 월미농악이 잘 쳤어요. 저도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 당시의 후원은 우리아버지가 하셨어요. 정미소도 여러 개 하셨으니까. 그 당시 성황될 때, 걸립을 꾸며요. 정월 초하루날부터 세배를 당기면서 절을 하고, 초사를 쏘 되면 집집마다 댕기는 거라. 조금 난 사람은 한 말, 말로. 수저하고 꽃아서 놀면서. 선보름을 댕기며 놀아요. 동네에서 제일 낫다는 집에 가서 마지막에 노는 거라. 깃대를 꽃아놓고 놓고, 하루종일 우리 집에서 놀았어요. (조사자 : 일제 때지요? 그러니까 이런 풍습이.) 그렇지요. 그것이 조금 성황이 되니까 군에서 알선을 받아서 대통령 탄신 기념일에 올라갔어요.(수암권 안장국씨 이 야기, 자료 1)

이러한 양상은 특별하게 월미두레풍물놀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끈끈하게 우리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었고,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 전까지 지켜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부분인 것이다.

시흥지역의 두레풍물놀이를 권역별로 나누어⁵⁵⁾ 변천사를 살펴보면 세 권역의 두레풍물놀이는 비슷한 변천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말과 일제시대, 그리고 해방 후, 6·25전쟁 이후, 그리고 1960·70년대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조사 지역에 따라 정확한 제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흥지역에 두레풍물놀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만은 없다.

특기할 만한 것은 19세기 말에 월미와 하중, 그리고 월곶의 두레풍물놀이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성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수암권의 월미는 19세기말에 전성기가 있었고, 해방 직후에 다시 활발하게 전승되어 왔다. 수암권의 하중과 군자권의 월곶의 경우 ‘경북궁두레’로 불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게다가 군자권의 월곶 지역은 일제 시대에도 면면하게 두레풍물놀이를 이어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렇게 해방 후부터 6·25 전쟁 전까지 성행했던 시흥지역 두레풍물놀이는 6·25 전쟁과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로 인해 성격상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의 계기를 맞게 된다.

일반적으로 두레는 이미 일제초기부터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소멸을 거듭해 왔다. 일제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탄압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통문화이자 유산인 두레풍물놀이는 소멸의 길을 걷기도 한다. 또, 1960년대에 일어났던 산업화·개발화는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변화를 초래했고, 이는 마을공동체의 약화를 가져와 두레의 존립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다.

55) 이번 조사에서는 현 시흥시를 수암권, 군자권, 소래권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런데, 소래권은 비교적 늦게 시흥군으로 편입되어 조사의 권역을 나누는데 타당화가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비록 행정상으로는 늦게 편입되었지만 군자권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실제로도 같은 시흥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조사의 신빙성을 기하기 위해 소래권의 제보는 수암권과 군자권의 제보를 보충하는 정도로 다루기로 한다.

I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현황

일반적으로 두레풍물놀이의 소멸시기는 일제 말기로부터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 소멸된 시기는 각각 다르다. 두레의 소멸원인⁵⁶⁾은 다음과 같이 몇 개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두레를 통한 민중들의 결집을 억제하려는 일제에 의해 사라졌다.
- ② 일제 말기 징병·징용제도로 일꾼이 사라졌다.
- ③ 일제 말기 악기 공출로 풍물이 사라졌다.
- ④ 일제 말기 공동작업반 운영으로 두레가 사라졌다.
- ⑤ 관제조직인 진흥회가 두레의 자율성을 악화시켰다.
- ⑥ 한국전쟁으로 마을이 파괴되고 인구이동, 공동체성 소멸, 인심 각박 등이 두레를 지탱시킬 수 없게 했다.
- ⑦ 60년대 이래 이농으로 인해 젊은이가 사라지면서 두레가 소멸했다.
- ⑧ 60년대, 특히 70년대 들어와 일반화된 제초제 사용으로 두레가 소멸했다.

이상이 일반적인 두레의 소멸원인이다. 두레가 소멸함으로 인해 자연히 두레풍물놀이 역시 소멸하게 된다. 물론, 1970년대 후반 사물놀이가 대중화됨으로 인해 풍물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두레풍물놀이의 초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은 없어졌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월미두레풍물놀이 역시 위의 소멸사유에서 특별하게 벗어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체로 ③, ⑥, ⑦, ⑧의 이유로 소멸의 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1)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진 지가 6·25 사변 나고 1·4 후퇴해서 전부 가고 보니까 전부 쇠퇴되고 없어졌는데(수암권 안장국씨 이야기, 자료 1)

다-2) 그제 사변 수복하고 와서 조금씩 시작을 해서 그때가 1957년 경에는 성했어. 했다가 1965·6년에는 사라지더라고. 전에 농악을 하던 분의 후계자들이 없는 거야. 이농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농을 시작하면서 젊은 사람들, 즉 후계자가 없는 거야. 그때부터 70년대 접어들면서 없어졌지. 모내려 떠날 적에 막 팽과리 치고, 모내고, 또 쉴 참에 뿌드리는 거야. 또 농악을 하면서 집으로 가는 거야. 67·8년도까지는 가끔 있었는데 없어졌지. 1970년대에는 거의 없어졌어(소래권 정연한씨 이야기, 자료 6)

56) 주강현, 앞의 책, 291쪽.

이처럼 조선 말기에 성행했던 월미두레풍물놀이는 일제시대에도 그 명맥을 잃지 않고 지켜왔다.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았던 월미두레풍물놀이는 해방 이후 다시 한 번 전승의 중흥을 맞게 되나, 한국전쟁으로 인해 그 전승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 그리고 산업화와 기계화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은 결국 이농과 농경방법의 변화를 가져와 월미두레풍물놀이가 단절되는 원인이 되었다.

2. 월미두레풍물놀이의 연행시기와 장소

일반적으로 두레풍물놀이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월대보름을 중심으로 한 벽사진경의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체로 정월 초사흘에서 보름까지 농악을 꾸며 걸립을 하면서 놀았다. 한편, 10월 상달에 당제를 지낼 때도 당제 이후에 마을에서 두레풍물놀이를 하며 놀기도 하였다.

둘째, 모내고 김매는 과정에서는 언제나 두레를 짜고 풍장을 올렸다. 음력 5월부터 논에서 김매기 시작하면서 두레 행사가 시작된다. 이때에는 두레기를 쫓고 논에서 일을 하면서 풍물놀이도 열기를 더해간다. 아침에 일을 하러 가면서 한 번 놀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쉴 때, 혹은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주로 놀았고, 두레파작(호미씻이, 호미걸이)을 하는 날은 부락이 모두 모여서 소머리국밥을 끓여놓고 호궐하며 마을 사람들이 하루종일 놀았다.

이처럼 월미두레풍물놀이는 대부분의 경우 정월 대보름을 중심으로 한 시기, 그리고 김매기할 때, 백중 등에 행해졌다. 군자권의 월곶에서는 추석이나 단오 등에도 풍물굿을 하며 놀았다고 한다.

시흥지역 두레풍물놀이의 연행시기와 장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역	지역	연행시기	연행장소
수암권	월미	정월대보름, 백중	논, 마당
	하중	정월대보름, 백중	논, 마당, 공터
	나분들	정월대보름, 백중, 단오, 추석	논, 마당
군자권	월곶	추석, 단오, 정월대보름	논, 공터
	장현동	김매 때, 백중, 정월대보름	논, 마을 공터
소래권	매화동	정월대보름, 백중	논, 마당, 공터
	신천동	단오, 추석, 정월대보름	큰 공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시흥지역의 두레풍물놀이는 주로 정월 대보름, 백중을 중심으로 해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두레풍물놀이가 농경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당연한 것이다.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월미두레풍물놀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두레풍물놀이는 우선 농사일을 시작하러 나가면서 흥을 돋구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일의 중간중간 휴식을 겸하면서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 풍물놀이를 연행하였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루의 고된 노동을 풍물놀이를 통해 씻어버리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경우 연행의 장소는 당연히 일터인 논이 될 것이다.

또 추석, 단오, 백중, 정월대보름처럼 명절 때마다 풍물놀이를 연행했음도 알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마을의 공터나 부락의 큰 마당, 또는 당산제를 지내는 곳이 연행의 장소가 되기도 했다.

I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현황

주목할 것은 공통적으로 두레파작(호미씻이, 호미걸이) 때 행해졌다는 사실이다. 특이하게도 월미두레풍물놀이에서는 두레파작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 또, 시흥지역의 두레풍물놀이에서도 두레파작이라는 용어가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 두레파작은 호미걸이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호미걸이는 호미를 씻어서 건다는 뜻을 담고 있다. 호미씻이 역시 김매기를 통해 더러워진 호미를 씻어서 잘 말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두레파작의 경우도 두레를 파작한다는 의미 정도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두레파작은 한 부락 안에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었고, 군자권의 월곶처럼 동네 갯마당에서 세 부락이 모여서 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월미두레풍물놀이에서는 걸립을 다니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걸립은 사찰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승려들이 풍물을 치면서 민간에서 쌀이나 돈을 모금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불교가 쇠퇴하면서 화주승 이하 수십 명의 승려들이 단체를 이루어 머리에 고깔을 쓰고 북, 팽과리, 징, 장고 등의 악기를 사용하면서 민가를 순방하여 걸립하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걸립은 비단 월미두레풍물놀이만의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라-1) 논두렁에서 풍물을 할 때는 논길을 따라 소박하게 했지만, 동네 마당에 와서 할 때는 풍물을 노는 집에 꽃아놓고 시작했지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풍물을 쳤는데, 넉넉한 집에서는 음식과 쌀 한 말 씩을 내놓기도 했고, 풍물패는 그 쌀 위에 기를 꽃아놓고 놀았습니다.(하중 지역, 자료 2)

라-2) 마을에 물건이 필요하거나 악기가 깨졌을 경우, 다리를 놓을 때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풍물을 치면서 걸립을 했어요. 정월 초사흘부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풍물을 놀았는데, 집집마다 술과 음식을 내어놓고 여유 있는 집에서는 쌀을 한 말씩 내놓았지요. 이를 다 모으면 네 가마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으로 악기를 사거나 마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했습니다.(하중 지역, 자료 2)

라-3) 정월 초에서 보름 정도 한가할 때에 쌀을 빌려 음식을 장만해서 이 집, 저 집을 돌면서 풍물을 했다. 풍물을 할 때는 부락마다 자기네 농기를 들고 나왔어요.(광석동 이익수씨 이야기, 자료 3)

라-4) 그 당시 성황될 때, 건립을 꾸며요. 정월 초하루 날부터 세배를 당기면서 절을 하고, 초사흘쯤 되면 집집마다 탕기는거라. 조금 난 사람은 한 말, 말로 수저하고 꽃아서 놀면서, 선보름을 탕기며 놀아요. 동네에서 제일 낫대는 집에 가서 마지막에 노는 거라. 깃대를 꽃아놓고 놓고, 하루종일 우리집에서 놀았어요.

위의 조사에서 보이는 것처럼 시흥지역의 두레풍물놀이에서도 걸립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걸립은 주로 마을의 공동목적을 위한 것이 주가 된다. 마을에 필요한 물건을 장만하거나, 아니면 풍물에 필요한 악기를 장만한다던가 하는 식이다. 또는 마을의 다리를 놓는 등 대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풍물을 치면서 걸립을 하기도 하였다.

정월 초사흘부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풍물을 놀았다. 두레풍물패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풍물을 치고 또는 고사소리(덕담)을 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집집마다 술과 음식을 내어놓고 여유 있는 집에서는 쌀을 한 말씩 내놓았다. 이를 다 모아서 악기를 사거나 마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였다.

3.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과 양상

1) 농기

두레에는 반드시 농기가 있었다. 지역에 따라 두레기, 낭기, 용당기, 큰기, 대기, 농상기 등으로 불리는 농기는 마을의 위세, 농민의 자부심과 단결, 두레의 과시 등을 나타내는 표상이었다. 두레의 크기는 대나무의 장목이 최소 5m를 넘어 7~8m에 달할 정도로 컸으며, 기를 움직일 때는 마을에서 제일 힘센 사람이 받쳐들고, 그 뒤를 2인이나 3인의 깃대잡이가 따랐다. 농기에는 ‘農者天下之大本’이나 ‘神農遺業’이라는 글을 쓰거나, 마을 이름이나 연도를 표시하거나 용의 그림을 그린 것이 대부분이며, 깃폭 둘레에는 지네발이라고 하여 너풀거리는 천 장식을 달았다. 농기에는 여러 장식을 달았는데 새를 상징하는 평장목을 꽃아 둠으로써 하늘과 땅을 매개하는 장대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⁵⁷⁾

농기는 매우 존엄하여 말 탄 양반도 앞을 지날 때는 누구나 내려야 했다. 마을 간에 농기를 뺏으려고 두레싸움이 크게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만큼 두레기는 농민들의 자긍심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기를 보관하는 데도 유의했다. 반드시 기를 떼어 내서 별도로 보관하였으며 장대는 큰 집 사랑의 처마 밑에 걸어 두었다. 농기는 신성하여 당산굿을 칠 때, 으레 농기가 신을 받았다. 전염병이 돌 때, 마을 입구에 농기를 세워 놓는 풍습은 바로 농기의 영적 능력을 믿었던 탓이다.⁵⁸⁾

농기의 형태는 대체로 비슷하다. 다만 크기는 부락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다. 농기(두레기)는 하얀 바탕 천에 파랑·검정의 지네발이 달렸으며, 꼬리가 달렸다. 또 제작년도와 부락이름이 표시되기도 하였다. 농기를 혼자서 잡는 경우도 있었고, 끈을 매달아 양쪽에서 잡는 경우도 있었다.

· 시흥지역 두레풍물놀이의 농기 형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역	지역	형태	크기	내용
수암권	월미	평장목, 지네발		
	하중	평장목, 지네발		농자천하지대본
	나분들	평장목, 지네발		
군자권	월곶	평장목, 지네발	두레기에 줄을 매달아 양쪽에서 함께 삼각형 모양으로 잡고 다님	농자천하지대본
	장현동	평장목, 지네발 2개		농자천하지대본, 시흥군 군자면 장현리 새재
소래권	매화동	평장목, 지네발(파랑·검정), 꼬리	보통	농자천하지대본 제작년도, 부락이름
	신천동	평장목, 지네발		농자천하지대본

57) 김영민, 「전주·익산 지방 ‘기놀이’의 유래 고찰」(『문화연구』 제6집, 전주우석대, 2002).

58) 주강현, 앞의 책, 267~268쪽.

I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현황

표에서 빈 칸으로 표시된 것은 구체적인 형태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시흥지역 두레풍물놀이의 농기는 모두 후대의 모습을 띠고 있다. ‘神農遺業’이나 용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비교적 고품에 속한다고 한다. 농기에 쓰여진 마을명과 연도는 두레의 서열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마-1) (조사자 : 깃발이 어떤 형태였나요?) 지네발을 달았었지요. 예전에 쓰던 것이 있었는데, 보존을 잘 못해서 흐늘흐늘해서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진이라도 찍어두었으면 좋았을 텐데.(안장국씨 이야기, 자료 1)

마-2) 두레 깃발이 컸는데, 여기에다가 ‘농자천하지대본’이라 썼어요. 지네발 모양으로 장식이 달려 있었고, 꼭대기에는 꿩털이 달려있었지요.(하중 지역, 자료 2)

마-3) (조사자 : 농기의 형태는 어땠나요?) 기(두레기)는 너무 크면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많이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두레기가 꽤 커서 옆에서 사람들이 보충해서 잡아주었습니다. 놀러갈 때 가는 기가 따로 있고 농사 질 때 가는 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기는 바탕 하얀 데다가 가장자리는 파랑, 검정의 지네발이 달렸고, 꼬리를 해 놓고, 연꼬리처럼. 천으로. 지네발과 꼬리는 천으로 만듭니다. 맨 위에는 꿩지 털이 들어갑니다. 두레기에는 제작연도와 부락이름을 쓰고 다른 글귀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계속 썼어요. 비를 맞고 초라해지면 다시 만들었지요. 제작연도를 다시 쓸 때는 비를 맞고 찢어지면 다시 만들 때 씁니다.(이상진씨 이야기, 자료 4)

마-4) (조사자 : 농기의 형태나 내용은 어땠습니까? 다른 동네에 비해서) 두레기는 흰천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 쓰고 지네발을 달았는데, 줄을 펼 만큼 엄청 컸습니다. 우리 기에 비해 대화동 기는 짧았어요. 두레기에 줄을 매달아 양쪽에서 함께 삼각형 모양으로 잡고 붙잡아 다녔어요. 두레기 맨 위에는 꿩털을 달았지요.(월곶 지역, 자료 5)

마-5) (조사자 : 농기는 어떤 형태였나요?) 농기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쓰고, 그 옆에다 ‘시흥군 군자면 장현리 새재’이라고 마을 이름을 썼어. 맨 위에는 꿩털을 달았어. 우리 마을의 지네발은 2개였는데 지네발을 2개 달면 암늬, 3개 달면 수늬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우리 마을의 농기는 2개를 달아 암늬이라고 불렀지.(정완중 씨 이야기, 자료 8)

59) 조선시대의 군기. 진(陣)을 칠 때 동·서·남·북 및 중앙에 하나씩 세웠던 5개의 기(旗)로, 황신기(黃神旗)는 중앙에, 남신기(藍神旗)는 동방에, 백신기(白神旗)는 서방에, 홍신기(紅神旗)는 남방에, 흑신기(黑神旗)는 북방에 세웠다. 다섯 개의 기는 각기 색이 다른 바탕에 방위에 해당하는 신장(神將)의 화상과 운기(雲旗)를 그렸다. 크기는 5자 평방, 깃대의 길이는 16자이며, 영두(纓頭)·주락(珠絡) 및 장목이 있다.

이상은 시흥지역 두레풍물놀이의 농기에 대한 자료들이다. 거의 대부분 커다란 대나무에다가 위에는 팽털(팽장목)을 달고, 지네발을 단 형태였다. 내용은 ‘농자천하지대본’ 이라고 썼고, 두레기가 큰 경우에는 양 옆에서 함께 잡아주었다. 월미두레풍물놀이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하게도 소래권의 신천동에서는 오방기⁵⁹⁾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마-6) (깃발 같은 것은 어땠나요?) 있었지. 그리고 농기 뒤에 또 있었지. 좀 적었어. 기가 길고, 농기 뒤의 깃발은 흰색, 빨간색, 남색, 노란색의 울긋불긋 한 것이 더 있었어. 이 깃발에도 글자를 썼던 것 같은데 기억은 나지 않아. 기가 작지만 길었어.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글자가 쓰인 깃발은 다른 깃발과 넓이는 같지만 길이는 더 길었어.(정연한씨 이야기, 자료 6)

제보에 따르면 농기 뒤로 알록달록한 깃발들(흰색, 빨간색, 노란색 등)이 많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오방기로 생각된다.

군자권의 장현동에서는 농기의 지네발이 2개였다고 했다. 이는 다른 부락의 농기가 3개의 지네발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특이한 점이다. 그래서 다른 부락의 농기를 수놈, 장현동의 농기를 암놈이라고 불렀다.⁶⁰⁾ 이처럼 시흥지역 두레풍물놀이의 농기는 다른 지역의 농기와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월미두레풍물놀이의 농기 역시 이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2) 복색

한국의 농악수들이 쓰는 전립은 군복의 전립과 같은 기원을 갖는 것이고, 이것은 북방민족이 두루 쓰는 전립과 같은 근원에서 나온 것이다. 즉, 수모로 만든 모단에 긴 붉은 모제 상모를 단 것이다. 농악에서는 농악수들이 스스로 악기를 연주하고 춤추고 놀이를 행하기 때문에 양손이 매어 춤을 추는 데 지장이 있으므로 춤사위를 보하기 위하여 상모깃을 개발하게 되었고 상모깃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기 위하여 상모를 지제와 우제로 바꾸고 물채를 길게 하여 상모를 채상 부포상으로 분화시켜 상모깃을 크게 발전시킨 것⁶¹⁾이라고 한다.

두레풍물놀이의 복색은 처음에는 광목 또는 무명 바지저고리와 짚신 차림이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단순하고, 소박하며 보통 평상시의 저고리와 바지에 ‘띠’를 두르기도 하였다. 두레풍물놀이의 띠는 홍색, 청색, 황색의 세 가지를 사용했는데, 홍색과 청색의 띠는 ‘가름띠’라고 하여 좌우 어깨로부터 밑으로 비껴 두르고, 황색 띠는 ‘허리띠’라고 하여 그들을 받아 넣어서 허리에 동여매었다. 상쇠만이 좌우 어깨에 황색 띠를 하나 더 넣어서 지휘자임을 표시하였다.⁶²⁾ 머리에 쓰는 고깔은 대체로 비슷하다.

60) 이와 관련해서 충남 공주 탄천면 송학리 소라실 기세배는 흥미로운 대상이다. 이곳에서는 기세배가 마을의 장승제와 같이 진행되는데, 여기서의 기세배는 동·서 양 기가 서로 혼례를 치르는 의례다. 구체적인 진행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다른 곳의 기세배나 두레싸움이 주로 형-아우, 선생-제자 등의 수직적 관계를 문제삼는다면, 이곳의 기세배는 신랑-신부, 동-서와 같은 수평적 차원의 관계를 문제삼고 있다. 장현동의 지네발이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오락적인 차원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흥미로운 대상임에는 틀림없다.

61) 이보형, 「전립과 농악의 상모」(『한국민속학』 29, 한국민속학회, 1997).

62) 신미섭, 「두레농악에 대한 연구」(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49쪽.

바-1) (조사자 : 복식은 어때요?) 옷 입으면 가사만 매지. 지금 같지는 않았습시다. 처음에는 한 쪽으로만 매다가 개화된 다음에부터 양쪽으로 띠를 둘렀습시다.(안장국씨 이야기, 자료 1)

바-2) (조사자 : 복장은 어때요?) 흔히 풍물은 낮에 점심을 먹고 놀기 시작했어요. 혹은 농사일을 마치고 풍물을 놀기도 했습시다. 뭐 옷은 논일하는 작업복 그대로 입고 나갔지요. 전부 무명바지, 저고리를 입었습시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입는데. 뭐 대보를 때처럼 명절이나 이런 때는 복색을 제대로 갖춰 입었어요. 복색이라고 해 봐야 별 틀린 것도 없지만. 조끼는 다 입었고 띠를 매는 것은 한쪽, 양쪽으로도 둘 다 땀어요. 고깔이나 상모를 쓰고 하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나 상모를 썼습시다. 벽구쟁이는 반드시 상모를 썼어요.(하중 지역, 자료 2)

바-3) 고깔 쓰고, 띠 두르고. 옷에 띠는 노란, 빨간색입니다. 상쇠는 술이 크고 짧은 상모를 쓰고 휘휘 돌리다가 딱 서게 하고, 옆으로 돌리고 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는데, 상모가 서면 그것은 가락이 바뀐다는 신호예요. 그것을 보고 가락이 바뀌었어요. 상쇠가 그래서 어렵지요.(이상진씨 이야기, 자료 4)

이상은 조사를 통해 나타난 시흥지역 두레풍물놀이의 복색이다. 위에서 인용한 지역말고도 다른 지역 역시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고깔을 쓰고, 적삼을 입었다. 상쇠는 술이 크고 짧은 상모를 썼다. 평상시에 입는 그대로 입고 연행했고, 정월대보름에도 깨끗이 세탁을 해서 입을 뿐 특별한 복식은 없었다. 하중동에서는 대보름 때 풍물놀이를 할 때는 복색을 제대로 갖추어 입는다고 했다. 조끼는 다 입었고 띠를 매는 것은 한쪽, 양쪽으로도 둘 다 땀다. 고깔이나 상모를 쓰고 하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나 상모를 썼다. 벽구쟁이는 반드시 상모를 썼다. 월미두레풍물놀이에서는 처음에 한쪽만 띠를 두르다가 나중에 양쪽으로 둘렀음을 알 수 있다.

3) 잡색패

잡색에는 대포수, 양반, 중, 창부, 각시, 무동 등이 있다. 대포수는 포수의 복장을 하고 나무 총(조총, 화승총)을 든다. 등에는 망태를 짊어지고 썰렁이나 토끼가죽 등을 단다. 이것은 무당들이 포수가 되어 활을 쏘아 잡귀를 쫓고 액땀을 하듯 총을 쏘아 액을 쫓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에 따라서 총을 들지 않고 채찍을 드는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무격의 지휘봉 같은 역할로 볼 수 있다.

양반은 양반사회의 허세를 드러내는 인물이다. 당제나 동제라 불리는 마을굿을 할 때 대개 유교식의 독축헌잔 즉, 축문을 읽고 술을 올리는 의식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잡색 중에 양반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유교적인 종교행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 복을 빌어주는 대리 신앙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다.

I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현황

중은 타락한 중의 모습을 풍자하기 위한 차원에서부터 일종의 종교 대리자로서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을 외우면서 복을 빌어주고 판의 액을 쫓는 종교적 기능의 차원까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창부는 신의 대리자로서 기능하며 창부가 굿판에 있는 것은 굿판이 신명나게 놀아져야 하며 그러한 놀이가 오신의 과정, 즉 신을 즐겁게 하는 과정이 되고 그럼으로써 그 참여한 사람들이 신덕을 입게 하는 상징이다.

각시는 무당의 역할이 굿판으로 들어온 예로 생각된다. 잡신을 쫓고 신을 맞아 들이는 무속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무동은 아이의 성장의례를 통하여 생산력을 얻고자 하는 주술에 기인한 것이다. 무동은 굿판에서 신적인 주술의 매체로서 역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잡색들은 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지금은 그 굿판을 흥겹게 하는 역할을 한다. 관중들과 연희자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고 가면서 연희자에게는 힘을 북돋아 주고 관중들에게는 폭소와 익살을 통해 굿판을 재미있게 느끼게 하며 사람들이 굿판에 참여하도록 손을 잡고 이끈다. 그리하여 굿판이 춤판이 되고 놀이판이 되도록 열심히 뛰어다닌 것이다. 풍물판의 흥겨움은 바로 잡색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잡색은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호랑이, 곰, 소, 거북이와 같은 동물 가장의 잡색도 있고, 할미광대, 비리쇠, 방울쇠, 참봉, 홍적삼, 농구, 화농 등의 잡색도 있다.⁶³⁾

시흥지역 두레풍물놀이의 잡색은 다음과 같다.

권역	지역	잡색의 종류
수암권	월미	포수, 양반
	하중	무동
	나분들	×
군자권	월곶	×
	장현동	×
소래권	매화동	노인, 양반, 꼬추, 무동
	신천동	꼬추

시흥지역 두레풍물놀이의 경우 잡색이 많지는 않다. 노인(양반)과 꼬추가 있어서 한복을 입고 꼬추춤을 추면서 관중을 놀리기도 하면서 대중을 웃기기도 하였다고 한다.

63) 김원호, 앞의 책, 354쪽.

I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현황

사-1) (조사자 : 두레풍물할 때 무동도 있었나요?) 두레 놀이를 할 때 무동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6.25 사변 때까지 무동을 타기도 했습니다.(하중 지역, 자료 2)

사-2) (조사자 : 뒤에 다른 것은 없었나요?) 놀이할 때는 있었는데, 일 할 때는 안 해요. 뒤에는 노인과 양반이 있었는데, 대중을 웃기기 위해서 꺾추도 있었습니다. 유명하게 하는 양반이 있었는데, 꺾추춤을 추면서 우습게 땡기면서, 그런데 배웠다기보다는 어디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흉내내는 정도였어요.(이상진씨 이야기, 자료 4)

사-3) (조사자 : 뒤에 농악대 끄트머리에 잡색패는 없었나요?) 그것도 올라갈 제 그것도 다 갖추어 가지고 갔어요. 갓도 쓰고, 탈도 쓰고, 다양하지는 않아도 땡기꼬리도 하고, 고깔 맨들어서 쓰기도 하고, 가면도 맨들어서 쓰고.(박명현 씨 이야기, 자료 7)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시흥지역 두레풍물놀이에서는 전반적으로 잡색패가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은 시대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지역의 잡색패는 아주 전문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될 수 있으면 난잡하게 하는 것을 삼갔다. 중도 존중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배역에 없었다고 한다. 한편, 월미두레풍물놀이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포수가 등장하기도 했다.

4. 월미두레풍물놀이의 연행순서와 가락

두레풍물놀이에는 팽과리2, 징1, 북1, 소고6, 호적재비, 제금, 바라 등이 있었다. 팽과리에는 상쇠, 부쇠가 있고 징잡이, 장구잡이, 방구잡이, 벽구잡이가 있다. 당시에 쓰였던 가락으로는 길가락, 자진가락, 춤가락이 있었다고 한다. 자진가락은 도드래기 가락이고, 춤가락은 세마치장단이라고 하였다.

현지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장단의 채보는 다음과 같다.

마당 -> 우물굿(고사) -> 부엌 -> 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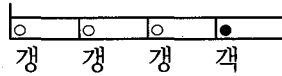
걸림시 말과 주인의 주발과 수저 실을 꽃아 놓고 밖에서 논다.

난타(모든 치배들이 모여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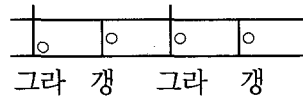
I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현황

자존가락(휘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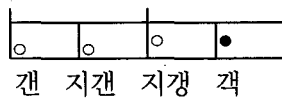
〈내는가락〉



〈모는가락〉



〈노는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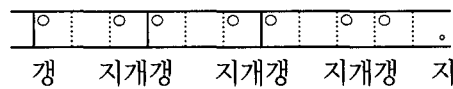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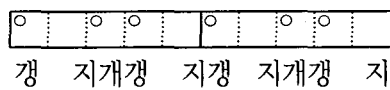


잘도잘도 봤다. (지나가는 처녀를 잘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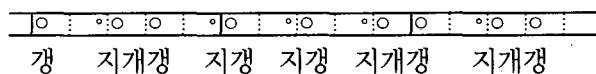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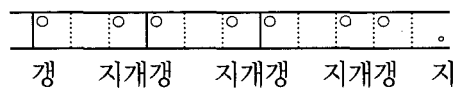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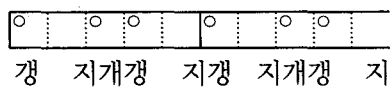


명창도 봤다. (그 사람의 명을 봤다)

길가락(맨 뒤 가락을 잡아서 친다) - 길을 걸어 갈 때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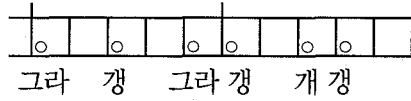


자긴길가락(맨 뒤 가락을 달아서 친다) - 명석을 말 때 진다



I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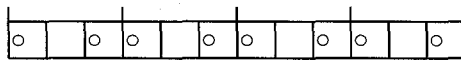
도드리가락(육채)



그라 갱 그라 갱 개 갱

무등패가락(삼채, 자춘모리)

〈넘기는 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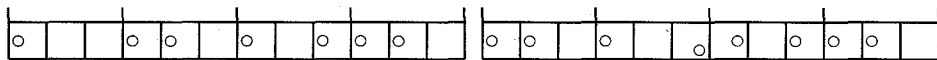


갠 지개 갠 지개 갠 지개 갠 지개

〈기본 가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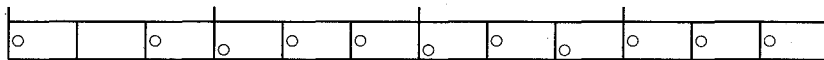


갠 지개 갠 지개 갠 지개 갠 지개 갠 지개 갠 지개 갠 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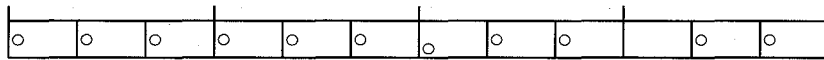


갠 지개 갠 지개 갠 지개 갠 지개 갠 지개 갠 지개 갠 지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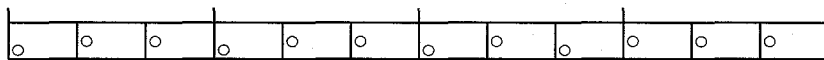
잔지패가락(굿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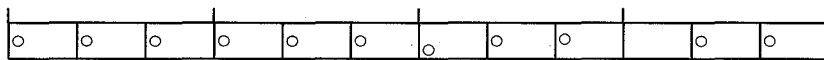
갱 갱 갱 그라 갱 갱 그라 갱 지개 갱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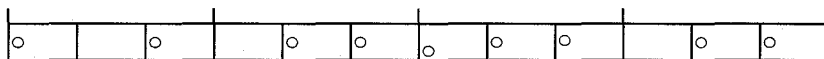
갱 개 갱 개 개 갱 갱 그라 갱 웃 갱 개



갱 그라 갱 갱 그라 갱 갱 그라 갱 지개 갱 개



갱 개 갱 개 개 갱 갱 그라 갱 웃 갱 개



갱 갱 갱 갱 갱 그라 갱 웃 갱 개

물이야 물이야 좋~은 물이야

뚫어라 뚫어라 물구멍을 뚫어라

5. 월미두레풍물놀이의 두레파작

두레파작은 호미걸이, 또는 호미씻이라고도 하는데, 마지막 김을 매고난 뒤 금년 농사가 끝났으니 두레를 파작하고 내년엔 대비하여 호미를 씻어 걸어둔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한다. 두레파작은 지방에 따라 난알이, 공굴(共屈), 공회(公會), 백중놀이, 두레놀이, 머슴놀이, 술매기, 호미걸이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데, 대체로 음력 7월 칠석이나 7월 15일의 백중을 전후해서 열리는 것이 보통이다. 이 두레파작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과 같이 피땀 흘려 가꾼 농사가 순조로운 기후 속에 잘 결실하여 풍년이 들게 해 달라는 기원의 의미와 여름 내내 농사를 짓느라 피로해진 몸을 쉬며 노는 잔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두레파작 행사는 농악을 중심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진행되는데, 이때의 농악은 두레의 공동과정에서의 농악보다 확대된 것으로서 여러 두레가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상례였다. 따라서 이 두레파작 행사는 두레꾼들만의 놀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한데 어울려 음식을 먹고 즐기는 잔치의 성격을 띤 것이다. 두레파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대략 1920년대까지 행해졌다고 한다.⁶⁴⁾

시흥지역 두레풍물놀이의 권역별 두레파작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권역	지역	명칭	시기	장소	내용
수암권	월미	두레파작	백중		소머리국밥을 끓여서 동네사람들이 나누어 먹음
	하중	두레파작	마을 전체의 김매기가 끝났을 때	매봉산 월대봉	마을의 영좌 집에서 밤새워 놀
	나분들	두레파작			
군자권	월곶	호미걸이	8월 추석, 단오날	갯마당	고깔을 쓰고, 중의적삼을 입고 띠를 둘름
	장현동	두레파작	농사일을 다 끝내고 한가할 때	재너머	돼지고기를 삶고, 막걸리, 소주, 국수 정도를 해 먹음
소래권	매화동	호미씻이	백중, 수입이 많을 때에 함		술을 만들어 나누어 먹음
	신천동	두레파작			

우선 명칭은 크게 ‘호미걸이’, ‘호미씻이’, ‘두레파작’ 등으로 나타난다. ‘호미걸이’나 ‘호미씻이’는 호미를 씻어서 걸어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64) 김원호, 앞의 책, 269~272쪽.

‘두레파작’은 한 해의 두레가 끝났다는 의미 정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중에서 시흥지역 두레풍물놀이에서는 월미, 하중, 나분들, 장현동, 신천동 등에서 ‘두레파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월곶에서 ‘호미걸이’, 매화동에서 ‘호미씻이’라고 부르고 있다. 같은 경기도 지방에서 대부분 ‘호미걸이’라고 부르고 있는 점에 비해 월미두레풍물놀이에서 쓰이는 ‘두레파작’이라는 용어는 분명히 독특한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여진다.

기존의 연구⁶⁵⁾에 따르면 지역적으로 볼 때, 전북지역의 술땀이, 전남지역의 장원내기, 경상도의 풋굿, 경기도의 호미걸이가 두드러진다. 충청도는 명칭이 극히 애매하여 두레먹기 정도로만 쓰여졌다. 충청도에서는 일부 지역을 빼놓고서는 호미걸이나 풋굿, 술땀이 따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호미걸이는 농기의 버텨줄에 주렁주렁 호미를 걸어둠으로써 사실상 한 해 농사를 마감한다는 내력을 지닌다.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쓰이는 명칭이 호미걸이였음에 비해 월미두레풍물놀이에서는 두레파작이 주로 쓰이고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월미두레풍물놀이의 주체가 두레라는 공동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한편, 두레를 끝낸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명칭에 상관없이 주로 마을 전체의 김매기가 끝났을 때, 자신의 부락이나 이웃 부락과 함께 노동의 수고를 달래려는 마음에서 두레파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매화동의 제보에서처럼 이러한 것은 주로 백중을 전후로 해서 벌어졌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해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1) (조사자 : 두레파작은 언제 했나요?) 두레파작은 그 해 수입이 많을 때는 하고 수입이 없을 때는 하지 않았어요. 두레파작은 힘들어요.(이상진씨 이야기, 자료 4)

즉, 두레파작의 시기는 주로 8월 초순, 칠석, 백중 등 그 때의 형편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이다. 두레파작은 자연마을단위로 하는 경우와 마을간 합두레로 하는 경우가 있다.

아-2) (조사자 : 여기에도 두레 싸움이라는 것이 있었나요?) 예. 있었지요. 벼슬고지 옆에 미산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어느 해인가 이 곳에 두레가 생겼습니다. 그 해에 두 마을이 개울을 경계로 삼아 한 달을 두레 싸움을 했어요. 밤낮으로 악기를 두드리고 놀았습니다. 아낙네들은 밥과 술을 챙겨 마을 사람들을 먹이면서 두레 싸움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왜 싸우느냐 하면, 항복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절 안 한다고. 두레기로 흔들어 절을 하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싸움을 하는 도중에도 여러 차례 전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점점 흥을 돋구는 거지요. 한참 싸우다가 지는 쪽에서는 깃발을 세 번 쏘어 젓혀서 절하는 것으로 항복을 표시했습니다. 두레싸움은 어느 쪽 두레가 먼저 생겼느냐, 혹은 어느 쪽 두레가 더 기량이 뛰어나느냐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 다녀온 우리 벼슬고지 풍물이 늘 두레싸움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나 하면 벼슬고지 두레기가 나타났다면 다른 쪽 풍물들이 술술 피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하중 지역, 자료 2)

65) 주강현, 앞의 책, 290쪽.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암권의 하중동이나 군자권의 월곳은 비교적 큰 형태로 두레파작이 이루어졌음에 비해, 소래권의 신천동은 자연마을단위로 이루어졌다. 또 그 해의 경제형편에 따라 두레파작의 규모도 차이가 있었다.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경우 소머리국밥을 끓여 동네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마을의 영좌 집에서 밤새워 놀았다는 것으로 보아 비교적 크게 연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레파작은 주로 풍물놀이를 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소머리국밥이나 돼지고기, 국수 등을 준비하여 함께 나누어 먹고 즐기는 것을 볼 수 있다.

6. 월미두레풍물놀이의 두레싸움

월미두레풍물놀이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두레싸움에 관한 것이다. 두레싸움은 기세배와 비슷한 면이 있는 동시에 또 차이점도 지니고 있다. 일단 시흥지역 두레풍물놀이에서의 두레싸움의 양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역	지역	명칭	시작	과정
수암권	월미	두레싸움	합구친다, 종고를 올린다	상대방이 반응하면 놀지만, 반응하지 않으면 싸움
	하중	두레싸움	종고를 통해서 합구친다	두레싸움에서 두레기를 흔들어 절을 하면 지는 것이다. 두레싸움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할 수도 있었다. 어느 쪽 두레가 먼저 생겼는지, 또는 어느 쪽 두레가 기량이 뛰어난지가 승패의 기준이 된다.
	나분들	두레싸움		
군자권	월곳	두레싸움		농기를 잡고 서로 부딪혀서 농기에 올라가서 평장목을 빼앗음. 싸움에 진 부락이 술을 냄.
	장현동	두레싸움	방구(북)로 신호를 보냄	보내는 쪽에서 세 번 치고 두 번을 치면, 받는 쪽에서도 세 번을 치고 두 번을 침으로써 함께 논다는 의사 표시를 함. 년조가 낮은 쪽이 높은 쪽을 향해 세 번 절을 하면 년조가 높은 쪽은 두 번만 절을 하고 세 번째 절을 하는 중간에 기를 올림. 기를 붙여 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농기를 꺾는 쪽이 이기는 것임.
소래권	매화동	두레싸움	관에서 내려준 기에 인사를 하지 않음	기를 숙여서 인사함. 인사하지 않으면 싸워서 두레기를 꺾어 버림
	신천동	두레싸움		

두레싸움에 대해서는 주장현⁶⁶⁾의 선행논의가 도움이 된다. 그는 두레싸움이 마을간의 세력균형이 깨지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두레싸움은 대개 세 가지 경우로 발생하는데 우선, 이웃마을간의 세력관계가 불분명할 때, 두레로 싸움을 걸어 승부를 가리고 서열을 정하였다. 마을간 대항으로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이 연합하여 싸우는 경우도 있었다.

66) 주장현, 앞의 책, 227쪽.

둘째, 싸움이 하나의 관례적인 놀이로 이루어지는 관행적인 경우다. 말하자면 ‘싸움적 놀이’, ‘놀이적 싸움’이란 통일된 범주로서 정리된다. 한 공동체가 통과제의를 거치면서 겪는 시련으로서의 편싸움이며, 사회적 신분갈등이나 공동체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장치이기도 하다. 두레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정초에 두레싸움이나 기세배가 이루어진다는 시간상의 간격 자체가 관행적인 행사임을 말해준다.

셋째, 힘겨운 두레일이라 늘 술을 먹기 마련이라, 술기운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막연하게 완력으로 강자가 약자를 누르는 방식의 싸움이 자주 벌어졌다.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싸움의 양상은 상당히 심했다. ‘두레싸움은 살인도 없다’는 속담처럼 마을 대동짓발을 중심으로 전 공동노동 조직원들이 힘을 결집하여 자기 동네의 힘을 과시했다. 싸움의 목표는 상대편 썰장목 빼앗기였다. 썰장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상투를 잡고 악기를 부수고 장대를 꺾었다. 싸움이 심해져서 호미로 상대편을 찌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일제시대에 경찰조차도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한 싸움이었다. 상대가 비등하여 결판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의 연대가 높은 기를 모셔다가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썰장목을 빼앗기면 그 해 농사는 헛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움이 커졌다.

싸움이 끝나면 빼앗은 썰장목을 돌려주었다. 진 편에서 술을 한동이 내는 경우도 있었다. 혹은 두레꾼 전체가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해야 썰장목을 돌려주기도 했다. 두레싸움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별다른 사과를 하지 않았다. 공동체의 완력을 과시하는 싸움이었던 탓이다. 그러나 아무리 심한 싸움이 벌어졌다 손치더라도 두레싸움으로 인하여 이웃마을간 단절이 되는 경우는 없었다. 이로써 두레싸움이 단순한 싸움으로서만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공동체간의 연대를 확인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흥지역 두레풍물놀이의 경우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두레싸움을 모두 지니고 있다. 우선, 마을의 세력균형이 깨진 경우는 아-2)의 하중리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례) 벼슬고지 옆에 미산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어느 해인가 이 곳에 두레가 생겼다. 그 해에 두 마을이 개울을 경계로 삼아 한 달을 두레싸움을 했다. 밤낮으로 악기를 두드리고 놀았으며, 아낙네들은 밥과 술을 챙겨 마을 사람들을 먹이면서 두레 싸움을 독려했다. 싸움을 하는 도중에도 여러 차례 전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점 흥을 돋구었다. 한참 싸우다가 지는 쪽에서는 깃발을 세 번 끌어 절하는 것으로 항복을 표시했다. 두레싸움은 어느 쪽 두레가 먼저 생겼느냐, 혹은 어느 쪽 두레가 더 기량이 뛰어나느냐를 다투었다. 경북궁 증축에 참여했던 벼슬고지 풍물이 늘 두레싸움에서 이겼다. 벼슬고지 두레기가 나타났다 하면 다른 쪽 풍물이 술을 피했다. (하중동의 두레싸움)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는 두레싸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월미나 대화동의 경우 서로 신호를 보내고 그 후에 두레싸움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두레싸움이 어느 정도 일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두레싸움의 진행은 기세배·기싸움과 유사한 면이 있다. 기세배는 대동놀이의 한 형태로 전승되어 온 민속으로서 지금까지 주로 전북 익산, 완주, 옥구, 김제 등의 지역과 충남 공주, 부여, 서산, 충북, 보은 등의 지역에서 발굴 재현되었다.

안태현⁶⁷⁾은 선행연구에서 한양명의 논의⁶⁸⁾를 참조하여 기세배의 존재양상을 ‘달힌 마을형’과 ‘열린 마을형’, ‘달힌 고을형’과 ‘열린 고을형’으로 나누고 기세배를 논의하고 있다. 우선 논자가 준거의 틀로 삼은 한양명의 논의의 핵심은 ‘마을형’이 하나 혹은 두 개의 자연마을이 놀이에 참여하며 인근의 다른 마을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달힌 마을형’과, 놀이의 인적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열린 마을형’이 있다고 하였다. ‘열린 마을형’은 주로 교통, 물산, 행정의 중심지이거나 대촌으로서 평상시에는 소규모의 편싸움을 하다가 여건이 허락하면 인근의 마을이 모두 참여하는 대동놀이를 말한다.

반면, ‘고을형’은 전통사회에 있어 읍치를 중심으로 연행되는 대동놀이를 말하는데 평년에는 읍치 내의 몇 마을만이 참여하는 ‘달힌 고을형’과 역시 여건이 허락할 때 읍치 관내의 모든 마을은 물론 인근의 고을까지 참여하는 초대형 대동놀이를 ‘열린 고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태현이 구분한 것 중에 주목할 만한 것으로 ‘열린 마을형’이 있다. 전북 완주 봉동의 기세배에서는 10개의 마을이 참가하여 서로 합동 기세배를 하는데, 형제의 순서에 따라 형의 마을 농기 앞에 아우 마을의 기가 깃대를 숙여서 절을 한다. 이 때 깃대의 숙이는 각도에 따라 실랑이가 벌어지고 심하면 기를 찢고 깃대를 부러뜨리는 싸움에까지 이른다.

물론 지역적인 편차는 있겠지만 선행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열린 마을형’의 기세배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기세배가 노동공동체를 근간으로 서열을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이들은 지리적으로 하나의 범위에 속하는 경작지를 중심으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속에서 이미 정해져 있거나 새롭게 정립해야 할 질서를 기세배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렇듯 두레싸움과 기세배·기싸움은 비슷한 면을 많이 지니고 있다. 그런데, 시흥지역 두레풍물놀이의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두레싸움의 형태가 부락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부락이 만났을 때 농기의 상하에 따라, 즉 부락의 상하에 따라 인사하는 관습이 있었으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두레싸움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즉, 기세배가 먼저 이루어지고 다음에 기싸움이 벌어지며, 이러한 것이 두레싸움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두레싸움이 어떻게 시작되는 지도 흥미롭다. 두레싸움은 보통 북을 세 번 울림으로써 시작한다.

사례) 우리 마을 논의 김을 매기 위해 논 위아래가 두레기를 쏘습니다. 그런데 아랫마을에서도 두레기가 쏘힐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흔히 두레 싸움을 걸기 위하여 북을 세 번 팡팡팡 울리는 데, 이를 ‘종고’라고 합니다. ‘나 여기 있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 기에게 절을 하라고 위협하는 행위입니다.(하중 지역, 자료 2)

또, 두레 싸움을 하면서 두 마을의 두레패가 모여서 함께 연행하는 것을 ‘합구친다’고 말한다. 종고(점고)를 울릴 때, 다른 쪽 두레에서 응대해오면서 두레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함께 연행하기도 한다.

한편, 경기도 지역과 충청도 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두레싸움이 전하고 있어 흥미롭다. 다음은 두 군데

67) 안태현, 앞의 논문.

68) 한양명, 『한국 대동놀이 연구 - 편싸움을 중심으로』(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3).

I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현황

에서 전해져 오는 두레싸움의 양상이다.

(사례) 이 놀이는 수백 년 전부터 성행해 내려오다가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때때로 중단되기도 했으나 5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힘들고 일손이 모자라는 농사일을 하면서 협동과 단합을 목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오다가 그 이후 사회구조의 변화와 개인주의의 팽배로 중단상태인 것을 다시 발굴 재현한 것이다.

이 두레싸움은 들일을 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일터로 나간 서그네 마을과 용숫골 마을 두레가 서로 만나 인사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이해와 의견 차이로 싸움이 벌어지는데, 상대방 두레의 가장목을 뽑음으로써 승패를 가리는 민속놀이의 일종이다. 특히 싸움 중 손해본 물품들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고 형제의 의를 맺고 농요를 서로 부르며 성황당에 고사하고 합굿을 치며 한 마당 놀이판을 벌여 두 마을이 화합 단결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사례) 광석면 오강리에서는 예부터 지와바리 놀이를 해왔다. 여름철 농촌에서는 어느 정도 논매기가 끝나갈 무렵 부락 단위로 두레날을 잡는다. 두레는 농촌에서 농사일을 할 때, 공동작업을 해서 노동력을 서로 돕기도 하지만 두레를 통해서 동네 사람들간에 협동노동, 상호부조, 공동오락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며, 하루 또는 2, 3일 계속되는 수도 있다.

두레꾼들이 하루의 계획된 논을 다 매게 되면 농기를 앞세우고 풍물을 치면서 마을로 들어와 그날 논을 가장 많이 낸 부자집을 찾아 가는데, 이 집에서는 두레꾼들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한다.

오강리 지와바리 놀이는 이때에 하던 놀이로 음식이 준비될 때까지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놀이를 펼치며 가정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도 한다.(논산시 광석면 오강리)

이상은 경기도 용인과 충청도 논산에서 행해졌던 두레싸움과 두레파작에 관한 내용이다. 이 기록들은 최근에 복원되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신빙성에 의심이 가지만, 일단 전체적인 맥락에서 월미두레풍물놀이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월미두레풍물놀이가 이들 지역과 차이가 나는 점은 이들 지역에 비해서 체계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월미두레풍물놀이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와중에 두레싸움이 빈번하게 벌어지곤 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간의 경쟁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마을의 잔치인 두레파작 때에는 이러한 두레싸움을 함께 연행하면서 그간의 경쟁의식을 벗어버리고, 마을끼리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상을 통해 월미두레풍물놀이에 두레싸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각 부락의 두레기에 충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전 시기에 관에서 내려주었다는 두레기에 대해 다른 동네의 사람들이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두레기의 평장목을 찢거나, 두레기를 꺾어버리는 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규모 역시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레싸움에서 부락의 크기는 중요하다. 그러나 부락이 크다고 해서 다 센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단합력이 더 중요했다. 실제로 장현동과 월미의 경우 약 50여호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인근의 다

른 부락보다 두레 싸움에서 많이 이겼다고 한다. 또한, 두레 싸움의 승패는 기싸움의 승패와 더불어 풍물놀이의 연행정도와의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7. 월미두레풍물놀이의 담당자와 후원자

원래 두레풍물놀이는 특별한 후원자나 기획자가 없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경우 전문예인의 가담으로 인해 두레풍물놀이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어 주목된다. 다음의 사례는 전문예인의 영입에 따른 두레풍물놀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례) 수암권의 안장국씨에 따르면 자신의 아버지(안기성씨)가 김맹식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팽과리를 매우 잘 쳤다고 한다. 김맹식은 타향 출신으로 남사당패를 따라 다니다가 안기성씨의 주선으로 월미에 들어왔다고 한다. 안장국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김맹식에게 팽과리를 배웠다고 한다. 이 밖에도 박춘식이라는 사람도 있었다.(수암권 안장국씨의 제보)

위의 사례는 1940년 이전의 상황이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월미두레풍물놀이는 마을공동체의 소박한 형태에서 전문예인의 영입으로 인해 질적 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두레풍물에서 판굿으로의 전환과정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안기성씨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일정 부분 두레풍물놀이에 경제적 지원을 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안기성씨는 그보다 더 진일보한 것으로 당시 정미소를 몇 개나 운영할 정도의 부자로 동네에서 인망을 얻고 있었으며, 풍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후원자의 입장에서 서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소래권의 신천동에서도 안병국이라는 사람이 연습을 시키고 점심도 해주고 술도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동네에서 부유한 편에 속하고 관심에 많았던 것에 기인한 듯하다.

그러나, 시흥지역 두레풍물놀이에서 이러한 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소래권의 신천동이나 군자권의 장현동에는 전문적인 예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현동에서는 정대산씨(제보자 정완중씨의 부친)가 인근에서 팽과리를 제일 잘 쳤다고 한다. 정대산씨는 인근 마을에 가서 보수를 받고 가르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전문예인이라기보다는 일반인들 중에서 뛰어난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월미두레풍물놀이에도 영좌가 존재하고 있다.

(조사자 : 영좌님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지요?)

여자덜은 영좌를 못 봐요. 이 동네에서 남자로서 제일 연령이 많은 사람. 영좌라고 그러지요. 배웠거나 못배웠거나 따지지 않고.

(조사자 : 특별하게 굿을 한 번 하는 건가요?)

두레파작이 끝나면 영좌님네 집으로 갔어요. 두레파작에서 두레 마당이 끝나면 영좌님 집에 남녀 구분 없이 다 찾아가서 하루종일 먹고 마시면서 특별하게 굿을 하는 거지요. 영좌는 한 동네에서 100세의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영좌가 못 되고 나이가 적은 80세라도 남자라야만 될 수 있어요. 예전 풍습이 이러했습니다.

영좌님 집에서 굿을 하고 놀 때는 그 집 자손들은 사례금보다는 술상을 하나 봐서 한 잔씩 돌려가며 먹곤 했지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진 지가 6·25 사변 나고 일사 후퇴해서 전부 가고 보니까 전부 쇠퇴되고 없어졌는데.(안장국씨 이야기, 자료 1)

영좌는 마을의 연로한 분 중에서 농사경험이 많은 사람을 뽑았으며, 절대적인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영좌의 선출은 두레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영좌는 농사를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또 두레뿐만 아니라 두레농사가 끝난 다음에도 마을의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았다.⁶⁹⁾ - 이대중

69) 주강현, 앞의 책, 223~225쪽.

여 백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 및 형식

월미의 두레풍물놀이는 경기·충청(웃다리 풍물)지방 전반에 나타나는 가락과 진풀이의 형태와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몇몇 장단의 명칭을 다른 지역과 달리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무등패가락, 짚지패가락, 도드레가락⁷⁰)과 진풀이의 짜임새가 농사 모의(模擬)적 행위⁷¹, 군사진법(軍士陣法)⁷², 기원(祈願)적 축원행위⁷³, 유희(遊戱)적 놀이행위⁷⁴, 기예(技藝)적 행위⁷⁵ 등 풍물굿을 구성하는 판제의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제보자들의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기지방 곳곳⁷⁶에서 행해졌던 두레 기(旗)⁷⁷ 싸움이 시흥지역에서도 변함 없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기(旗)⁷⁸의 규모나 크기가 대단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것은 마을간의 경쟁이었기에 서로 좀 더 우위(優位)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었으며, 마을의 결집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풍농을 기원하기 위한 축원의 놀이였던 것이다. 두레 싸움이 끝난 후 승패와 상관없이 서로 합굿을 치며 대동의 놀이판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경쟁과 화합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어 공동체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삶의 모습들을 엿볼 수 있다.

-
- 70) 2003년 5월 3일 시흥시 물왕동(월미마을)에 거주하는 안장국(76세)씨 2차 면담 조사 내용 중 월미마을에서 행해졌던 풍물굿의 진풀이 및 가락 채보 조사 증언 내용. 위의 장단들은 한국 풍물굿의 전반적인 형태로 파악해 볼 때 무등패가락 = 삼채, 덩덕국이 · 짚지패가락 = 굿거리 · 도드레가락 = 웃다리 풍물 장단 중 육채가락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 71) 2003년 4월 23일 시흥시 물왕동(월미마을) 안장국(76세)씨,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의 윤용배, 남문현, 나정현, 최교한, 이경운, 김의중, 소성익씨의 면담 조사내용. '소고쟁이 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농사 짓는 것을 흉내내어 소고 놀음을 했었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
- 72) 2003년 4월 30일 시흥시 물왕동(월미마을) 안장국(76세)증언 내용. "쟁이 한 패, 소고 한 패, 벼구도 둘 나눠서 이렇게 저렇게 갈라서고.. 예전엔 6벼구가 있었다. 벼구를 둘로 나누면 8벼구가 되는데, 넷 씩 갈라서 벼구쟁이들끼리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마당에서 오방진(동·서·남·북·중앙)을 길가락에 맞추어 명석말이 형태로 말았다, 풀었다 하면서 마치 군사들이 훈련하듯이 했다." 이러한 진풀이의 형태는 현재 웃다리 풍물굿에서 오방진, 사통백이 등의 진풀이 형태로 연희되어지고 있다.
- 73) 풍물패가 놀이판으로 들어오기 전 문굿을 치는 행위, 정월 초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지신밟기를 해주는 행위 등.
- 74) 시흥시 매화동 이상진(72세)면담 조사내용 중. "풍물패 뒤에는 노인과 양반이 있었는데, 대중을 웃기기 위해서 굿추도 있었다. 어디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흉내내는 정도였다. 그리고 무동들이 나와서 무동춤 추고". 위의 내용으로 보아 시흥지역 두레풍물놀이에서 잡색패와 무동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사당, 평택, 안성농악 등의 웃다리 풍물굿에서와 같은 형식의 구성을 보인다.
- 75) 2003년 4월 23일 시흥시 하중동 이천원, 백남화, 권희원씨 면담 조사 내용. "두레 놀이를 할 때 무동도 했다. 해방 이후부터 6.25 사변 때까지 무동을 타기도 했다".
- 76) 논산시(광석 오강리 지와바지 놀이), 용인시(두레놀이), 김포시(통전두레놀이) 등.
- 77) 시흥시 월곶동 윤용배씨 증언 내용. "두레싸움은 여럿이 농기를 잡고 깃대를 쓰러뜨려 평털을 뺏으면 이기는 것이다. 싸움에서 이기면 진 사람이 술을 내는 것이다".
- 78) 시흥시 월곶동 윤용배, 남문현, 나정현, 최교한, 이경운, 김의중, 소성익씨 면담 조사 내용. "두레기는 흰천에 '농자천하지 대본'이라 쓰고 지네발을 달았는데, 줄을 맬 만큼 엄청 컸다. 우리 기에 비해 매화동 기는 짧다. 두레기에 줄을 매달아 양쪽에서 함께 삼각형 모양으로 잡고 붙잡아 다녔다. 두레기 맨 위에는 평털을 달았다". 마을간의 경쟁으로 기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언이다.
-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월미두레풍물놀이는 일제시대 강한 제약을 받으며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다, 해방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큰 명절이나 두레파작, 걸립 등 마을의 크고 작은 행사에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인근지역인 하중동, 장현동, 월곶동, 금이동 등에서도 풍물패의 구성이나 판제의 짜임새가 잘 짜여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월미 마을은 유랑광대였던 김맹식⁷⁹⁾씨가 정착하면서 향인 광대로의 전환을 통해 월미지역 풍물놀이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인근 지역에 비해 월미 마을 풍물놀이의 놀이적 구성이 뛰어나고 안장국씨에 의해 미약하나마 현재까지 마을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본 장에서는 현재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는 월미두레풍물놀이를 복원하고 재현해 보려 한다. 이러한 작업은 월미두레풍물놀이의 우수성을 알리고 체계적인 전승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1. 월미두레풍물놀이의 특징

1) 장단의 구성

풍물놀이에 쓰이는 악기는 팽과리(쇠), 징, 장고, 북, 소고의 타악기와 태평소의 선율악기로 이루어진다. 과거 제금(바라)을 사용⁸⁰⁾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다. 풍물굿은 선율 위주의 음악이 아닌 타악기의 장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장단은 이분박(拍)·삼분박·혼합박 계열의 장단들을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이분박의 자증가락(휘모리), 삼분박의 무등패가락(삼채·덩덕궁이)·짚지패가락(굿거리), 혼합박의 길가락(길군악 칠채), 도드래가락(육채)를 사용한다. 그밖에 춤가락으로 짹짹이, 타령, 왜자가락(무동놀림) 등 다양하게 사용된다.

월미두레풍물놀이는 팽과리(쇠)의 가락과 놀음이 발달되어 매우 현란하고 경쾌하며 범구쟁이들의 상모놀림이 어느 지역보다 단정하며 빠른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79) 안장국씨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의 아버지가 팽과리를 무척 잘치는 김맹식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것이 월미풍물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김맹식은 타향출신으로 남사당패를 따라 다니다가 안기성씨(안장국씨의 아버지)의 주선으로 월미 마을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안장국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김맹식에게 팽과리를 배웠다는 전설로 미루어 보아 김맹식이 월미풍물의 중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랑광대에서 향인광대로의 전환이 그 지역 풍물의 기능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리라 짐작한다. 한편, 후원자의 입장이었던 안기성씨는 당시 정미소를 몇 개나 운영할 정도의 부자로 동네에서 인망을 얻고 있었으며, 풍물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80) 시흥시 월곶동 윤용배, 남문현, 나정현, 최교한, 이경운, 김익중, 소성익씨 면담 조사내용. “호적쟁이, 쇠, 징, 장구, 북, 제금이 있었다. 징 다음에 제금이 섰으며 바라춤을 쳤다.” 제금은 주로 웃다리(경기·충청)풍물굿에서 사용되어졌다가 현재는 쓰이지 않고 있다.

2) 춤 적인 요소

풍물놀이는 악기를 연주하며 넓은 마당(무대)에서 여러 형태의 몸 동작과 진풀이 등을 중심으로 연희되어지는 매우 역동적인 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옷다리 권역 풍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옷놀음(상모놀음)이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월미두레풍물놀이 또한 이러한 법구잡이들의 상모놀음(춤)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상쇠놀음, 무동춤 그리고 잡색들의 난장 춤 등을 통해 나타나는 월미두레풍물놀이의 춤 적인 요소는 풍물판의 신명과 멋을 한 층 돋구어 낸다.

3) 기예적인 측면

월미두레풍물놀이는 놀이 구성에서 법구잡이들의 놀음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법구잡이들이 빠르게 돌려대는 양상과 두루걸치는 가히 기예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또한 무동놀림에서는 외무동, 맞무동, 오무동, 칠무동 등 어깨 위로 사람을 올려 갖가지 재주를 부리며 논다. 더욱이 오무동이나 칠무동 같은 경우 고난도의 기능을 요하는 재주로 흔히 볼 수 없는 연희이다.

4) 연희적 측면

풍물놀이는 음악과 춤, 사설, 재담, 놀이, 소리, 재주 등 연희적 요소가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는 종합예술이다. 풍물패는 정월 초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한 해 무사태평을 기원하며 비나리를 해준다거나 두레를 나갈 때 힘든 노동을 조금이나마 잊게 해주기 위해 노래와 악기로 흥을 돋구어 준다.

특히 잡색들의 역할은 놀이꾼과 구경꾼들의 사이를 넘나들며 풍자와 해학적인 즉흥 연기를 통해 판의 흥을 돋구어내고 행위자와 구경꾼으로 나뉜 경계선을 없애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대동의 굿판을 만들어 가는데 일익을 담당한다.

진풀이 또한 집단적 규율성을 판에서 보여주는 볼거리 중의 하나이다. 진풀이의 훈련을 통해 조직의 규율성, 단결력, 통솔력을 기르며 그 속에서 집단적 염원을 이루어 내는 힘을 갖게 한다.⁸¹⁾

이렇듯 풍물놀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연희의 복합적 요소로 인해 풍물놀이의 대동의 판은 모든 이가 평등하고, 힘들고 지친 삶을 풀어주던 신명의 판이었다. 그리고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저항의 힘을 모아 내는 단합의 판이었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이루며 정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판이었던 것이다. 또한 모든 이들의 염원과 기원을 올리는 신성의 판이었으며 축제의 판이었던 것이다.

81)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전통연희의 이해와 실제 I』(1998), 참고.

2. 풍물패의 구성

1) 농 기

기수 - 1명, 보조기수 - 2명, 영기 - 2명

시흥두레풍물놀이의 농기는 흰천 바탕에 검정 글씨로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문구를 세로로 썼으며 청·홍의 영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과거에는 농기보다는 크기가 작은 오방색의 만장기를 사용하였는데 현재는 쓰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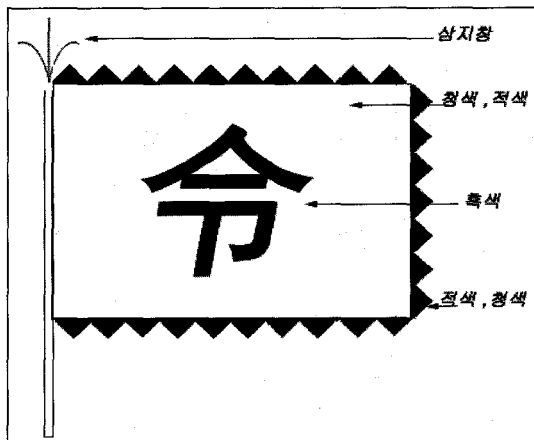


그림 5. 영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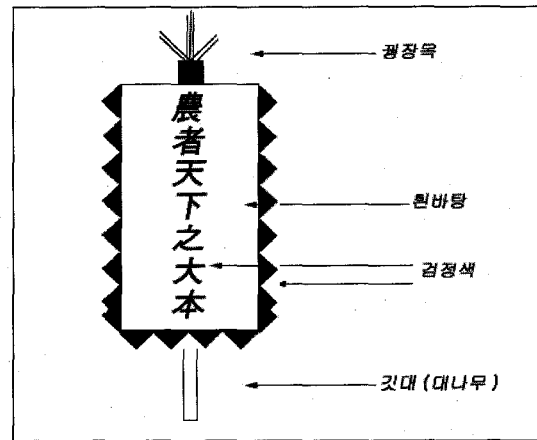


그림 6. 농기

2) 치 배

호적수 - 1명

쇠 - 상쇠, 중쇠, 종쇠

징 - 상징, 부징

장구 - 상장구, 부장구, 삼장구, 꼬리장구

북 - 상북, 부북, 삼북, 꼬리북

법구 - 상법구, 부법구, 삼법구, 사법구, 오법구, 육법구, 칠법구, 꼬리법구

무동 - 상무동, 부무동, 삼무동, 사무동, 오무동, 육무동, 칠무동, 새미

잡색 - 양반, 각시

3. 풍물패의 복식

1) 기 수

- (1) 머리부분 : 검은 두건을 두르고 흰 꽃 모양의 천을 만들어 단다.
- (2) 상체부분 : 흰 저고리에 남색 조끼를 입고 삼색띠를 두른다. 삼색띠는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허리 방향으로 내리서 매는데 처음에 파란띠를 매고 그 위에 포개어서 노랑띠를 두른다. 그리고 허리는 빨간띠를 매어서 허리 뒤 부분에 삼색을 가지런히 정리하여 매듭을 짓는다.
- (3) 하체부분 : 흰 바지에 행전은 하지 않는다.

2) 호적수

- (1) 머리부분 : 검은 두건을 두르고 흰 꽃 모양의 천을 만들어 단다.
- (2) 상체부분 : 기수와 같다.
- (3) 하체부분 : 기수와 같다.

3) 쇠

- (1) 머리 : 이마에 검은 두건을 두르고 흰 천을 둘러 이마에서 꽃 모양을 만든다. 그 위에 북상모(짧은 채상모)를 쓴다.
- (2) 상체 : 기수와 같다.
- (3) 하체 : 기수와 같다.

4) 징

- (1) 머리 : 이마에 검은 두건을 두르고 흰 천을 둘러 이마에서 꽃 모양을 만든다. 상모를 쓰고 물채의 길이는 짧고 초리는 두 갈래로 매달아 사용한다.
- (2) 상체 : 쇠의 옷차림과 같다.
- (3) 하체 : 쇠의 옷차림과 같다.

5) 장구

징수와 같음.

6) 북

징수와 같음.

7) 버꾸

징수와 같음.

8) 무동

- (1) 머리부분 : 땡기 머리에 노란 수건을 덮어쓴다.
- (2) 상체부분 : 노란 저고리에 남색 쾌자를 걸치고 삼색띠를 열십자(+) 모양으로 두른다.
- (3) 하체부분 : 남색 쾌자 속에 빨간색 치마를 입는다.

9) 새미

- (1) 머리 : 머리에는 천으로 된 고깔을 쓴다.
- (2) 상체 : 하늘색 저고리 위에 쾌자를 입는다. 쾌자의 아랫부분은 모아서 뒤로 묶어준다. 팔 부분은 탈춤의 한삼처럼 길게 만들어 입는다.
- (3) 하체 : 하늘색 바지.

10) 양반

- (1) 머리 : 정자관을 쓴다.
- (2) 상체 : 흰 두루마기를 입고 담뱃대를 손에 든다.
- (3) 하체 : 흰 바지를 입고 대님을 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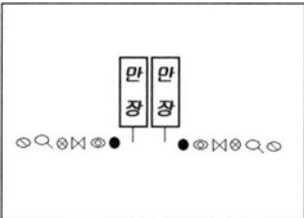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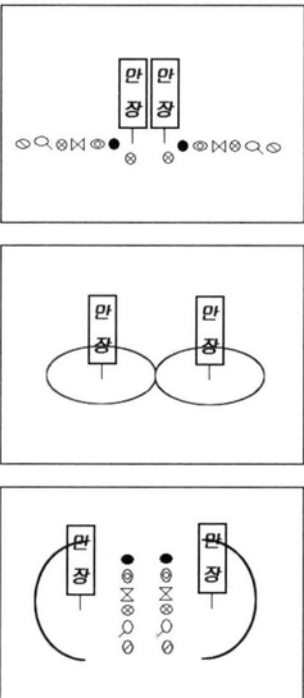
11) 각시

- (1) 머리 : 각시 탈을 쓴다.
- (2) 상체 : 노랑색의 저고리를 두른다.
- (3) 하체 : 빨간색의 치마를 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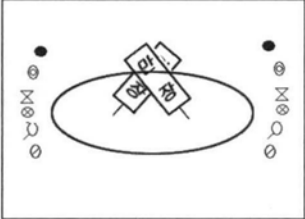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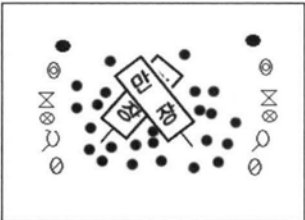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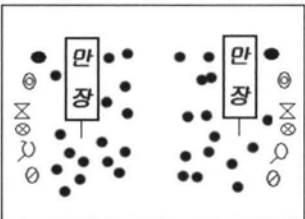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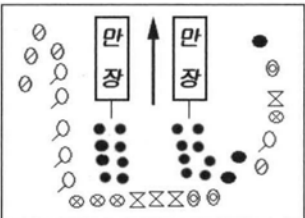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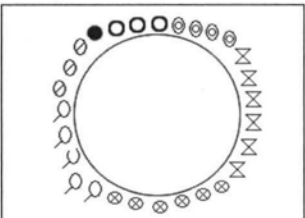
4. 월미두레풍물놀이의 짜임새

- 1) 길놀이
- 2) 점 고
- 3) 두레 기(旗)싸움
- 4) 인사굿
- 5) 돌림버꾸
- 6) 마당일채
- 7) 오방진 쌓기
- 8) 당산벌림 1
- 9) 당산벌림 2(외줄백이, 쌍줄백이, 좌우치기, 반좌우치기)
- 10) 사통백이
- 11) 원형좌우치기
- 12) 네줄배기 좌우치기
- 13) 무동놀림(찍찍이, 타령, 쾌자춤)
- 14) 마당놀이(밀버꾸)
- 15) 개인놀이 (쇠, 버꾸, 북, 장구)
- 16) 무동놀이
- 17) 열두발 놀음
- 18) 인사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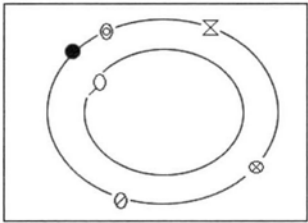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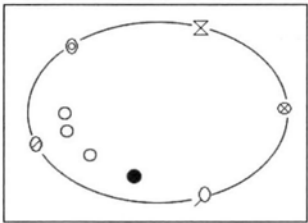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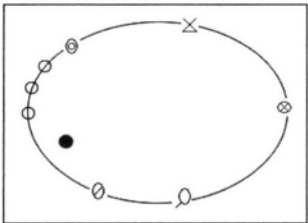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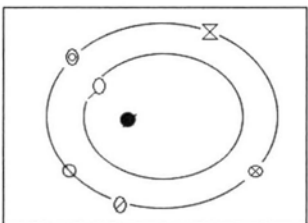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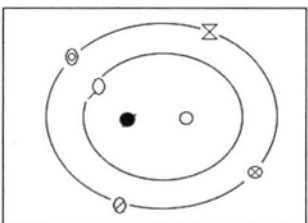
5. 시흥두레풍물놀이의 판제

	판 그림	판 흐 름	내 용
길 놀 이		난타 →무등패가락→자존가락 두레기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김을 매고 나와서 치배들을 모으고, 만장기를 맨 앞으로 내세우고 무등패가락으로 자기네의 마을에서 길놀이를 시작하여, 마을과 마을사이의 넓은 마당으로 이동한 뒤 자존가락으로 넘겨서 가락을 댄다.	난타 - 치배들을 모이라는 신호가 된다.
점 고		점고 →난장 두 마을의 풍물대표들이 서로 만났으면 이제부터 두레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 쪽에서 먼저 상복이 만장기 옆에 서서 점고로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상대편 마을도 앞마당에서 친 점고를 상복이 만장기 옆으로 나와서 그대로 따라 친다. 점고를 친 뒤, 치배와 마을주민들은 자기네 만장기 주변으로 원을 만들어 마을의 기세를 올리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풍물굿을 친다. 그리고 난 후 치배들은 만장기 앞으로 나와 한 줄로 서서 상대 풍물패들과 기량을 견주며 실력을 과시한다.	점고 - '두레 싸움을 할 때는 서로 김을 매고 나와서 먼저 방구(북)로 3번을 치면 만나자고 신호를 보낸다. 보내는 쪽에서 세 번 치고 두 번을 치면, 받는 쪽에서도 세 번을 치고 두 번을 침으로써 함께 놀자는 표시가 된다. - 장현동의 정완중 씨(7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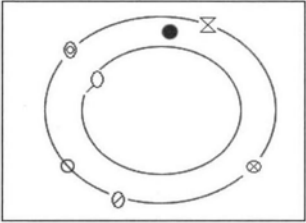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 및 형식

	판 그림	판 흐름	내 용
기 싸 움	   	난타(기싸움)→자존가락→무등패가락→자존가락 각자 마을의 기세를 올린 다음 함께 난타를 치는데, 이때 치배들은 마을주민들의 뒤쪽으로 나가 있고, 마을주민들은 함께 하나의 큰 원을 만들어 만장을 서로 얹혀 놓는다. 서로의 만장기가 얹혀 있는 상태에서 만장기로 밀고, 당기고, 돌고, 누르다 자존가락으로 넘어가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만장기로 달려들어 상대방의 만장기 끝에 달려 있는 평장목을 뺏어 낸다. 먼저 평장목을 차지한 쪽이 이기고 가락은 무등패가락으로 넘어간다. 무등패 가락에 맞추어 진 쪽은 마을 주민들이 슬퍼하여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다가 만장기를 세 번 흔들고 젖다는 것(하기가 되었다)을 알린다. 그러면 이긴 쪽은 기뻐하며 그 답례로 만장을 두 번 흔들고 높이 치켜들여(상기가 되었다) 풍물을 더욱 크게 치고 흥을 올린다. 이를 기세배라 한다. 기세배가 끝난 뒤, 함께 상쇠들의 자존가락에 맞춰 마을주민들은 빠져 나가고, 풍물꾼들만이 원을 만들어 합굿을 시작한다.	기세배 - 두레싸움은 어느 쪽 두레가 먼저 생겼느냐, 혹은 어느 쪽 두레가 더 기량이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상기와 하기가 있었고, 하기는 상기에게 두레기 싸움이 끝난 뒤에 혹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예를 표해야 했다.
인 사 굿		전체 큰 원이 완성되면 상쇠는 무등패 가락을 맺고 자존가락을 낸다. 상쇠가 신호가락을 내주면 전체 치배들은 장단을 치며 원 밖을 향해 돌고 상쇠 신호에 의해 가락을 맺은 후 인사굿을 친다.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 및 형식

	판 그림	판 흐름	내 용
돌 림 버 꾸		자존가락 상쇠가 자존가락 신호가락을 내면 버꾸들은 원안으로 들어가 작은 원을 만들어, 빠른 양상을 치면서 옆으로 뛰고, 나머지 치배들은 버꾸들 밖에서 원을 만들어, 외사를 치면서 돈다.	'양상을 치면서 옆으로' - 이것이 돌림버꾸이다.
마 당 일 채		도드레가락 상쇠가 자존가락을 맺고 도드레가락 한 장단을 신호가락으로 친 뒤에 나머지 치배들이 가락을 치면서 원을 돈다. 팽과리 잭이들은 원 안에서 자유롭게 논다. 어느 정도 놀고 나면 상쇠만 남고 나머지 팽과리잭이들은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	도드레가락 - 육채라고도 한다.
			
		→넘기는가락→무등패가락→자존무등패가락 상쇠가 도드레가락을 서서히 몰아가다가 무등패가락을 내면 버꾸들이 원 안에 들어와서 원을 만들어 사사를 치고, 상쇠가 버꾸원안으로 들어가서 개인기량을 뽐내고 자존무등패가락으로 가락을 넘긴다. 이때 치배들은 밖에서 외사를 치면서 원을 돈다(상쇠만 원안으로 들어와 곧장 자존무등패가락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자존무등패가락 - '마당삼채', '자존삼채' 라고도 한다. '서서히 몰아가다가'(넘기는가락) - 도드레 가락에서 무등패가락으로 넘어갈 때 도드레가락을 서서히 몰면서 조금씩 장단을 몰아가다가 다시 풀어쳐 무등패 장단에 맞춰 속도를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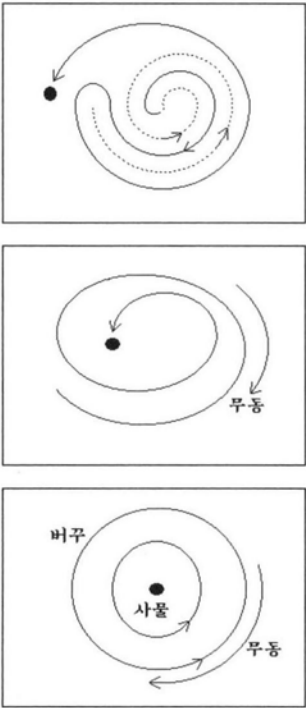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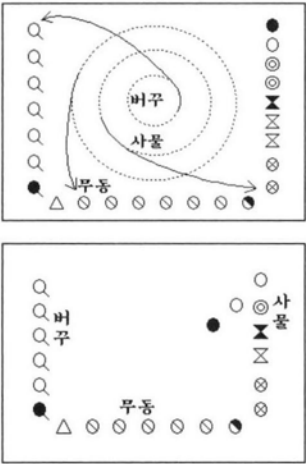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 및 형식

	판 그림	판 흐 름	내 용
마 당 일 채		→자존가락→엮어배기→쉬는가락→자존가락 자존무등패가락을 치다가 상쇠의 신호에 따라 가락을 자존가락으로 넘긴다. 이때 버꾸는 제자리에서 양상을 치고, 치배들은 외사를 치면서 원을 뚫다. 상쇠는 원 안팎을 드나들면서 놀다가 부쇠 앞에서 신호하여 엮어배기로 넘어간다. 엮어배기에서 상쇠는 원 안에서 기술을 발휘하는데 소고들이 충분히 놀 수 있도록 소고 원 밖을 드나들며 배려하고 소고는 사사를 치다가 삼상이나 나비상 등을 하며 자유롭게 놀며 기량을 뽐낸다(이때 가급적 목의 방향을 맞추어 쪽벽꾸가 나지 않도록 한다). 치배는 소고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상모를 구사할 수 있으나 통일성을 위해 허튼상을 기본으로 맞추기도 한다. 다듬이 장단에 소고는 '웃 퍽'을 치며 사사나 허튼상으로 상모를 통일하고, 치배는 외사를 치며 걷는다. 상쇠를 가락을 치다가 자존가락으로 넘어간다. 마지막 자존가락은 실질적인 돌림버꾸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소고는 양상을 치고, 치배는 외사를 치면서 좌우치기를 한다. 상쇠의 맺는 가락에 따라 전원 짝음상을 하며 멈춰선다.	다듬이 장단 - '다듬이 장단'이라는 명칭은 정확하지 않으며, '더드래기'또는 '이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엮어배기'에서 바빴던 소고를 엮박으로 치며 다시 양상을 치기 위해 잠시휴식을 취하는데 짧게 치거나 간혹 그냥 양상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사사 - 본래 옷다리 지역에서 허튼상을 치며, 따로 사사라 구분짓지 않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허튼상을 좀더 채워서 좌우로 시선을 많이 주어 친다. 소고치는 법 - 소고는 보통 '아래-아래 -쉬었다-위' 를 치는데 월미풍물에서는'아래-위에-쉬고-위' 를 친다.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 및 형식

	판 그림	판 흐름	내용
오 방 진		길가락(길군악 칠채) 상쇠는 머리장단을 친 뒤 사물치배 뒤로 돌아나가거나 공연장이 좁을 땐 맨 앞으로 나가 길가락에 명석을 말기 시작한다. 동, 서, 남, 북, 중앙에 총 5회를 말고 푼다. 상쇠는 길가락을 칠 때 이동시에는 원박을 치고 말아들어갈 때는 겹박, 다 말아서 북아치는 가락, 진을 풀때는 첫 장단을 비워둔 길가락으로(방어리 칠채)로 친다. 말아들어 갈 때 상쇠는 연풍대를 돌기도 한다. 이 때 버꾸는 이동시에는 이마 앞에 소고를 들고 오른손은 뒷짐지거나 자유로운 몸짓으로 뛰거나 걸으며 장단 끝에 한 번씩 소고를 치고, 명석을 말고 들어갈 때만 외사를 친다. 명석을 풀고 나올 때 버꾸는 푸는 가락 중간쯤에 진행 방향과 반대로 크게 원을 그려 사물이 빠져나갈 틈을 내준다(무동들도 마찬가지이며, 사물을 따라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다 -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버꾸들이 판 속에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흠이 있다).	길가락 - 안장국씨의 고증에 의하면 길가락은 걸어가면서 치는 길가락과 명석을 말 때 쓰는 자존길가락이 있는데, 그 차이는 가락의 중간을 나눠치는 것과 달아치는 것, 그리고 장단의 끝을 맺어치는 것과 달아치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 및 형식

	판 그림	판 흐름	내 용
오 방 진		길가락→자존가락→자존무등패가락→자존가락→짝쇠(엮어배기)→난타 마지막 중앙에서 멍석을 말아 길가락을 몰아서 끝내고 자존가락을 치는데 이때 소고는 돌림버꾸를 치고 치배는 외사를 치며 좌우치기를 한다. 상쇠의 가락에 의해 짝음상을 하며 멈춘다. 상쇠가 무등패가락을 내서 멍석을 완전히 풀었다가 다시 멍석을 만든다. 멍석을 말면서 점점 무등패가락을 몰아서 자존무등패가락으로 넘어가고 다 만뒤에 자존가락을 낸다. 이때 치배는 모두 연풍대를 돌고, 소고는 두루걸이를 한다. 상쇠의 신호가락에 의해 맺는다. 엮어배기 짝쇠로 멍석을 풀다가 난타를 쳐서 당산벌림을 만든다.	두루걸이 - 예전에 옷다리 지역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다고 들 하나 송순갑 선생님이나 그 후에 분들이 두루걸이를 한 것으로 보아 남사당이 워낙 뛰어난 예인들이 모인 곳이기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 능력이 나 포용력이 뛰어났던 것 같다.
당 산 벌 림		난타 난타를 치면서 모든 치배가 외상을 돌리며 일제히 뛰면서 당산을 벌린다. 이때 상쇠는 관객 쪽으로 서고, 버꾸는 그 맞은 편에, 무등은 수버꾸 쪽으로 치배와 버꾸 사이에 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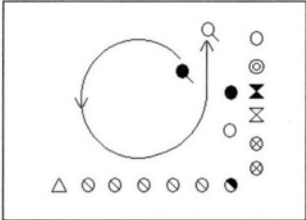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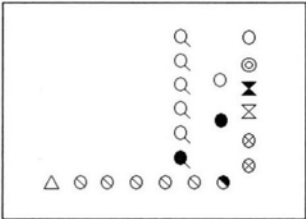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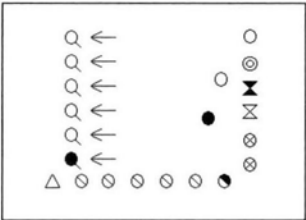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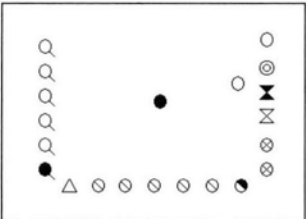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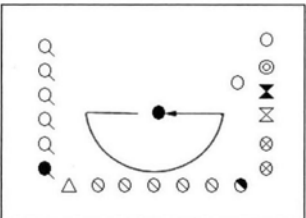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 및 형식

	판 그림	판 흐름	내 용
당 산 별 림		난타→자존가락→난타	
		상쇠는 치배가 자리를 잡으면 가운데로 나가 난타로 뒤로 물러서며 좌우 짝음 상으로 놀다가 돌사위로 큰 원을 그린 후 버꾸 앞에서 오른쪽 짝음상으로 복상을 세운 채, 돌던 방향의 반대로 한두 바퀴를 돌고 부쇠에게 가서 난타를 맞는다.	
		그 뒤 바로 자존가락을 내는데 이것에 맞추어 버꾸들이 네 걸음을 치배 쪽으로 뛰어나와 자존가락에 맞춰 양상과 솟음버꾸를 친다. 이때, 상쇠는 가운데에서 돌사위를 한다.	
		상쇠에 의해서 가락을 맞고 다시 난타를 쳐서 당산을 벌린다. 이때 소고는 수버꾸를 따라 마당을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리로 찾아 들어간다(소고 줄이 그대로 뒤로 물러서기도 한다). 상쇠는 소고들을 밀어내고 상쇠놀음을 한다.	상쇠놀음 - 퍼넘기기를 하며 소고 앞으로 다가가 밀어내고 돌사위로 맞은편 악기 쪽으로 가서 너슬질을 한 번 한 후, 버꾸쪽으로 큰 반원을 그려 뛰어 가며 너슬을 크게 두세바퀴 돌리다, 오른쪽 어깨에 둘러메고 돌사위로 마당을 한 바퀴 이상 돌아 중앙에서 버꾸를 보고 좌우로 어루다가 제자리 연풍대 끝에 오른쪽 짝음상으로 복상을 세운 채 돌던 방향의 반대로 한두 바퀴를 돌고 부쇠에게 가서 가락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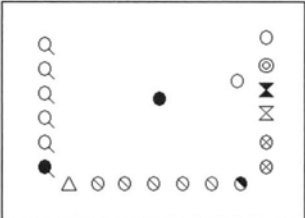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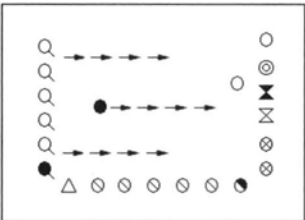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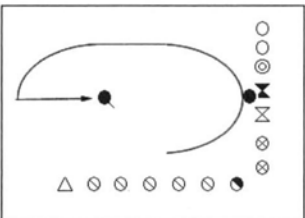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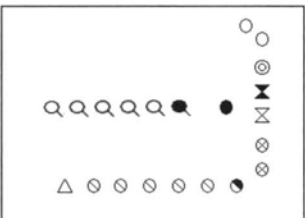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 및 형식

	판 그림	판 흐름	내 용
당 산 별 림		무등패가락→자존무등패가락→자존가락→엮어배기	
		부쇠나 수버꾸 앞에서 무등패가락을 조금 빠르게 낸다. 버꾸는 무등패가락에 맞춰 사사를 치면서 8자를 그리며 뛰다가 끝치배(끝북) 앞에서부터 연풍대로 들어간다. 자리를 잡은 뒤에는 사사를 친다. 상쇠와 부쇠는 무등패가락을 치며 치배과 버꾸줄 사이에서 '짝쇠놀이'를 치고, 쇠발림과 북상놀음을 다양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제자리 연풍대로 맺은 다음 자존무등패가락으로 넘어간다.	'짝쇠놀이' - '삼채짝쇠', '짝쇠', 등으로 부르며 원 안에서 상쇠와 부쇠가 서로 가락과 부포짓을 주고 받으며 놀다가 다음가락으로 넘어간다. 개인놀음 상쇠는 무등패가락에 좌우로 짝음상과 네모잡이(사방치기, 이슬털기)를 하고, 돌사위원을 한바퀴 돌아 부쇠 앞에서 엮어배기(짝쇠)가락을 내준다.
		버꾸는 자존무등패가락에 맞춰 사사를 치다가 상쇠의 맺는 가락에 맞춰서 반원으로 물러선다(이때 상모는 돌리지 않고 소고만 친다).	
		상쇠는 자존가락을 내서 개인놀음 을 하고 들어가면서 엮어배기가락을 내주면 그 가락을 신호로 버꾸들은 반원에서 원으로 만들면서 원이 다 만들어지면 돌림버꾸를 한다.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 및 형식

	판 그림	판 흐름	내 용
당 산 벌 림	  	엮어배기→신호가락→쉬는가락→자준가락→난타 이때 끝치배(끝북)앞에서 끝버꾸가 옆걸음으로 사물을 마주보며 양상을 치며 들어가 한 줄로 선다. 버꾸는 양상을 제자리에서 치다가 상쇠의 신호가락에 맞춰 양상→찍음상을 2회 반복하고 사사를 친다. 이때 무동은 오른쪽→왼쪽으로 한바퀴씩 돈다. 신호가락을 뒤에 다듬이 장단을 치고 마지막으로 자준가락에 맞추어 버꾸들은 솟음버꾸를 치고 상쇠는 돌사위를 한다. 가락을 맺는 순간에는 돌던 방향의 반대쪽으로 돌며 부포를 세워 나오며 난타를 쳐 다시 당산을 벌린다.	
당 산 벌 림 2	 	난타→무등패가락 상쇠가 난타로 당산을 벌려 놓은 후 쇠놀음을 한 번 한 뒤, 무등패가락을 내서 채발림으로 작은 원을 그린 후 소고들 중앙에서 마무리하고 신호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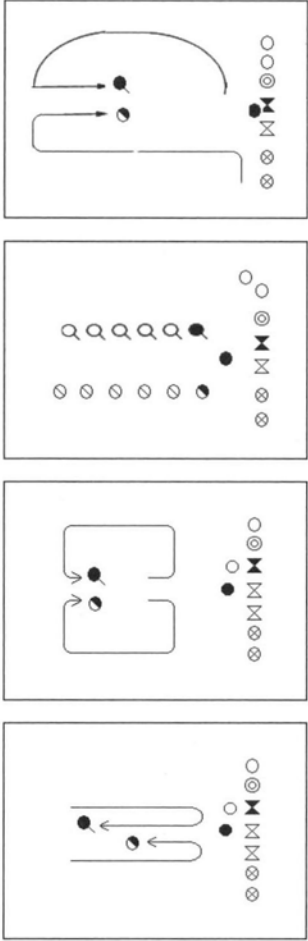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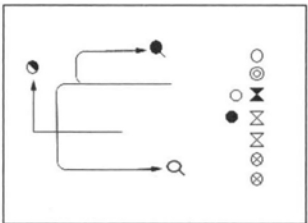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 및 형식

	판 그림	판 흐름	내 용
당 산 벌 림 2		무등패가락 가락신호를 주면 버꾸들은 허튼상을 치며 네걸음 앞으로 나와 신호에 맞춰 제 자리에 앉아서 허튼상을 친다.	네걸음 - 왼발을 먼저 딛고 오른발이 따라가는 형태로 움직인다. 찍금놀이 - 찍금 놀이는 세 번 반복하며 오른손→왼손→양손의 순으로 진행한다. 한 번 한 번의 호흡을 네 장단 동안에 좌우새를 긴호흡에서 짧은호흡으로 몰아간다.
		상쇠의 신호로 찍금놀이를 한다. 동작 사이사이에 허튼상을 치고 상쇠가 가락을 주면 동작에 들어간다(무동들과 같이 하며 부쇠 이하 치배들은 계속해서 가락을 쳐 준다). 동작 사이사이에 상쇠의 신호로 허튼상 네장단을 치고 이때 상쇠도 가락을 치며 북상놀음을 한다.(마지막 세 번째 양손 찍금놀이를 할 때 상쇠의 종이 북상이 뒤에서 앞으로 세운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움직여주며 버꾸와 함께 찍금놀이 동작을 취한다.	
		무등패가락 상쇠의 신호 후, 버꾸들은 외줄백이(한 줄)대형을 만든다. 상쇠는 북상을 고정시킨 채 너슬질만 하며 일렬로 버꾸들을 달고 나온다.	
		상쇠는 가락을 특히 여유있게 내서 버꾸들이 깨금발로 경쾌하게 위로 솟구치며 허튼상으로 나올 수 있게 한다. 상쇠가 신호하면 앉았다 일어서기를 두 번 한 후 좌우치기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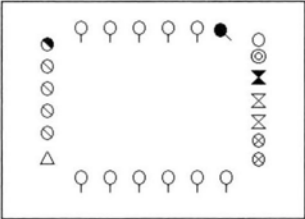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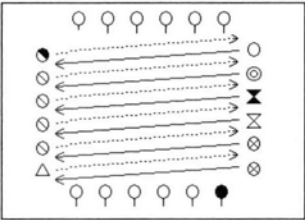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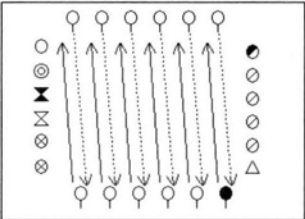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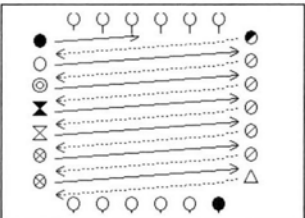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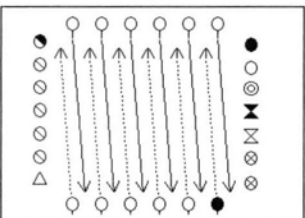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 및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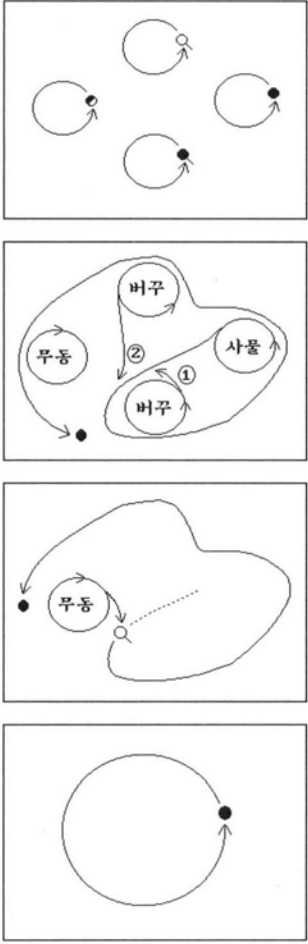
	판 그림	판 흐름	내 용
버 꾸 좌 우 치 기		무등패가락 외줄백이의 한 줄에서 빠르게 원을 만들기 위해 앞의 버꾸들은 앞의 버꾸들을 따라가지 않고 중간버꾸는 줄의 밖으로 끝버꾸는 뒤로, 상버꾸는 앞으로 가는 식으로 빠르게 원을 만든 뒤 좌우치기를 한다. 좌우치기는 외상을 치며 오→원→오 순으로 연결음친 뒤, 나비상을 치면서 뒤→앞을 3회 반복한 다음 바로 원을 반대로 뒤집어서 좌우치기를 한 번 더 한다. 처음 원을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간버꾸는 원의 반대로 가로 상버꾸와 끝버꾸는 서로 만나 빨리 원을 만든다. 원이 다 만들어지면 외상을 치며 원→오→원 순으로 연결음친 뒤, 나비상을 치면서 뒤→앞을 3회 반복한다. 이때 상쇠는 무등패가락을 조금 많이 몰아 박진감이 생기게 한다.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 및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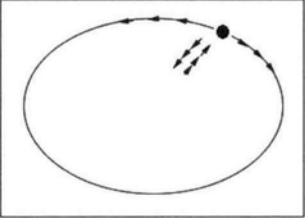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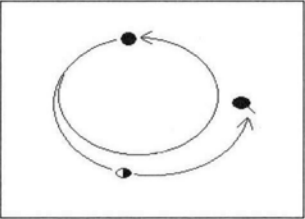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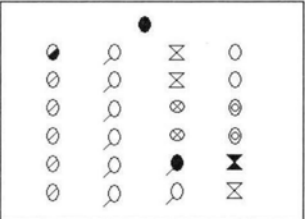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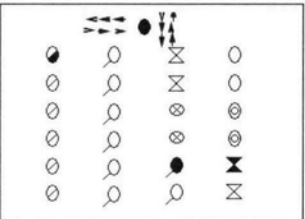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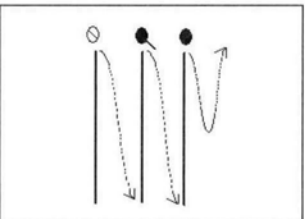
	판 그림	판 흐 름	내 용
당 산 벌 림 2		무등패가락 버꾸가 다시 한 줄로 외줄백이와 같은 대형을 만들고 이때 무동이 나와 버꾸와 무동 두 줄을 만든다(버꾸와 상쇠의 동작은 외줄백이와 같다). 버꾸줄-무동줄의 순서로 각각 두 번씩 앉았다 일어선다(처음에는 버꾸줄만 앉고 무동줄은 서 있다. 다음에는 무동줄이 앉고 버꾸줄은 선다. 이를 두 번 되풀이한다). 이를 쌍줄백이라 한다.	쌍줄백이 - 번갈아 앉는 모습이 마치 절구 찌는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이를 절구버꾸 또는 절구댕이 버꾸라고도 한다 (이를 밀버꾸라 부르기도 하는데, 보통 마지막 부분의 버꾸들이 양상을 치며 밀고 당기는 모양을 밀버꾸라 하나 여기서는 버꾸들이 앉고 서 있는 모습이 보리와 밀의 모양을 나타낸다고 하여 밀버꾸라 하기도 한다). 무동 두 줄 - 중버꾸가 뛰어나와 두 줄(수버꾸줄과 중버꾸줄)을 만들거나, 한 줄로 들어오다가 상버꾸 부버꾸의 순서로 하나씩 나뉘어 나눴진의 형태로 두 줄을 만들기도 한다.
사 통 백 이		무등패가락 버꾸와 무동이 한 번 헤어졌다 만난다. 중 버꾸가 나와 수버꾸와 반대편에 서고 무동은 사물을 마주보고 선다(무동이 없으면 사물의 반이 버꾸 뒤를 따라서 맞은편으로 간다).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 및 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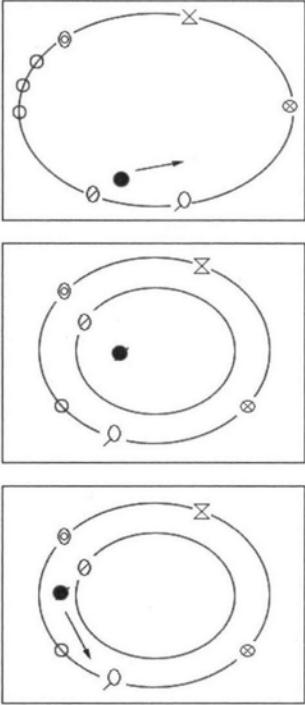
	판 그림	판 흐름	내 용
사 통 백 이			
		무등패가락	
		사각형의 진을 만든다	
		치배와 무동, 수버꾸줄과 중버꾸줄이 서로 번갈아 가새치기로 교차한다(버꾸의 두 줄이 만날 때는 만나는 지점에서 다 함께 나비상을 하기도 한다).	
		두 번 반복 후에 각각 사방에 작은 원을 만들어 연풍대 및 발차고 돌기를 한다.	

	판 그림	판 흐름	내 용
사 통 백 이		무등패가락 사물부터 원을 풀어 사방의 원을 하나씩 순서대로 감싸며 크게 하나의 원을 만든다. 힘차게 뛰기도 하고 여유있게 걸기도 하며 원진이 만들어지면 상쇠의 신호 가락으로 무등패가락을 맺고 다 함께 원 안을 향한다.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 및 형식

	판 그림	판 흐름	내 용
원 형 좌 우 치 기	 	무등패가락→좌우치기가락→난타→좌우치기가락→무등패가락 상쇠의 신호 가락으로 무등패가락을 맺고 다함께 원 안을 향한 뒤 자존가락에 맞춰서 양상을 치고 좌우치기가락에 맞춰 좌우치기를 시작한다. '오→원→앞→뒤' 로 세 걸음씩 움직이는데 이 때 발은 왼발이 가고 오른발은 따라가는 형태로 움직인다. 상모는 허튼상(빠른 사사)을 친다. 마지막에 난타를 치며 상쇠가 자리를 잡으면 모든 치배는 자기 자리를 찾아 상쇠 앞으로 빨리 움직여 네 줄을 만든다.	
네 줄 백 이 좌 우 치 기	  	네 줄을 만든 뒤 난타에 맞춰 버꾸는 일사로 어르다 가락을 맺고 다시 자존가락을 내어 양상을 치고 좌우치기 가락에 맞춰 좌우치기를 시작한다. 이전과는 반대로 '원→오→뒤→앞' 으로 각기 세걸음을 허튼상(빠른 사사)으로 친다. 이때 마지막 장단을 반 배 늘어지게 하여 무등패 가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한다. 무등패 도입가락을 친 뒤 진을 풀어 원진을 만든다. 네 줄을 풀 때에는 앞줄에 있는 치배줄과 무등줄이 먼저 뒤로 향하여 뛰어가며 풀고 그 뒤를 나머지 줄이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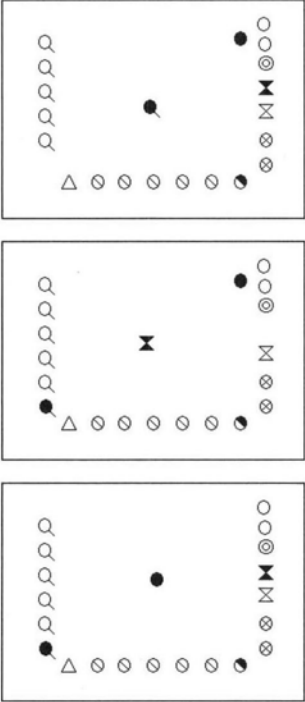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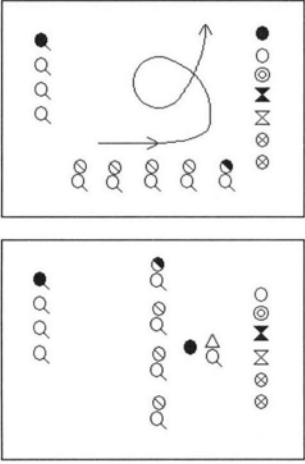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 및 형식

	판 그림	판 흐름	내 용
찍 찍 이		무등패가락→찍찍이→풍년가락→짚지패가락→무등패가락 무등패가락을 치면서 진을 풀다가 원진이 만들어지면 무동이 원안으로 들어가 따로 원을 만들면 상쇠가 찍찍이 가락의 신호가락을 내준 뒤 찍찍이로 넘어간다. 찍찍이 가락을 세 번 치고 상쇠의 신호로 풍년가락(굿거리배)으로 넘어가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춘다(타령 두장단에 안과 밖을 보며 춤을 추고 '더러라...'에 잦은 걸음으로 원을 돈다). 풍년가락을 세 번 친 뒤 상쇠의 넘김장단에 의해 짚지패가락으로 넘어가서 가락과 춤으로 자연스럽게 놀다 무등패가락으로 넘어간다.	짚지패가락 - 지금은 굿거리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술 먹고 놀 때 치는 가락이라 해서 짚지패가락이라고 했다. - 안장국씨 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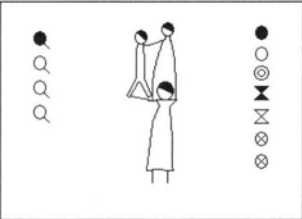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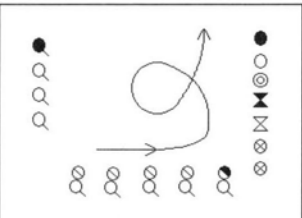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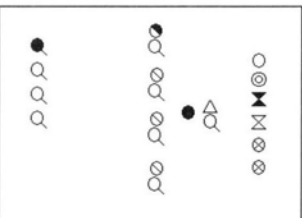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 및 형식

	판 그림	판 흐름	내 용
마 당 놀 이			
		무등패가락→자존무등패가락→자존가 락→엮어배기→쉬는가락→자존가락	
		무등패가락을 치다가 자존무등패가락 으로 넘어가면 버꾸들이 원 안으로 들 어와 원을 만든다. 자존무등패가락을 땃고 자존가락에 버꾸는 제자리에서 양 상을 치배는 외사로 원진을 돈다.	밀버꾸 - 보통 밀버꾸시 왼발 로 밀고 나가고 오른발 따라붙 는 형식이고, 밀버꾸가 시작되 면 수버꾸줄은 바로 밀고 다음 장단에 당기며, 중버꾸줄은 한 장단 제자리에서 있다가 다음 장단부터 '한 장단 밀고, 한 장 단에 당기는 것' 을 반복하면 된다.
		엮어배기에서 허튼상을 자유롭게 치다 가, 다듬이 장단에 버꾸끼리 대형을 정 비하여 마지막 자존가락에 버꾸들은 돌 림버꾸를 치다가 수버꾸줄과 중버꾸줄 이 둘로 나뉘어 양상을 치며 서로 밀고 땃기는 몸짓을 하다가 솟음 버꾸로 마 무리짓는다(치배들은 옆걸음질에서 연 풍대로 마무리짓는다).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 및 형식

	판 그림	판 흐름	내용
개 인 놀 이		다시 당산을 벌린 후 버꾸놀이, 장구놀이, 상쇠놀이, 무동놀이, 열두발 등으로 짤 수 있다.	
무 동 놀 림		자존가락 단무동은 주로 버꾸잡이들이 무동을 하나씩 어깨에 올려서 자존가락 장단에 판 중앙으로 뛰어 나온 후 제자리에서 연풍대를 돌다 자존가락을 맺고 무동패가락이 시작되면 서로 마주보며 무동춤을 춘다.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 및 형식

	판 그림	판 흐름	내 용
무 동 놀 림		〈맞무동〉 맞무동은 단무동을 한 다음 무동을 탄 위의 중무동이 새미를 안고 밀동이 새미의 발목을 잡고 기량을 보이며 무동 춤을 춘다. 〈삼무동〉 밀동 위에 중무동을 올리고 중무동이 새미를 어깨위로 올린다. 〈곡마단(오무동)〉 삼무동과 같은 요령으로 삼무동을 만든 후 밀동 옆구리에 무동 두 명을 양쪽으로 붙여서 만든다. 이때 중무동이 새미의 다리를 천으로 돌려 입으로 물고 양 옆에 붙는 무동들의 손을 잡아준다. 옆에 붙는 무동은 밀동의 허리에 한 쪽 다리를 붙이고 밀동은 양옆에 붙은 무동들의 허리춤을 잡아준다. 오무동이 완성되면 가락을 자존가락으로 힘차게 몰아준다.	
열 두 발 놀 음		자존가락 장단에 두루걸이를 하며 판으로 나온 후 무등패 가락에 앉은사위, 뒤집기, 옆눕기, 양반다리, 손집고 다리 뛰기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놀음을 논 후 자존무등패가락에 일어서서 열두발의 초리를 세워 양사위 돌리기를 하다 자존가락으로 넘기면 다리사위, 앉을사위 등을 하며 놀음을 논다.	
인 사 / 퇴 장		무등패가락→원을 만들어 서서 안, 밖으로 자존가락에 양상을 치고 인사한 뒤 퇴장한다. 또는 뒷풀이나 난장을 트기도 한다.	

6.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가락보

점고

	1	2	3	2	2	3	3	2	3	4	2	3	5	6	7	8	9...	...
북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
	등	등		등	등		등		등		등							...

난타

	1	2	3	2	2	3	3	2	3	4	2	3	5	6	7	8	9...	...
쇠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
징	징			징			징		징		징		징					...
장고	덩			덩			덩		덩		덩		덩	덩	덩	덩	덩	...
북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

인사가락

	1	2	3	2	2	3	3	2	3	4	2	3	6	2	3		
쇠	갱	갱		갱	갱		개개	갱	갱	갱		객	갱				
징	징						징						징				
장고	덩	덩		덩	덩		더더	덩	덩	덩		딱	궁				
북	등	등		등	등		두두	등	등	등		딱	등				

자존가락<휘모리>

	1	2	2	2	3	2	4	2	
쇠	갱		갱		갱		객		① 상쇠 내는 가락
	갱	그	랑	그	랑	그	랑		② 다는 가락
	갱		갱		갱		객		③ 신호가락
	갱		개	갱	갱		개	갱	④ 엮어배기
	개	개	개	갱			개	갱	
	갱		갱		갱		객		⑤ 신호가락
	갱		개	개	갱		개	개	⑥ 다드미가락(상쇠)
	웃	지	개	개	웃	지	개	개	(부쇠)
	갱		갱		갱		객	개	⑦ 신호가락
	갱	그	랑	그	랑	그	랑		
징	갱		갱		개	개	갱		⑧ 맺는가락
	갱				개	개	갱		
	갱								
	징								① 징은 자존가락에서 일정하게 친다
	징								② 맺는가락
장고	덩		덩		궁	딱	궁		① 내는가락
	궁	딱	궁	다	궁	딱	궁	다	② 다는가락(2:2)
	덩		다	다	궁	딱	궁		③ 엮어배기
	따	구	궁	딱	궁	딱	궁		
	궁	딱	궁	다	궁	딱	궁	다	④ 다드미가락(1:3)
	궁	딱	궁	다	궁	딱	궁	다	⑤ 다는가락(2:2)
	덩				궁	딱	궁		⑥ 맺는가락(상쇠의 첫 번째 신호장단 뒤)
	덩								
북	둥				두		두		① 북은 자존가락에서 일정하게 친다
	둥				둥				② 맺는가락(상쇠의 첫 번째 신호장단 뒤)
	둥								

무등패가락<자존모리>

<도입가락1>

	1	2	3	2	2	3	3	2	3	4	2	3	
쇠	갱		지	갯		지	갱		지	갯		지	① 내는가락 ② 도입장단
	갱		지	갯		지	갱		지	개	갱		
	갱		갱	개	갱	개	갱		지	개	갱		
	개	갱		개	개	개	개		지	개	개		
	갱			개	개	개	개		지	개	개		
징	징												① 도입장단(상쇠의 내는가락을 들은 후)
장고	덩			덩			덩		더	공	따		① 도입장단(상쇠의 내는가락을 들은 후)
	덩			덩			덩		더	공	따		
	덩		덩		덩		덩		더	공	따		
	더	덩		더	덩		더		더	공	따		
	덩			더	더	더	덩		더	공	따		
북	둥			둥			둥		두	둥			① 도입장단(상쇠의 내는가락을 들은 후)
	둥			둥			둥		두	둥			
	둥		둥		둥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두		두	둥	둥		
	둥			두	두	두	둥		두	둥	둥		

<도입가락2>

	1	2	3	2	2	3	3	2	3	4	2	3	
쇠	갱		지	갯		지	갱		지	갯		지	① 내는가락 ② 도입장단 ×2
	갱		지	갯		지	갱		지	개	갱		
	갱		지	개	갱		갱		지	개	갱		
징	징												① 도입장단(상쇠의 내는가락을 들은 후)
장고	덩			덩			덩		더	공	따		① 도입장단(상쇠의 내는가락을 들은 후) ×2
	덩			덩			덩		더	공	따		
	덩			덩			덩		더	공	따		
북	둥			둥			둥		두	둥			① 도입장단(상쇠의 내는가락을 들은 후) ×2
	둥			둥			둥		두	둥			
	둥			둥			둥		두	둥			
	둥			둥			둥		두	둥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 및 형식

무등패가락<기본가락>

	1	2	3	2	2	3	3	2	3	4	2	3	
쇠	갱		지	갱		지	갱		지	개	갱		여러장단을 돌려가며 친다.
	개	갱		갠		지	갠		지	개	갱		
	갱		지	개	갱		갠	그	라	개	갱		
	개	갱		갠	그	라	갱	그	라	개	갱		
징	징												항상 일정하게
장고	덩		구	궁	딱	구	궁	딱	구	궁	딱		양장고로 친다(궁편)
	딱	궁		궁	딱	구	궁	딱	구	궁	딱		(채편)
북	둥		두	둥		두	둥		두	둥			항상 일정하게

도드래가락<육채>

	1	2	3	4	2	2	2	3	4	2	
쇠	그라		갱	그	라	갱		개	갱		한 장단내고 이어친다.
징	징										상쇠의 장단을 하나듣고
장고	덩		덩		더	덩		더	덩		상쇠의 장단을 하나듣고
북	둥		둥		두	둥		두	둥		상쇠의 장단을 하나듣고

도드래넘기는 가락

	1	2	3	2	2	3	3	2	3	4	2	3	
쇠	갠	지	개	갠	지	개	갠	지	개	갠	지	개	상쇠가 가락을 몰아간다.
징	징						징						
장고	덩	구	더	덩	구	더	덩	구	더	덩	구	더	
북	둥	두	둥	둥	둥	두	둥	둥	둥	두	둥	둥	

길가락(걸어다닐 때)

	1	2	3	4	5	2	2	3	4	5	3	2	3	4	2	3	5	2	3	4	5
쇠	갱	지	개	갱	지	갱	지	개	갱	지	갱	지	개	갱	지	개	갱	지	개	갱	지
징	징					징					징				징						
장고	덩		더	덩		덩		더	덩		덩		더	덩		더	덩		더	덩	
북	둥		두	둥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두	둥	

	6	2	3	4	5	7	2	3	4	5	8	2	3	4	5
쇠	갱	지	개	갱	지	갱	지	개	갱		개				
징	징					징									
장고	덩		더	덩		덩		더	덩		덕				
북	둥		두	둥		둥		두	둥		둑				

자존길가락(명석을 말 때)

	1	2	3	4	5	2	2	3	4	5	3	2	3	4	2	3	5	2	3	4	5
쇠	갱	지	개	갱	지	갱	지	개	갱	지	갱	지	개	갱	지	개	갱	지	개	갱	지
징	징					징					징				징						
장고	덩		더	덩		덩		더	덩		덩		더	덩		더	덩		더	덩	
북	둥		두	둥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두	둥	

	6	2	3	4	5	7	2	3	4	5	8	2	3	4	5
쇠	갱	지	개	갱	지	갱	지	개	갱		개				
징	징					징									
장고	덩		더	덩		덩		더	덩		더	덩			
북	둥		두	둥		둥		두	둥		두	둥			

V.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 및 형식

잔지패가락(굿거리)

	1	2	3	2	2	3	3	2	3	4	2	3
쇠	갱		갱	갱	라	갱	갱	라	갱	개	갱	개
	갱	개	갱	개	개	갱	갱	라	갱	웃	갱	개
	갱	라	갱	갱	라	갱	갱	라	갱	개	갱	개
	갱	개	갱	개	개	갱	갱	라	갱	웃	갱	개
징	징											
장고	덩	다기	닥	궁	다기	닥	궁	다기	닥	궁	따	다
	덩	다기	닥	궁	다기	닥	궁	다기	닥	궁	딱	
북	둥			둥			둥		둥		둥	

버꾸좌우치기가락

	1	2	3	2	2	3	3	2	3	4	2	3
쇠	갱		지	개	갱		갱		지	개	갱	
	개	갱		갱		지	갱			객		
징	징						징					
	징											
장고	덩	다기	닥	궁	다기	닥	궁	다기	닥	궁	따	다
	덩	다기	닥	궁	다기	닥	궁	다기	닥	궁	딱	
북	둥			둥			둥		둥		둥	

원형좌우치기가락, 네줄배기좌우치기가락

	1	2	3	2	2	3	3	2	3	4	2	3	
쇠	갱			객		개	갱	그	라	객	개		① 신호가락
	갱			객		개	갱	그	라	객	개		② 모는가락(×3)
	개	갱		갱		개	갱			객			③ 땃는가락
징	징												상쇠의 신호가락을 들은뒤×4
장고	덩			덩			궁		딱	궁			상쇠의 신호가락을 들은뒤×4
북	둥			둥			둥			둥			상쇠의 신호가락을 들은뒤×4

찍찍이(내는 가락)

	1	2	3	2	2	3	3	2	3	4	2	3	
쇠	갱		그라	갱		그라	갱		그라	개	갱		×2번 반복
	갱			객		객		객		개	객		
장고	덩		파궁	덩		파궁	덩		파궁	덩	덩		×2번 반복
	덩			딱		딱		딱		따	딱		
북	둥		두둥	둥		두둥	둥		두둥	둥	둥		×2번 반복
	둥			딱		딱		딱		따	딱		

찍찍이(맺는 가락)

	1	2	3	2	2	3	3	2	3	4	2	3	
쇠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갱		
장고	덩	덩	덩	덩	덩	덩	덩	덩	덩	덩	덩		
북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둥		

타령가락 1

	1	2	3	2	2	3	3	2	3	4	2	3	
쇠	갱			객		객	갱	지	객	얼		쭈	×2
징	징												×2
장고	덩			딱		딱	덩	기	딱	얼		쭈	×2
북	둥			딱		딱	둥		딱	얼		쭈	×2

타령가락 2

	1	2	3	4	5	6	2	2	3	3	2	4	2	5	2	3	6	2	3	7	2
쇠	개	개	개	개	...	...	갱		개	갱		갱		갱		개	갱		개	갱	
징	징						징														
장고	더	러	러	러	...	...	덩		더	덩		덩		덩		더	덩		더	덩	
북	두	루	루	루	...	...	둥		두	둥		둥		둥		두	둥		두	둥	

- 김원민

여 백

VI. 맺음말

이상에서 역사적 측면, 현황, 구성과 형식의 측면을 바탕으로 월미두레풍물놀이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월미두레풍물놀이 역시 경기도 두레풍물놀이의 전체적인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두레싸움이나 두레파작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다른 월미두레풍물만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월미두레풍물놀이는 일제시대 강한 제약을 받으며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다 해방 이후 6·25전쟁 이후 60년대 이전까지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인근지역의 하중동, 장현동, 월곶동, 금이동 등에서도 두레풍물놀이가 잘 이루어졌다. 이것은 곧 패의 구성이나 판제가 잘 짜여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월미두레풍물놀이는 유랑광대였던 김맹식씨가 마을에 정착하면서 전환의 계기를 맞게 된다. 즉 향인 광대의 유입을 통해 월미마을 풍물놀이의 수준이 한 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유랑광대의 정착화로 인한 두레풍물놀이의 변화를 알려주는 것으로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유랑광대의 정착화는 월미두레풍물놀이의 구성을 한 단계 높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안장국씨에 의해 미약하나마 현재까지 마을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한편, 월미두레풍물놀이는 농경사회의 경쟁의식이 두레싸움을 통해 나타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두레싸움이라는 것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의식은 배타의식이 아니었다. 이러한 경쟁의식은 농경사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결국에는 부락민들의 화합의 식으로 융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두레싸움으로 인해 촉발된 경쟁의식은 두레파작이라는 대동 한마당을 통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함께 모여 노동의 고됨을 이야기하고, 두레풍물놀이를 통해 그것들을 씻어내고 다음의 노동을 기약했던 것이 바로 월미두레풍물놀이의 두레파작이었던 것이다. 다시말해 월미두레풍물놀이는 부락민들간의 화합을 이루어냈던 슬기로운 민속놀이인 것이다.

월미두레풍물놀이는 1960·70년대 근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점점 쇠퇴해갔고 현재는 단절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것은 비단 월미두레풍물놀이만의 경우는 아니며, 우리 문화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정보화와 개인화로 인한 도시와 지역의 차이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전통의 단절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제라도 월미두레풍물놀이의 복원과 재현을 통해 후손들에게 몇몇이 물려줄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적 자산을 발굴 보존하여 잃어버린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 ◎ 범례 : 구연자의 구연 내용을 원음 그대로 적고, 필요한 경우에는 () 안에 그 말의 뜻이나 한자를 적어 이해를 돕게 하였다. 그리고 조사자가 질문한 내용이나 옆에 있던 사람이 한 말은 () 안에 적었다.

자료 1. 안장국씨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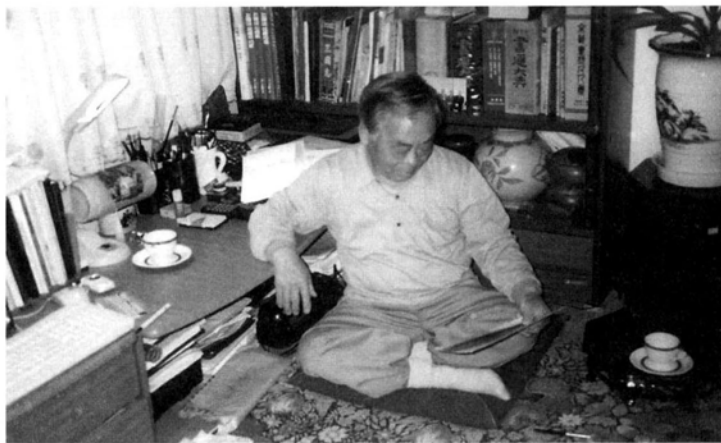


사진 1. 안장국씨

- 채록일시 : 2003년 4월 23일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 구 연 자 : 안장국(남, 76세, 국졸, 목감동 노인회장)
- 주 소 : 시흥시 물왕동 372-2
- 나서 자란 곳 : 상동
- 채록장소 : 제보자 자택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박용민 시흥문화원장님 이하 여러 제보자의 제보 중에 안장국씨가 상쇠를 맡아서 했다는 제보와 안장국씨의 아버지 안기성씨가 월미 지역의 두레풍물에 많은 후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사를 하게 됨.

(조사자 : 해방 전의 월미 농악은 어떠했습니까? 들으신 것은 없으신지?)

저의 할아버지가 생전에 태어나셔서 자라나실 적에 있었나본데, 그렇게 세계는 못했었나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태어나셔서 20세 전후에 결혼하시고 나서 성황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전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김맹석씨라고 남사당패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머리를 길게 땅아가지고,

(조사자 : 이 동네 사시던 분은 아니셨나봐요?)

우리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에 있어라. 이 동네에 붙잡아 둔 분이 우리 아버지였어요. 팽과

리를 잘 쳤어요. 그때부터 월미농악이 잘 쳤어요. 저도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 당시의 후원은 우리아버지가 하셨어요. 정미소도 여러 개 하셨으니까. 그 당시 성황될 때, 걸립을 꾸며요. 정월 초하루 날부터 세배를 당기면서 절을 하고, 초사흘 쯤 되면 집집마다 댕기는 거라. 조금 난 사람은 한 말, 말로. 수저하고 꽃아서 놀면서. 선보름을 댕기며 놀아요. 동네에서 제일 낫대는 집에 가서 마지막에 노는 거라. 깃대를 꽃아놓고 놓고. 하루종일 우리 집에서 놀았어요.

(조사자 : 일제 때지요? 그러니까 이런 풍습이?)

그렇지요. 그것이 조금 성황이 되니까 군에서 알선을 받아서 대통령 탄신 기념일에 올라갔어요.

(조사자 : 그때가 언제지요?)

해방되고 나서 육이오 나기 전이지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집권하고 나서 탄신기념일하고 그럴 때이지요. 그리고 나서 육이오 때는 피신 댕기느라고 숨어 있었지요. 전에 월미가 성행했었지요. 좋은 성과는 못 올렸어도 근처에서도 유명했지요.

월미 농악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유명했지만 지금은 그렇지요.

(조사자 : 깃발이 어떤 형태였나요?)

지네발을 달았었지요. 예전에 쓰던 것이 있었는데, 보존을 잘 못해서 흐늘흐늘해서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진이라도 찍어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사자 : 복식은 어땠나요?)

옷 입으면 가사만 매지. 지금 같지는 않았습시다. 처음에는 한쪽으로만 매다가 개화된 다음에부터 양쪽으로 띠를 둘렀습시다.

(조사자 : 월미 농악을 할 때도 영기가 있었나요?)

그 때는 없었지요. 예전에는 상쇠를 쳐도 12채를 쳤었지요. 예전에는 12채를 치는 사람이 상쇠라고 했어요. 예전에 강업동이라는 분이 계셨지요. 한 생존했으면 120세 정도 되었지요. 그 양반 같은 분들이 상쇠 치는 것을 어렸을 때 보면 아래에다 대고 슬쩍슬쩍 굽어 쳤지요. 예전에는 싸움이 심했어요. 괜히 기가 꺾히면 10개, 여덟 개, 7개 꺾히지요. 월미가 꺾으면 다 보이지요. 야 한 번 합구 쳐서 놀자. 저쪽에서 받아주면 놀자. 이게 두레싸움이지요. 이게 서로 합의를 해서 놀다가 좋게 헤어지면 좋은데. 안 받아주면 쫓아가서 싸우지요. 합구치고 정구를 올려주면 좋았지요.

그리고 예전에는 논을 호미로 다 매고, 손으로 풀을 뜯고 흙치고 그럴 때 힘드니까 농악을 논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동네에서 제일 부자다. 그래서 우리 일 할 때는 다른 집 일은 안 해요. 우리 집은 먹고 살만 한니까 20명 필요할 때 25명 정도 해도 세 네 명은 농악 치며 놀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여름 농사가 끝나면 두레파작이라고 해요. 두레가 다 끝났다 그런 의미지요. 동네에서 한 두 동네를 초청해서 합구 치면서 놀기도 하고, 아니면 동네사람들끼리 올라가서 하루 종일 놀지요. 그러면

그때는 놀고 먹고 그리고, 뒷동산 같은데 가서, 영좌님 집에 가서 한 번 놀아주고.

(조사자 : 영좌님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지요?)

여자털은 영좌를 못 봐요. 이 동네에서 남자로서 제일 연령이 많은 사람. 영좌라고 그러지요.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따지지 않고.

(조사자 : 특별하게 굿을 한 번 하는 건가요?)

두레파작이 끝나면 영좌님네 집으로 갔어요. 두레파작에서 두레 마당이 끝나면 영좌님 집에 남녀 구분 없이 다 찾아가서 하루종일 먹고 마시면서 특별하게 굿을 하는 거지요. 영좌는 한 동네에서 100세의 여자가 있다 하더라도 영좌가 못 되고 나이가 적은 80세라도 남자라야만 될 수 있어요. 예전 풍습이 이러했습니다.

영좌님 집에서 굿을 하고 놀 때는 그 집 자손들은 사례금보다는 술상을 하나 봐서 한 잔씩 돌려가며 먹곤 했지요. 이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진 지가 6·25 사변 나고 1·4 후퇴해서 전부 가고 보니까 전부 쇠퇴되고 없어졌는데.

(조사자 :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가락은 다 가지고 계시지요?)

월미 동네의 농악이 지금까지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은 다 죽었지만. 남은 내 친구들이 징을 치고 내가 상쇠를 맡고 수만이는 북을 쳤습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 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골 농악이 어떻다는 것만 알고 그대로만 쳤지 이 사물놀이 모양으로 딱딱 끊어서 그런 식의 농악은 안 배웠어요.

길가락을 치고 가다가 이 집 마당에서 한바탕 놀아야겠다 싶으면 길가락을 치고 가다가 딱딱 끊다가 거기서 가락을 돌려요. 그러다가 자진가락으로 돌아가면 벌써 먼데서 저 농악이 어디 온다 하지. 마을 사람들이 직접 굿에 참여하지 않아도, 멀리서 귀로 들을 때면, 지금 굿이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디어디에서 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가락을 듣고 어디 쯤에 있구나 하고 알 수 있지만, 지금의 사물놀이는 자꾸 돌리기만 하니까 (어디에) 가는지 오는지 모릅니다.

(조사자 : 찐지 가락인지 무등배 가락인지 이름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은 용어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이것을 무등배가락이라 했지요. 길가락, 자진길가락, 한가지를 치고 갈 때 지금 걸어가는 구나 가만히 앉아있어도 지금쯤 두레패가 어디로 가는구나, 방안에 앉았어도, 자진배가락으로, 딱 돌아갔을 때는 어디서 재미있게 노는데. 가다가 무등배가락으로 싹 돌려 놓으면 '아이고 술 한 잔 했구나' 하고 알고, 다음에 '찐지배가락'이면 술술 놀고 가는 구나. 잘들 놀고 가는구나. 하고 가락만 쳐도 간다, 온다, 쉬었다. 논다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풍물은 가까운 사람은 보기 좋게, 멀리 있는 사람 듣기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소리만 들어도 가는구나, 오는구나, 노는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지금 한가지 아쉬운 점은 요즘은 나만 잘 살려고 하지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몰라요. 예전에는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울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풍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돈을 주고 2년씩 가르쳐도 내가 보기에 어떻게 저렇게 했나 싶어요. 목감동 체육대회 때도 잘 놀지 못하고 재미가 없어요.

나한테 농악을 가르쳐 준 김맹식 씨 때문에 이 동네 풍물이 발전했습니다. 농악놀이 그러면 월미라고 소문이 났어요. 지금도 소문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맹식 씨는 쇠를 참 잘 쳤어요. 둘째가라면 서러워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잘 굴리고 재요. 들볶고 쳐야 신도 나고, 또 상쇠가 쇠를 잘 굴려야 뛰는 자 연히 잘 따라옵니다.

후남이라고 그 양반하고 강북남씨하고 넷이만 들어가면 팽과리가 있으나 없으나, 내가 배울 때에도 탄복을 했으니까. 뒤에서 북이라는 사람이 애꾼데, 북만 쥐면 저쪽에서 북을 어떻게 치는지는 보지도 않고 상쇠치는 것만 보고도 맞췄습니다. 징은 박원봉 씨가 쳤는데, 두 번 세 번만 보고도 틀림없이 맞췄어요. 5·60년 전에 양장구를 치는 사람은 강북남 씨 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잘 쳤어요. 그 사람들 넷만 들어가면 이 시흥군에서 더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시고,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더니, 맹식 씨가 맨 마지막으로 시흥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조사자 : 혹시 좀 놀다가 개인놀이 같은 것 좀 하고 그랬나요? 북구는 북구대로 나와서 놀고, 장구는 장구대로 놀고.)

장구는 장구대로 놀고, 북구는 북구대로 노는 개인적인 놀이는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째미 한 패, 소고 한 패, 북구도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저렇게 갈라서고, 예전엔 6북구가 있었습니다. 북구를 둘로 더 넣으면 8북구가 되는데, 넷 씩 갈라서 북구째이들끼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오방진(동, 서, 남, 북, 중앙)을 길가락에 맞추어 명석말이 형태로 말았다, 풀었다 하면서 마치 군사들이 훈련하듯이 했어요.

그렇지만 시합에 나갈 때는 꼭 한 명만 나갑니다. 둘이 치면 아무리 잘 치는 사람이라도 손이 맞지 않으니까. 채편 소리가 북편 소리보다 사뭇 작습니다. 하지만 동구 밖에서는 채편 소리가 더 커요. 그러니까 시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장구 하나만 들어갑니다. 북은 두 명이 들어가도 되고요. 그러니까 시합에 들어갈 때는 장구는 딱 하나만 들어가고 징은 1명, 북은 2명, 소고는 6북구, 제금이 하나 들어갔는데, 제금은 찢지배가락이라고 치긴 치되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술 먹고 긴 춤을 추고 갈 때칩니다.

상쇠는 자기 마음대로 놀지만 부쇠 팽과리는 박자만 맞춥니다. 뒷사람들은 부쇠 팽과리를 치는 것만 보고 맞춰 들어오지요. 상쇠가 상모 돌리고 놀다가도 부쇠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면 다시 장단을 맞춥니다. 상쇠가 치다가 팔이 아프면 부쇠가 치게 합니다. 또 부쇠가 팔이 아픈 가락이 있으면 쉬게 해요. 상쇠는 소리가 잘 나는 방짜 팽과리를, 부쇠는 소리가 안 나는 팽과리를 사용합니다. 부쇠가 돌리면 상쇠가 어리둥절해 가지고 있지요. 사전에 연락이 되요. 상쇠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뒷째미가 잘 맞아야 소리가 좋거든요.

그러면 도깨비 장단이라고 하지요. 시합에 가면 뒷사람들과 잘 맞아야 듣기가 좋아요. 북과 장구가 잘 맞지 않으면 '도깨비 논다' 라고 합니다. 도깨비 장단은 호흡이 맞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상쇠는 상모

를 돌리고 가락 맞춘다고 바쁘지만 부쇠는 장구와 징과 북이 맞으면 됩니다.

(조사자 : 혹시 무동태운 적은 있었나요? 벽구 뒤에 잡색패거리 등이 따라다녔나요?)

여기에는 무동을 태우는 것은 없었어요. 포수 맨들어서, 아낙네들 참 힘드는게 아낙네들이에요. 무동패 아니고는 힘들어요. 어디서 데리고 오는 법도 없고 사오는 법도 없고. 법구쟁이 들은 남자를 시켰지 여자들은 없었어요. 잡색패거리 중에는 포수나 양반 정도가 있었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농악패의 뒤에 따라다니려고 하면 부모들이 '무동 따라간다'고(사당패 따라 간다고) 못하게 말렸어요. 잡색패거리가 많지는 않았어요. 여자도 난잡하게 만들어 노는 것 못하게 했어요. 될 수 있으면 난잡하게 하는 것을 삼갔으니까. 예전에는 '스님 스님'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중도 배역에 없었습니다.

(조사자 : 혹시 서낭당에 올라가서 굿을 하는 것은 없나요?)

서낭당에 올라가 굿을 하는 것이 없었어요. 이 동네에서는 '당고사'라고 있었는데, 풍물패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놀았어요. 다 지내놓고 놀았지요. 음력 10월 상달에 당고사를 지냈는데, 당산나무 당자리에서 했습니다. 당고사를 지내려면 '선당주'. 돌아다니면서 일보는 사람이 '선당주', 앉아서 일보는 사람은 '안진당주'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날짜를 잡으면 예전에는 황토를 동네 어귀 길에다. 가는 길을 막아서 세 군데 뿌려놓습니다. 이것은 '이 동네에서 고사가 있으니 돌아서 가시오, 오지 마시오'라는 뜻이지요.

또 날짜를 3, 5, 7일로 급작히 잡는데, 왜 그러냐? 이 날짜를 잡아 놓고 만약 동네에서 초상이 났을 경우, 고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공표를 안 해요. 동네 애사가 지나면 다시 별안간 날짜를 잡아서 지냅니다. 10월 중에.

그런데, 1년 걸려서 당고사를 지냈는데, 노인네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이 팔리면서 당자리를 교회 목사가 사서 지금은 그 자리(당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5년 전부터는 회관 앞에서 지냅니다.

당주가 될 사람은 노인네들이 생기복덕을 가려서, 어떤 사람이 고사를 지낼 수 있는 연령인가 봐서, 어린애나 초상집에 안 가고, 날짜와 맞춰서 사람을 남자만 뽑습니다. 동네에는 해당자가 50세 넘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서른명쯤 되는데, 2-3명 뽑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정해지면 마을에서 돈과 쌀을 추렴하여 고사를 지내게 됩니다.

(조사자 : 당고사날짜는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조사자 : 당고사를 지낸 다음에 풍물을 치나요?)

10년 전부터는 당고사를 지낸 다음에 풍물을 치는 것이 사라졌어요. 고사지낼 때, 떡을 세네 시루를 하는데, 그걸 다 견어서 고사를 마친 후, 떡을 적당히 나누어 종이를 깔아서 집집마다 돌렸어요. 지금은 고사에 오는 사람 위주로 행사를 하며, 온 사람끼리만 음식과 떡을 나눠먹습니다. 요새는 이태 걸려서

지내요. 해마다 참여하는 사람의 명단을 두고, 만신을 사다가 축원을 했는데, 요즘은 사람들 명단을 두고 통장이나 이장이 만신 대신 소지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당신제는 지내려고 합니다.

자료 2 : 권희원 · 이천원 · 백남화씨 이야기



사진 2. 권희원, 백남화, 이천원씨(왼쪽부터)

- 채록일시 : 2003년 4월 23일
- 구 연 자 : 권희원(남, 74세, 농업), 이천원(남, 72세, 농업), 백남화(남, 72세, 농업)
- 주 소 : 시흥시 하중동 참이슬아파트 205동 1403호(권희원)
시흥시 하중동 823-7(이천원)
시흥시 하중동 동아아파트 101동 903호(백남화)
- 나 서 자 란 곳 : 상동
- 채록장소 : 하중동 노인회관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시흥문화원장의 소개로 알게됨. 하중 지역의 풍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게 됨. 세 명과 동시에 한 시간 30분 정도의 면담을 함.

(조사자 : 이 지역의 두레풍물은 어땠나요?)

마을 사람들이 두레를 만들어서 풍물놀이를 했어요. 저는 직접 참여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도 관심이 있으니까 하면 맨날 쳐다보고 그랬지요. 재미있었습니다.

(조사자 : 예전에는 이 마을을 어떻게 불렀나요?)

예전에 하중동은, 옛날에는 안동네, 바깥 동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요즘처럼 상 1리, 2리로 나뉜 것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면서 일제 때 '안곡'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곳을 상관곡, 혹은 하관곡이라고 불렀어요. 왜 이 곳을 관곡이라고 하나면 여기는 옛날부터 '벼슬고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관곡 전에는 '직곡'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두 동네를 모두 벼슬고지라고 했습니다. 이 동네가 먼저 생겼지만 간척이 되지 않았었고, 집말이라는 동네는 바다와 닿아

있는 동네예요.

(조사자 : 혹시 호조벌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제가 어른들한테 듣기로는 정조 대왕이 효자라 수원 아버지 묘에 다닐 때 이 곳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뒤주에서 죽은 아버지가 애처로워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스물 아홉 번 거동을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고가 바닥이 나서 호조를 더 거둬들이다 보니 땀을 막으면 큰 수익이 있겠다 싶어 막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곳을 호조벌이라 합니다. 지금의 포동 일대가 옛날의 호조벌이 되는 거지요.

(조사자 : 혹시 이 지역에서 풍물을 잘 했던 분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예전에 이 지역의 풍물패가 아주 유명했어요. 돌아가신 권진수라는 양반이 상쇠를 맡았었는데. 이 곳 풍물이 셀 때는, 들은 이야기지만 경복궁 건축할 때 불러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사자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했었나요?)

이 곳 풍물패를 예전에는 벼슬고지 두레패라 불렀습니다. 여기 마을이 5·60 가구가 되었지요. 두레패는 주로 봄, 여름에 모나 김을 땀 무렵과 추석 무렵에 성행했어요. 두레 깃발이 컸는데, 여기에다가 '농자천하지대본'이라 썼어요. 지네발 모양으로 장식이 달려있었고, 꼭대기에는 팽털이 달려있었지요.

(조사자 : 무엇 무엇이 있었나요?)

그냥 똑같지요. 뭐. 소고가 있었고. 왜 벼구라고 하지요? 그게 한 6명 있었고. 북도 있었고, 장구, 제금, 징 다 하나씩 있었지요.

(조사자 : 복장은 어땠나요?)

흔히 풍물은 낮에 점심을 먹고 놀기 시작했어요. 혹은 농사일을 마치고 풍물을 놀기도 했습니다. 뭐 옷은 논일하는 작업복 그대로 입고 나갔지요. 전부 무명 바지, 저고리를 입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입는데. 뭐 대보름 때처럼 명절이나 이런 때는 복색을 제대로 갖춰 입었어요. 복색이라고 해 봐야 별틀린 것도 없지만. 조끼는 다 입었고 띠를 매는 것은 한쪽, 양쪽으로도 둘 다 땀어요. 고깔이나 상모를 쓰고 하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을 때나 상모를 썼습니다. 벼구잡이는 반드시 상모를 썼어요.

(조사자 : 상쇠는 누가 유명했습니까?)

상쇠는 충지휘자라 여기 저기에서 자진가락들을 많이 쳤지요. 부쇠는 팽과리를 계속 장단에 맞게 쳤습니다. 상쇠를 맡았던 권진수 씨가 열두 가락을 다 쳤어요.

(조사자 : 혹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이 지역은 어땠나요? 가령, 월미와 비교한다면?)

예. 월미와 벼슬고지에는 모두 풍물이 썼어요. 그렇기는 해도 벼슬고지 쪽이 더 왕성한 적이 많았지요.

아무래도, 경복궁 지을 때도 벼슬고지 풍물이 공연하러 갔었으니까..

관곡이라는 명칭 이전에는 이 곳을 '직곡'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직말이라는 곳이 예전에는 포구였었고, 월미 옆에 비석거리라는 곳에서는 생선전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 곳에서 함께 공연하기도 했습니다.

(조사자 : 깃발은 어디에다가?)

논두렁에서 풍물을 할 때는 논길을 따라 소박하게 했지만, 동네 마당에 와서 할 때는 풍물을 노는 집에 꽃아놓고 시작했지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풍물을 쳤는데, 넉넉한 집에서는 음식과 쌀 한 말씩을 내놓기도 했고, 풍물패는 그 쌀 위에 기를 꽃아놓고 놀았습니다.

(조사자 : 해방 직전에도 풍물이 있었나요?)

해방 직전에는 풍물패들이 활동할 수 없었어요. 일본놈들이 낫쇠라고 징까지 공출해서 마을의 악기가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이 때는 낫쇠 그릇이며 제기까지도 죄다 걷어갔으니까요. 그래서 풍물놀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해방 후에 풍물패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조사자 : 걸립도 다녔나요?)

마을에 물건이 필요하거나 악기가 깨졌을 경우, 다리를 놓을 때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풍물을 치면서 걸립을 했어요. 정월 초사흘부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풍물을 놀았는데, 집집마다 술과 음식을 내어놓고 여유 있는 집에서는 쌀을 한 말 씩 내놓았지요. 이를 다 모으면 네 가마 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으로 악기를 사거나 마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조사자 : 여기에도 두레싸움이라는 것이 있었나요?)

예. 있었지요. 벼슬고지 옆에 미산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어느 해인가 이 곳에 두레가 생겼습니다. 그 해에 두 마을이 개울을 경계로 삼아 한 달을 두레싸움을 했어요. 밤낮으로 악기를 두드리고 놀았습니다. 아낙네들은 밥과 술을 챙겨 마을 사람들을 먹이면서 두레싸움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왜 싸우느냐 하면, 항복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절 안 한다고. 두레기로 흔들어 절을 하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싸움을 하는 도중에도 여러 차례 전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점점 흥을 돋구는 거지요. 한참 싸우다가 지는 쪽에서는 깃발을 세 번 끌어 젖혀서 절하는 것으로 항복을 표시했습니다. 두레싸움은 어느 쪽 두레가 먼저 생겼느냐, 혹은 어느 쪽 두레가 더 기량이 뛰어나느냐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복궁 다녀온 우리 벼슬고지 풍물이 늘 두레싸움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벼슬고지 두레기가 나타났다면 다른 쪽 풍물들이 술을 피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조사자 : 두레싸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졌나요?)

우리 마을 논에 김을 매기 위해 논 위에다가 두레기를 쏘습니다. 그런데 아랫마을에서도 두레기가 쏘힐 때가 있어요. 이 경우에 흔히 두레 싸움을 걸기 위하여 북을 세 번 짹짹 울리는데, 이를 '종고'라고

했습니다. '나 여기 있다'라는 표시지요. 상대방 기에게 절을 하라고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또, '합구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레싸움을 하면서 두 마을의 두레패가 모여서 협동연주 하는 것을 '합구친다'라고 말합니다. 종고를 올릴 때, 다른 쪽 두레에서 웅대해오면서 두레싸움이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함께 협동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도창리, 매화리, 미산리, 포리, 하중동, 광성리 등지의 두레패들은 만날 때마다 두레싸움을 했는데, 일종의 친선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싸운다는 것은 치고 받고 싸운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풍물의 재주를 뽐낸다는 것입니다.

(조사자 : 김매기가 끝나면 동네사람들이 모여서 놀잡아요? 그런 걸 뭐라고 불렀나요?)

김매기가 끝나면 호미를 씻어서 걸어둔다는 뜻에서 '호미걸이' 행사를 했어요. 이것을 '두레파작'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전체의 김매기가 끝나면 하루 날을 잡아놓고 아침부터 밤까지 매봉산 아래에서 모든 두레패들이 모여서 크게 잔치를 했습니다.

(조사자 : 명절 때 다른 놀이는 없었나요?)

정월보름날에는 부녀자들이 달맞이를 하기 위하여 짚을 모아 불을 붙이고 빙빙 돌리며 '달님, 달님' 이렇게 외치면서 소원을 빌기도 했어요. 이 때 풍물패들은 풍물을 연주했습니다. 정월 초하루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새 옷을 입고 놀았지요. 열 엿새부터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바로 일터로 돌아가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열 엿새 날은 귀신날이라고 해서 하루를 더 놀았습니다. 그리고 열이레 췌부터 정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지요.

(조사자 : 두레풍물할 때 무동도 있었나요?)

두레 놀이를 할 때 무동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6·25 사변 때까지 무동을 타기도 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6·25 사변 때까지 무동을 타기도 했습니다.

자료 3 : 이익수씨 이야기



사진 3. 조사자 김혜진(왼쪽), 김원민(오른쪽)과 이익수씨

- 채록일시 : 2003년 4월 30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 구 연 자 : 이익수(남, 72세, 농업)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128번지
- 나 서 자란 곳 : 상동
- 채록장소 : 논두렁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시흥문화원장의 제보에 따라 김원민이 전화로 연락을 드리고 일하는 중간에 시간을 내서 제보함. 약 한 시간에 걸쳐 광석동(나분들)의 두레풍물에 대해 전반적인 질문을 함.

(조사자 : 이 마을의 유래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옛날에 도둑이 많았다고 합니다. 도둑이 많아서 정씨들이 성주골에 넘어왔다고 해요. 나는 전주 이씨예요. 거기 이름이 성주골이라고 하는 부락이거든. 그 당시 집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거기도 도둑놈이 심해서 이리 왔다고 해요. 그 뒤에 여기 나분들에 안동 권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3성이 나분들이라는 부락을 개척해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부락이 크지 않아요. 풍물이나 이런 것은 크지 않아 풍물이 발전하지는 않았어요. 일제 때 풍물을 못하게 금지했는데, 해방 후에 풍물이 성했습니다. 해방되고 난 뒤에는 우리 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김을 매거나 논에서 일할 때 주로 풍물을 했습니다.

(조사자 : 어르신 어렸을 때도 풍물 구경하신 것을 보셨는지?)

제가 어렸을 때라면, 제가 열 네 살에 해방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어른들 말씀에는 있었다고 했는데,

일정 때는 다 빼앗아 갔지요. 해방 후에는 다 준비를 해서 뽕팡거리고 다녔지요.

(조사자 : 풍물의 구체적인 양상은 어땠는지요?)

구경이나 하는데 나갈 때 정장이 뽕팡거리고 나가지. 나는 어렸을 때 구경만 했는데 풍물을 할 때 맨 처음 정장이 먼저 악기를 두드리며 나가요. 두레기를 공터에 꽂아 놓고, 뚝들이 많았으니까, 다시 일을 하고 점심 먹고, 또 한 번 놀고, 못논 널 때, 동네 사람 하나 둘이 소리를 하면, 선소리꾼이 선소리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아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농촌에 살면서 일 해가면서 오락을 취한 거지요. 일을 하면서 힘드는지 모르게 그렇게 풍물을 했습니다. 지금 선소리는 기억나는 것이 없어요. 전부 내려오면서 하나씩 하는 것이라 기억하지는 못해요.

(조사자 : 선소리 하시던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나요?)

저기 주막거리, 군수들의 비석이 죽 들어 서 있어서 비석거리라고도 불렀어요. 거기에 사는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상쇠 처가면서 그런 거를 했지요.

(조사자 : 논매기 할 때 말고 가을 잔치 같은 때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정초에 보름까지 노는 기간이에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쌀도 한 말 상에다 놓고, 음식 장만 해서 동네 다니면서 했어요. 그러다가 선소리꾼이 죽으니까 풍물은 굴러다니고 잼이가 잘 안 맞아요. 장구나 더러 그런 것은 있는데.

(조사자 : 동네부락이 나누어져 있는데, 하중의 두레기와 이쪽의 동네기가 나오고 그랬겠네요?)

월미에 재주꾸러기가 많아요. 정월 초에서 보름 정도 한가할 때에 쌀을 빌려 음식을 장만해서 이 집 저 집을 돌면서 풍물을 했습니다. 풍물을 할 때는 부락마다 자기네 농기를 들고 나왔어요. 이 마을에는 재주꾼들이 많았지요. 아마 목감동의 안장국 씨가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장구도 재주꾸러기가 많았어요.

(조사자 : 호미씻이나 두레파작은 없었나요?)

두레파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음식 장만하고, 여름 내내 농사짓기 힘들었다하고 마감질하는 반면에 술도 한 잔 먹고 그러는 거예요.

(조사자 : 그럴 때 상모도 돌리고 그랬나요?)

부락이 커도 재주 있는 사람들은 여러 명이 아니라 한두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떠나고 나면 재주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니까요.

(조사자 : 하중리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재주꾸러기가 많았어요. 하중리보다 작지도 않지요. 터가 씨다(세다)고 할까, 그런 혹평을 받고

있었지만 재동꾸러기가 많았어요. 나중까지 뚱뚱거린 것은 여기였어요.

(조사자 : 어르신 댁은?)

나분들, 월미, 골월, 물왕굴, 근데 여기 사람들이 가끔이야기 하지만 물왕굴은 예전부터 물왕굴이거든. 물을 안고 있거든. 그전에는 고개가 높았거든요. 고개이름이 수르러미 고개라. 물이 넘어간다는 이런 뜻이거든. 이 앞에는 물이 흐르는데 물이 넘어가는 고개라고 '수르러미 고개'라고 부르지요. 어느 명인이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조사자 : 추석 때라든가 마을 단위 잔치는 없었어요?)

그런 특징은 없고요. 다른 부락에 도당이 있었거든요. 시청 앞까지가 광석리예요. 예전에는. 광석리 산 꼭대기, 거기가 든대곡이지요.

(조사자 : 도당에서 당산제 지냈을 때 풍물은 없었나요?)

풍물은 아니었고 무당 광대는 있었어요. 마을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돈을 주면 도당 광대는 하루 종일 도당에서 놀았는데. 이런 놀이가 일정 때도 계속했거든. 여기에는 '삼선무당'이라고 있었는데, 광대들과 실랑이를 벌리곤 했지요. 광대들은 장대에다 글씨를 쓰고 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주재소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북 치고 장구 치고 그랬지요. 주재소에서 수암면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끌고 갔지요. 그래서 도당하면 안되겠다 그랬지요.

그래서, 지금은 도당을 하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성을 떡 같은 거 사다놓고 과일 같은 것 사서 간단하게 제사지냅니다. 예전에는 한 해 걸러서(격년으로) 산제사를 지냈는데. 부락사람이 전부 정성이거든. 제관은 마을에서 집안이 깨끗한 사람으로, 부락정성으로 날 보는 사람이 깨끗하다 그러면 합니다. 소 머리 삶고 북 치고 장구 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조사자 : 풍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네가 치던 게, 팽과리, 뒤에 치던 징, 장구, 방구, 소고라고 치고 다니는 게 있는데. 그거예요.

(조사자 : 몇 명이 하셨는지?)

이 중 4가지만 있으면 재이가 맞았지요. 뒤에 돌아다니는 것은 몇 명이나 되었지? 호적재이도 있었고. 뒤에 포수나 양반 잡색들은 없었어요.

(조사자 : 무당 광대들이 마을 사람인가요?)

무당광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시방은 예인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예전에는 천대를 받았거든요. 천인이야. 그 사람들만이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동네에도 있었고, 인근에도 있었고, 이 근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었으니까. 무당한테 미리 날짜를 말해 놓으면 그 날 가서 노는 거니까. 작두타기 같은 것은 이복식이라 하지 않습니다. 동이 위에 올라가서 춤을 많이 났습니다.

(조사자 : 예전에 장이 있었다면서요?)

능곡리 삼거리. 난봉개들 모여들어서, 오일장도 쏘고, 씨름판도 벌어지고, 여기가 안산 삼거리거든. 예전에는 여기가 괜찮았던 데예요. 어른들 말로는 십 년 삼거리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10년 안에 큰 돈을 벌면 남게 되고 못 벌면 떠나야 한다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조사자 : 언제 놀았나요? 복장은 어땠나요?)

두레파작을 할 때,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먹고 나서 일하러 갈 때 놀았지요. 옷도 잠뱅이. 평소 김매기 할 때는 입던 옷 그대로 나가고, 추석 같은 명절 때나 옷을 빨아 입고 나가는 정도입니다. 그때는 옷이 많지 않아 특별한 복장은 없었어요. 정월 초에는 양쪽, 한쪽으로 띠를 두르기도 했다. 한쪽으로 또는 양쪽으로 두르기도 했습니다.

자료 4 : 이상진씨 이야기



사진 4. 제보자 이상진씨(오른쪽)와 조사자 김원민의 대담과정

- 채록일시 : 2003년 4월 30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 구 연 자 : 이상진(남, 71세, 전 매화리 이장)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 239-1
- 나서 자란 곳 : 상동
- 채록장소 : 매화동 노인회관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김원민의 섭외로 소래권의 두레풍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함.

(조사자 : 이 부락 이름의 유래가 있나요?)

매화동은 예전에 매착이라고 불렀는데, 그전에는 여기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으니까. 밤에 바다에서 바라보는 동네의 모습이 마치 매화꽃이 다닥다닥 붙어 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떨어질 착자를 써서, 매화꽃이 떨어진다고 해서.

보통 이 곳에 있다가 더 나은 곳으로 갈려면 수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안양이나 부천으로 많이 갔습니다. 지금은 인천이나 광명으로 갑니다.

(조사자 : 옛날에는 몇 호 정도나 되었나요?)

1리, 2리 해서 140호. 예전에는 매화동이 140호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커졌습니다.

(조사자 : 두레가 있었나요?)

두레가 해방되고 난 뒤까지 있었어요. 두레가 일종의 품앗이인데, 있는 사람들은 좀 돈을 내놓고 김을 내야 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하고 나서 사람이 몇 명이라는 것을 회의를 해서 정하지. 그날그날 인건비를 받는 거지. 두레가 맡아서 일을 하고 난 뒤에 일을 한 인원 수를 적어서 그날그날 임금을 돌

아가면서 받는 거예요.

(조사자 : 두레파작은 있었나요?)

있었지요. 7월 달에. 여기 도당산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대동놀이가 되는 거지.

(조사자 : 무당이 있었나요?)

도당을 할 때는 무당은 없고 당골네가 있었어요. 5년에 한 번씩 도당굿이 열렸는데, 이 근처에는 당골네가 아니면 다른 무당이 주관하지 못했어요. 당골네가 복을 빌어준다고 여름에는 보리쌀, 가을과 봄에는 쌀을 집집마다 걷어 갔어요. 웬만하면 다 냈어요. 세금 내듯.

(조사자 : 당굿 할 때 풍물패는 있었나요?)

없었지요. 그냥 그 사람들이. 주관하는 사람 하나는 목욕재배하고 꿈쩍 못하고, 왜정 때도 했으니까. 해방되고 한 번 했다고. 3일 동안 열렸는데, 마지막 3일째 날은 나무로 허수아비를 사람처럼 만들어서 꼭두각시놀음을 했는데 굉장했다고. 사람 인체를 다 만들었다고. 놀려 가지고 줄을 매서 일어나서 움직이게끔 하고, 팔짓만 하면 움직일 수 있게끔. 웃을라고 그렇게 한 거지요. 나보다 더 크게 맨드는 것이니까. 그때는 우리는 끼지도 못하고 구경만 허는 거지. 그때 허던 양반들 하나도 안 계시고. 도당산에 큰 도당나무가 있었는데, (전쟁 때) 폭탄이 떨어지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아마 요즘에도 교회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지금도 제사를 지냈을 것이예요. 1년에 꼭 한 번씩은 제사를 지냈으니까. 대개 시골에서는 정월과 8월에는 소를 잡잖아. 소머리는 먹지 않고 삶아서 고사 먼저 지내고.

(조사자 : 두레패가 있었네요?)

그 전에는 돈이 없어서 두레패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김을 매고 나서 몇 명분이다. 그거 얼마. 내가 농사짓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단합이 되요.

(조사자 : 남자들은 나이가 몇 살이나 되어야 속하나요?)

아무래도 20은 되어야지요.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지 두레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사자 : 풍물의 순서는 어떤가요?)

네 가지에다가 제금 있었고. 팽과리, 징, 장구, 북, 소고 순으로 썼어요.

(조사자 : 뒤에 다른 것은 없었나요?)

놀이할 때는 있었는데, 일 할 때는 안 해요. 뒤에는 노인과 양반이 있었는데, 대중을 웃기기 위해서 꼭 추도 있었습니다. 유명하게 하는 양반이 있었는데. 꼽추춤을 추면서 우습게 땡기면서. 그런데 배웠다고 기보다는 어디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흉내내는 정도였어요.

(조사자 : 두레파작은 언제 했나요?)

두레파작은 그 해 수입이 많을 때는 하고 수입을 없을 때는 하지 않았어요. 두레파작은 힘들어요.

(조사자 : 뭐라고 부르나요?)

두레파작은 호미걸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호미 건다고. 음식은 주로 술을 만들어 수고했다고 격려하며 돌리곤 했습니다.

(조사자 : 두레패가 몇 패나 되었나요?)

두레패가 20-30명 정도가 되었는데, 농사짓는 데는 충분하지요. 두들기고 당기고 따라 당기고. 품앗이는 거기 들어가야 품앗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두레패에 다 들어가지요. 그래서 거기도 자격을 따지는 겁니다. 한 몫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지만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지곤 했습니다. 악기 치는 것은 일하러 들어갈 때, 나갈 때 쳤다. 일정 때에는 두레패가 없었어요. 해방되고 난 뒤에 복구되었어요.

(조사자 : 소리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덕담이라고. 그렇지요. 그걸 잘해야 해요. 무슨 대주, 무슨 대주 해서 복을 빌어 주었지요. 그걸 잘해야 한다고.

(조사자 : 상여소리 하시는 분은 계셨나요?)

상여하는 사람도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서 어디에서 녹음해 와서 상여 나갈 때 틀어놓는다고 합니다. 이귀인 씨가 상여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상여가 나가지도 않아요.

(조사자 : 상쇠 잘 하던 분이 계셨나요?)

안양유원지에 있는 조씨 성을 가진 양반이 주로 했는데 죽었어요.

(조사자 : 어디가 농악이 제일 션가요?)

월미가 제일 세고, 거멸도 세고 했는데. 월미가 제일 션 거는 안기성씨가 가르치고 다녔으니까. 월미에서 대회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자 : 풍물도구는 어디에서 보관했나요?)

풍물도구나 농악기구를 그 때는 마을의 큰 집에서 보관했습니다.

(조사자 : 깃발에 계급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틀린 점이 있나요?)

두레기(농기)에는 계급이 있었는데, 관에서 내려준 것과 마을 자체 내에서 만든 것이 있어요. 기는 제작을 어디에서 했다는 표시가 있었다고 해요. 자체에서 제작한 기는 관에서 내려준 기를 보면 인사를

먼저 했구. 인사는 두레기를 숙여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지키지 않았다고 시비가 나서 두레 싸움을 했지요. 깃발을 꺾고 그랬다고 해요. 농자천하지대본을 쓰고 옆에는 동네 이름을 쓰고 그랬지요. 기의 계급이 있는 것은 두레패가 놀이를 잘해서 대회에서 상을 탔다거나 해서 관에서 하사를 한 것입니다.

(조사자 : 두레싸움이 종종 있었나 보지요?)

그랬다고 해요. 그래도 사람의 위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내려온 것이지요. 왜 안 하나 시비가 되고, 그게 두레싸움이지요.

(조사자 : 놀이패가 나오면 무동도 하고 그랬나요?)

무동도 했지요. 팽과리 치고, 꼭두각시 나오고, 찢그만 여자에 무등 서서 돌고. 그거야. 남사당패가 직접 들어왔지요. 그 사람들이 와서 며칠씩 묵어간 적이 있어요. 남사당패가 들어오면 잘 사는 집 마당에서 놀면서 돈을 주기도 하고 쌀도 주기도 하고, 정월 달에 보름 안에 농악을 가지고 돌면서 노는 거라고.

(조사자 : 남사당패는 며칠씩 놀고 가나요?)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못 가니까. 유지가 많아야 되는데, 없으니까. 마당 큰 집에서 하고.

(조사자 : 농기의 형태는 어땠나요?)

기(두레기)는 너무 크면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많이 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두레기가 꽤 커서 옆에서 사람들이 보충해서 잡아주었습니다. 놀러갈 때 가는 기가 따로 있고 농사 질 때 가는 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기는 바탕 하얀 데다가 가장사리는 파랑, 검정의 지네발이 달렸고, 꼬리를 해 놓고. 연 꼬리처럼. 천으로. 지네발과 꼬리는 천으로 만든다. 맨 위에는 콩지털이 들어갑니다.

두레기에는 제작연도와 부락이름을 쓰고 다른 글귀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계속 썼어요. 비를 맞고 초라해지면 다시 만들었지요. 제작연도를 다시 쓸 때는 비를 맞고 찢어지면 다시 만들 때 씁니다.

(조사자 : 걸립을 다닐 때 복색은 어떠했나요?)

고깔 쓰고, 띠 두르고. 옷에 띠는 노란, 빨간색입니다. 상쇠는 술이 크고 짧은 상모를 쓰고 확확 돌리다가 딱 서게 하고, 옆으로 돌리고 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었는데, 상모가 서면 그것은 가락이 바뀐다는 신호예요. 그것을 보고 가락이 바뀌었어요. 상쇠가 그래서 어렵지요.

자료 5 : 윤용배, 남문현, 나정현, 최교한, 이경운, 김의종, 소성익씨 이야기



사진 5. 월곶지역의 제보자와 조사자 김원민(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윤용배, 남문현, 나정현, 최교한, 이경운, 소성익씨)

- 채록일시 : 2003년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 구 연 자 : 윤용배, 남문현, 나정현, 최교한, 이경운, 김의종, 소성익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월곶 2통
- 나서 자란 곳 : 상동
- 채록장소 : 월곶 2통 노인회관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김원민의 섭외로 조사자 3인이 제보자 7인을 상대로 두 시간 정도 월곶 지역의 두레풍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함.

(조사자 : 이 부락의 이름은 어떻게 되나요?)

월곶이라는 마을 이름은 예전에는 '달월'이라고 불렀습니다. 달월이란 열두 동네를 뜻합니다.

(조사자 : 한동네가 몇 호 정도나?)

예전에는 300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조사자 : 예전에는 이 동네에도 물이 들어왔나요?)

여기가 막은 지가 한 삼백 년 되고, 예전에는 논이 큰 게 있었어. 대궐 가서 연못도 치고 다들 없어졌지. 우리는 어려서 들은 거지.

(조사자 : 농번기 시작될 때 두레 시작하잖아요?)

어르신들 어렸을 때 기억에 그랬다는 것이지요. 두레가 세 동네가 있었거든. 청포놀이라고 있는 것이 각 삼 개 두레패가 모여서. 깃대도 꽂아놓고.

(조사자 : 어디였나요?)

마전(삼밭), 월동, 산곡의 세 마을에 두레패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마전이 선동네였지요. 선동네의 기준은 두레패의 먼저 생겨난 순서로 정하는 것입니다. 해방 전, 고사 지낼 때 '천하지대본'이라는 깃대를 꽂아놓고 음식을 내놓습니다. 일정 때였지만 일본인들이 농촌의 풍물놀이라고 해서 막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조사자 : 전에 이 부락에서 풍물이 유명했나요?)

대원군이 경복궁 재건할 때 연못을 파기 위해 마전과 월동, 산곡의 두레패를 추려서 갔다는 얘기만 들었지 나는 그것을 못 봤어. 상타오고 그랬어. 깃대에도 저걸 해줘서. 보지는 못했어. 그리고 두레기를 하사 받았다고 해요.

(조사자 : 백중 때 김매기 끝나고 동네 사람들끼리 모이지는 않았나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호미걸이라고 했지요. 호미걸이란 세 동네 사람이 다 모여서 풍년작을 지낸다고 모여하는 행사입니다. 해방 전에서부터 있었다고 해요. 보통 8월 추석, 단오날에 했고, 보통 지역별로 놀았어요. 호미걸이는 대동놀이일 만큼 마을의 유일한 큰 놀이였습니다.

호미걸이 때는 고깔을 쓰고 중의적삼을 입고 띠를 둘렀습니다. 평상시에 입는 그대로 입고 했는데, 정월대보름에도 특별히 다른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조사자 : 잘 하던 분들 기억나시는 분 없나요?)

70년 전에는 최문환 씨가 상쇠였어요. (6.25 후에) 12발 상모돌리기는 최유태 씨가 잘했습니다. 무동 타기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냥 소박하게 놀고 먹는 것이 다였지요.

(조사자 : 구체적으로 당시를 좀 말씀해주시면?)

예. 우선 상쇠를 포함해서 다같이 고깔을 썼습니다. 호적잡이, 징, 장구, 북, 제금, 장구가 있었구요. 징 다음에 제금이 섰는데, 바라춤을 쳤습니다. 잘하시는 분으로는, 최동만 씨가 호적을 잘 해서 이승만 박사 탄신일에 뽑혀서 간 적이 있어요. 최동만 씨는 힘이 좋았는데, 과천에 있는 이세진 씨는 힘이 좋아 씨름도 잘했는데, 최동만 씨와 함께 상호적으로 불렀습니다.

(조사자 : 악기구입이나 보관은 어떻게 했나요?)

농악기는 공동으로 돈을 모아 샀고, 보관은 동네의 큰 집에서 보관했습니다.

(조사자 : 혹시 당제는 없었나요?)

여기는 도당제는 없고 서낭제는 있었습니다. 군자 성황당이 유명합니다.

(조사자 : 농기의 형태나 내용은 어땠습니까? 다른 동네에 비해서)

두레기는 흰천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 쓰고 지네발을 달았는데, 줄을 맨 만큼 엄청 컸습니다. 우리 기에 비해 매화동 기는 짧았어요. 두레기에 줄을 매달아 양쪽에서 함께 삼각형 모양으로 잡고 붙잡아 다녔어요. 두레기 맨 위에는 꿩털을 달았지요.

(조사자 : 당시 풍물의 가락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에는 길가락, 자진가락, 춤가락이 있었습니다. 자진가락은 도드래기이고, 춤가락은 굿거리 가락입니다. 처음에 길가락을 치면서 나갑니다.

(조사자 : 두레싸움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나요?)

선동네 후동네가 있었어요. 선동네는 삼밭이고, 3 개 부락에서 추려서 연못 치러 가고, 두레싸움은 여럿이 농기를 잡고 깃대를 쓰러뜨려 꿩털을 뺏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진 사람이 술을 내는 것이예요.

자료 6 : 정연한씨 이야기



사진 6. 제보자 정연한씨와 조사자 김원민의 면담과정
(제보자의 저택에서)

- 채록일시 : 2003년 5월 7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 구 연 자 : 정연한(남, 71세, 신학대학 졸, 전 시흥시 국악협회장)
- 주 소 : 인천시 중구 남북동 926번지
- 나서 자란 곳 : 강원도 원주에서 나고, 시흥으로 이주해 옴
- 채록장소 : 제보자 자택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조사원 김원민 섭외

(조사자 : 신천동에도 풍물이 있었나요?)

신천동에는 저기 있었어. 새진내. 천식이 아버지가 안병국씨인데, 안병국 씨가 새말의 농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가르쳤어. 당시에는 먹고살기 힘들 때인데도, 연습시키면서 점심까지 먹이면서 직접 가르쳤어. 천식이 어머니도 협조 많이 했어. 그때 당시에 점심 해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다 연습시키고 점심 해주고 막걸리 받아주고 했다고. 키가 쪼그마.

(조사자 : 그분은 누구한테 배운 것인가요?)

안병국 씨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고 예부터 내려오던 풍물을 가르친 거야. 신천동에는 새진내에 있었어.

(조사자 : 그 때 당시에 새말 사람들이 어땠나요?)

새말 풍물이 당시에는 센 편이었어.

(조사자 : 어느 때 했어요?)

그게 사변 수복하고 와서 조금씩 시작을 해서 그때가 1957년경에는 성했어. 했다가 1965·6년에는 사라지더라고. 전에 농악을 하던 분의 후계자들이 없는 거야. 이농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농을 시작하면서 젊은 사람들, 즉 후계자가 없는 거야. 그때부터 70년대 접어서면서 없어졌지. 모내리 떠날 적에 막 팽과리 치고, 모내고, 또 실 참에 두드리는데. 또 농악을 하면서 집으로 가는 거야. 67·8년도까지는 가끔 있었는데 없어졌지. 1970년대에는 거의 없어졌어.

(조사자 : 두레파작이나 호미걸이 할 때 했나요?)

대개 새참 먹을 때, 그리고 끝나고 올 때 했지.

(조사자 : 다른 때는 언제 했나요?)

명절 때. 단오, 추석, 정월대보름 그런 때는 밤에. 정월대보름 같은 날은 밤새도록 쳤지. 동네에서 쌀을 걷어서 술을 담그고. 그렇게 했지.

(조사자 : 직접 하신 분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신 분은 없나요)

새말에 살고 있던 서창선 씨(소고)가 여기 풍물에 직접 참여했다. 천식이 아버지는 팽과리를 쳤어. 동네 사람들은 큰 공터 같은데 모여서 놀았지.

(조사자 : 언제 했나요?)

주로 모내고 실 때, 새참을 먹을 때 농악을 두드리고 또 끝나고 나면 농악을 하면서 집으로 갔어. 단오나 추석, 정월 대보름에 주로 밤에 했어. 정월대보름 때는 밤새도록 농악을 했지. 동네에서 쌀을 거둬 술도 담그고 했었지.

(조사자 : 무동이 있었나요?)

무동은 하지 않고 상모돌리기는 있었어. 12발 상모는 있었는데, 금이리에서 유명했지.

(조사자 : 대회는 없었나요?)

농악대회 같은 것은 없었고, 호미로 논을 맬 때, 애벌 맬 때 했지. 새말이 제일 잘 했어.

(조사자 : 복색은 어땠나요?)

정월 때 놀이를 할 때마다 놀이 대형을 갖춰 삼각형 모양의 모자에다 울긋불긋한 꽃을 단 사람들이 소리가 나 덕담을 하면서 집집마다 다니고 큰 마당을 돌아다녔어요.

(조사자 : 깃발 같은 것은 어땠나요?)

있었지. 그리고 농기 뒤에 또 있었지. 좀 적었어. 기가 길고. 농기 뒤의 깃발은 흰색, 빨간색, 남색, 노

란색의 울긋불긋 한 것이 더 있었어. 이 깃발에도 글자를 썼던 것 같은데 기억은 나지 않아. 기가 작지만 길었어.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글자가 쓰인 깃발은 다른 깃발과 넓이는 같지만 길이는 더 길었어.

(조사자 : 잡색때거리는 없었나요?)

등에 옷을 넣어 꼽추나 언청이 흉내를 내곤 했어. 이빨에 뭔가를 붙이거나 칠하기도 하고 성냥개비를 눈에 꽂고 버티기도 했지. 포수나 탈은 없었어.

(조사자 : 주로 어떤 악기를 사용했나요?)

팽과리, 징, 장구, 북, 호적, 제금도 있었어.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안병국 씨가 가르쳤지.

(조사자 : 마을끼리 모여서 한 적은 없나요?)

금이리에서는 면 주최의 대회도 있었어. 방산리, 금이리, 포리, 신천동에서(40-42년으로 추정) 6, 7개 동네 마을 대항으로 모인 적도 있었으니까.

(조사자 : 일제 때에는 어땠나요?)

일제 시대 때도 쌀을 걷어 막걸리를 대접하는 풍물은 있었어. 하지만 3·1운동 이후에 처음부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풍물을 탄압했지. 억압을 하면 자꾸 일어나니까 조선 총독이 미나미로 바뀌고 민족주의를 말살하는 정책을 하면서 팽과리, 징 등의 풍물기를 압수하고 밥 먹는 숟가락 마저 압수했어. 또 민족 예술과 신파극을 금했지. 친일파가 어느 집에 농악기가 감추어져 있다고 고발해서 순사들이 감춰진 농악기를 다락에서 꺼내면서 그 집 주인을 때리고 풍물악기를 압수한 적도 있었어.

자료 7 : 박명현씨 이야기



사진 7. 조사단장 유영대 교수와 제보자 박명현씨(오른쪽)

- 채록일시 : 2003년 4월 23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 구 연 자 : 박명현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물왕2동 279-8
- 나 서 자란 곳 : 상동
- 채록장소 : 제보자 자택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시흥문화원장의 소개를 통해 김원민의 섭외로 월미지역의 두레풍 물에 대한 질의를 진행함.

(조사자 : 이 부락에서도 풍물을 했었나요?)

나이 잡순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아버님, 연령 구십이 넘은 분들이 농악을 즐겨 했었고, 근처에서는 월미 농악을 당할 동네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는 지금도 풍물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분들 대로 그쳐 가지고는 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사자 : 옛날 어른신 들 중에서 벅구를 잘 쳤다거나 이런 분들 이름이 생각나시는 분들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상쇠잡이로 김맹석씨.

(조사자 : 지금 살아계시면 지금 나이가 백살은 넘었겠지요?)

그 분은 한 구십 되었을 겁니다. 우리 아버님보다는 서너 살 덜 잡수었으니까. 그리고 강원봉씨가 징을 쳤고, 강수산씨가 장구를 쳤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 장구칠 때는 띠를 매고 춤을 추잖아요. 그때

는 그분이 처음 시작을 했어요. 해방 된 후에 안산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처음 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리고 부식을 치던 분이 있고, 김맹석씨와 식을 교대로 쳤어요. 특별히 잘 치니까. 기를 들고 가는데 몇 미터인지 모르겠어요. 이용진씨라고 구척 장신이 있었는데, 기를 들고 갔어요. 농기가 무척 높았죠. 오래 행사장에 들어가면 농악이 안 하더라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알레를 하는 제도가 있었나봐요. 깃대를 못 들었어요. 워낙 커서.

농기. 천하지대본이라고. 참 장사예요. 이용진씨. 그분이 깃대를 들고 갈만해서 일부러 깃대를 큰 것을 샀고, 그 깃대에 맞추어서 기를 만들었지. 깃대에 맞추어서 농기도 크게 만들었는데. 일단 행사장에 들어가면 마중을 나오는 제도가 있었어요. 먼저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는데. 나중 들어온 사람 인사차로 깃대를 들고 나와서 만나는데, 기를 바꿔들게 되어 있나봐요. 기가 커서 깃대를 바꿔 들지를 못했어요. 그때 그분들이 사십대 전후 했었으니까 한 십 오륙 년은 농악이 지속되어 내려오다가.

(조사자 : 그럼 시기가 해방되고 나서 바로 그 후인가요?)

해방되기 전에도 왜 두레라고 하지. 두레를 가지고 다니면서 논을 매고.

(조사자 : 농기가 두레깃발이나 마찬가지로지요? 두레깃발은 어떻게 생겼어요?)

두레김이라고 해서. 모낼 때부터 흙칠 때까지 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두레김을 맨다고 했지요. 그럴 때도두멀이니 요골이니 하주골이니 두레김을 땀. 월미 농악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같이 놀지를 못 해. 두레파작이라고 김을 다 매고는 시마이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나서 두레파작 할 때 뒷동산 꼭대기 올라 가지고. 행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보리밥하는데 동네서 걷고 해서 소머리 사다가 옛날에 소머리 사다가 국밥 맨들면 최고였었지. 두레파작을 하면 어른, 애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행사를 하는 거지. 명절 때 말하자면 농악을 가지고 다니면서 치고 놀지. 문전방문을 하는 거예요. 대개 한 칠팔 일 지나면 하지. 부잣집은 쌀 한 말을 냈어요. 쌀 한 말을 마루에다 놓고 고봉을 내고 없는 사람을 못 내고. 그렇게 농악을 이 동네에서 했어요. 어느 동네나 다 그랬어요. 농악을 열두 마당을 우리 월미에서는 잘 했고, 또 상쇠가 원칙 동네사람이 치고 그러니까. 특히 잘 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사람들이 주로 하거든. 상쇠에서 신호를 보내면 탄 가락을 치고. 신호를 보내면 탄 가락을 치고. 그래서 농악을 즐겨했는데. 지금은 우리 나이 또래도 상쇠잡이가 하나 있어요. 안장국씨라고. 그 이후에는 다 돌아갔어요. 나는 징잡이에요.

(조사자 : 그럼 혹시 열두거리가 어떻게 되었는데?)

우리 또래가 농악을 배울 때, 미련하니까 징을 친 거지. 농악에는 취미가 없어요.

(조사자 : 두레 칠 때 웃은 어땠나요?)

그런 거 있었지요.

(조사자 : 전체가 농악대가 치면 몇 명쯤 쳤나요?)

애들도 다 가고, 많이 갔어요. 이 동네는 단결이 잘 되었어요. 나도 해방 된 후(19살 때) 그래서 이 마을 이 유명한 동네예요. 이 동네가 그전부터 60호, 큰 동네였어요. 수암면에서도 큰 동네가 없어요.

(조사자 : 정월 초에 농악해서 놓고요, 걸립도 했을 거 아닙니까? 쌀이나 모아서 뭐 하셨습니까?)

농악행사에 해당되는 기금이지.

(조사자 : 농악을 언제까지 쳤어요?)

보름 지나도록 치지요. 점심은 있는 집에서 내고, 그만 못한 사람은 술 같은 거 내고.

(조사자 : 아침서부터 치면 저녁때까지 치는 거지요? 밤에도 마을 사람끼리 놀았나요)

더러 있었지. 정월 보름에

(조사자 : 달집 태우는 것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줄다리기 같은 것도 잘 없었구. 기억에 남는 것은 해방이 되었는데,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농기를 꾸며서 그 짚신 짚을 신고 발을 번쩍 번쩍 들어가면서 춤추던 때가. 뭐 그런 거. 다 옛날 이야기인데.

(조사자 : 혹시 이박사 때 생일날이라고 공연한 적은 없었나요?)

없었지요. 자금도 필요하고 해서, 주관자가 안기성씨라고. 그 분이 대단했던 분이예요. 명절 때 놀 때 남은 말에다 깃대 꽂아놓고 허고 그랬는데, 그 양반은 가마에다 꽂았던 분이예요. 안기성씨가 자랄 때 좋아했던 사람이예요. 특별히 우리 집안에는 박서방네는 한 섬지기 농사였는데, 그런 사람이 자작으로. 그 양반은 혼자 두 섬지기를 했어요. 정미소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특별한 부자지. 한 가마 반을 내 놓았으니까.

(조사자 : 안기성씨는 농악을 하지는 못했지만 부자였다는 이야기였지요?)

예. 주도적인 역할을 제일 잘 한 분이야. 그분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한 것을 아는데. 일제 때 순사가 무릎을 꿇을 정도니까.

(조사자 : 예전에 두레 할 때 상모돌리고 그런 것도 있었나요?)

열두 발 상모도 잘 돌렸지요. 해방되고 문중성씨라고 열두 발 상모 잘 돌렸지요. 장구도 잘 치고, 우리 나이 또래의 장구잡이. 호적도 불고, 재주꾸러기예요. 장구는 두 명, 방구 두 명, 상쇠, 부쇠, 제금. 지금도 농악 놀 때 상쇠잡이 하다가 딱 서고 하는 것. 김맹석씨가 잘 하는 것이예요.

(조사자 : 총채같이 그렇게 생겼나요?)

예. 그때는 솔로 했어요.

(조사자 : 뒤에 농악대 꼬트머리에 잡색패는 없었나요?)

그것도 올라갈 제 그것도 다 갖추어 가지고 갔어요. 갓도 쓰고, 탈도 쓰고. 다양하지는 않아도 땡기꼬리도 하고, 고깔 맨들어서 쓰기도 하고, 가면도 맨들어서 쓰고, 포수는 없었어요.

(조사자 : 어린 아이들, 무동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조사자 : 그럼 정월에 했고요, 그 다음에 두레 대 한 것이지요? 농사지을 때도 했나요?)

갑이라는 사람 논머리에 꽃아놓고, 을이라는 사람 하면 거기에 꽃아놓고. 김맨다고 그러지.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놀고. 그리고 있는 집에 가면 논에서도 상사뒤야 노래 불러가면서 김도 매고, 그 옷으로 그냥 일하고 놀고. 정월에나 좋은 옷 입고 그랬지요.

(조사자 : 다 끝나고 호미씻이 할 때 컷지요?)

두레파작 때 말이지요? 뒷동산 꼭대기 가서 동네잔치 할 때. 음식도 차려 놓고, 아침부터 해서 저녁때까지 놀지요.

(조사자 : 어떻게 했나요?)

농악 치고 놀고, 소리도 하고. 시골사람들이 해봤자 뭐 죄 그거지요.

(조사자 : 소머리국밥도 끓였나요?)

그렇지요. 물만 많이 부어서 먹는 거지.

(조사자 : 혹시 두레싸움이라고 있었나요?)

그럼요. 그게 먼저 방구를 올리지. 한 번 해보자. 북으로. 저쪽에 신호를 보내면 지네가 호조방죽에 여러 두레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 번 놀자고 올리면 두레싸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원최 단결도 잘 되고, 그쪽에서 올려 주어야 같이 가서 노는 것이거든. 두레싸움도 이쪽에서 올리면 저쪽에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하고는 대조가 안 되는 것이 여기서 올리면 벽구 치기 시작하면 대단하니까 다른 데 사람들이 응해주지 않아. 생전에는 못 봤어. 전에도 그분들이 농악을 처음 꾸며 가지고 시작한 것이지. 전에 분들은 안 헌 것으로 알고 있어. 김맹석씨는 남사당 따라다니던 분으로 알고 있어. 애기만 들었지 잘 몰라. 그래서 그 양반이 상쇠를 잘 쳤지. 또 박춘식씨라고 상쇠도 치고 부쇠도 치고, 그런 정도만 알아요.

자료 8 : 정완중씨 이야기



사진 8. 정완중씨

- 채록일시 : 2003년 5월 7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 구 연 자 : 정완중(남, 76세, 현 장현동 노인회장)
- 주 소 : 시흥시 장현동 537-6
- 나서 자란 곳 : 시흥군 군자면 장현리
- 채록장소 : 장현동 노인회관
- 만나게 된 경위 및 채록 상황 : 월곶 지역을 면담 조사하던 중 다수의 면담자들이 이 지역에서 정완중씨가 두레풍물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증언을 하였다. 증언을 바탕으로 김원민이 섭외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조사자 : 이 부락의 풍물은 어땠나요?)

일제 때는 우리나라가 속국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풍물이 형편없었지. 해방 뒤에는 좀 활발해 지는 가 하더니 곧 보리고개가 없어지는 시기가 오자 점차 사라졌어. 지금 이 곳을 예전에는 '새재'라고 불렀다. '새재'는 '새로운 고개'라는 뜻이야.

(조사자 : 두레풍물을 언제 주로 했나요?)

모 낼 때는 풍물을 안 하고, 김 맬 때, 백중 때에 했지. 다른 명절 때는 안하고 정월 보름 때나 했어. 삼

복 더워 때는 덥고 힘드니까 잼이가 치고 올리면 신바람이 났지.

(조사자 : 두레파작은 있었나요?)

있었지. 두레파작이라 하는데. 일년 내내 농사 할 때 품을 팔아 모은 돈으로 뒷동산(재너머)에서 술 먹으면서 하루를 즐기는 것이지. 두레파작은 농사일을 다 끝내고 한가할 때 했는데 돼지고기를 삶고, 막걸리, 소주, 국수 정도를 해 먹었어. 부유한 집에서 쌀 한 말에 돈 얼마씩을 내는데 이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이장이 모았다가 마을에 큰 일이 생길 때 사용했지.

(조사자 : 잡색패는 있었나요? 혹시 걸립도 했나요?)

풍물을 할 때 잡색패거리는 없었어. 걸립은 충청도 사람이 가져와서 한 것이지 이 동네에서는 하지 않는다.

(조사자 : 농기는 어떤 형태였나요?)

농기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쓰고, 그 옆에다 '시흥군 군자면 장현리 새재'이라고 마을 이름을 썼어. 맨 위에는 꿩털을 달았어. 우리 마을의 지네밭은 2개였는데 지네밭을 2개 달면 암늪, 3개 달면 수늪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우리 마을의 농기는 2개를 달아 암늪이라고 불렀지.

(조사자 : 복식은 어땠나요?)

복식은 따로 없고 작업복 그대로 입고 나갔다. 정월대보름 때나 옷을 빨아 입고 나갔어.

(조사자 : 풍물이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팽과리에는 상쇠, 부쇠가 있고 징잼이, 다음에는 장구잼이, 방구잼이, 벽구잼이가 있지. 나는 상쇠를 했어. 우리 아버지인 정대산 씨가 상쇠 중에서도 잘 했는데, 다른 마을에서 품값이 500원이라면 1,500원에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가르쳐 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냥 잘 치는 정도이지 따로 배운 것은 아니었어.

(조사자 : 두레싸움도 있었나요?)

있었지. 부락이 크다고 해서 다 쉐 것이 아니고,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가가 중요해. 1년에 한 번 정도 가끔 일어난 것 같아. 새말이 100호이고 여기는 50호인데, 이 마을이 단합이 잘 되어서 쉐 편이었어. 두레 싸움은 기를 붙여 놓고 싸우는 것은 아니고 농기를 꺾는 쪽이 이긴 것이었어. 농기는 관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다 마을 자체의 생산이야.

(조사자 : 혹시 두레패가 경복궁에 갔다는 이야기는 못 들으셨어요?)

경복궁에 간 일은 없는 것으로 알아.

(조사자 : 인근에서 어디가 제일 셧나요?)

군자면에서도 장현동이 제일 셧지. 다른 동네에서는 다 이기고 와도 여기서는 다들 패하고 갔으니까. 이 동네에 천석꾼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가 행여나 지면 이 천석꾼이 지원을 해서 다시 싸움을 붙여 꼭 이기게 했어.

(조사자 : 두레싸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 주시지요.)

두레 싸움을 할 때는 서로 김을 매고 나와서 먼저 방구(북)로 3번을 치면서 만나자고 신호를 보내. 보내는 쪽에서 세 번 치고 두 번을 치면, 받는 쪽에서도 세 번을 치고 두 번을 치지. 그러면 이제 함께 놀자는 표시가 되는 거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기를 3번 흔들고 여기 동네는 나이가 많아 2번 흔들고 3번째는 반쯤 흔들다가 중간에 기를 올려 버렸어.

(조사자 : 당제는 있었나요?)

마을의 당산제는 없었지만 삼신물이 있는데 3일만 정성껏 기도하면 아들을 낳는다고 해.

시흥시 월미두레풍물놀이 고증조사 보고서

발행일 : 2003. 7. 15

발행처 : 시흥문화원

발행인 : 박용민

편집·인쇄 : 코인뱅크(T.031-404-3110)

〈비매품〉

©, 시흥문화원, 2003

429-240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45번지

T.(031)317-0827 / F.(031)317-0828



시흥문화원
www.shculture.or.kr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45번지 / T.(031)317-0827 / F.(031)317-0828